

공군

1951

〈제 123 호〉



(환)

귀순 복귀 조종사 박순국 공군소령 임관

—6월 10일 공군본부서 장병 축복받으며—

(영)



지난해(1970. 12. 3.) 미그-15 전투기를 몰고 자유의 품안에 안긴 박순국 전 북괴 공군소좌의 임관식이 6월 10일 상오 공군본부강당에서 김두만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전 참모와 장병들의 축복을 받으며 베풀어 졌다.

이 식전에서 김 총장은 박 소령에게 대한민국 공군소령 계급장과 공군 조종훈장을 달아 주었다.

박 소령은 자유대한에 안긴 감회어린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고 「대한민국의 공군 장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하였다.

또한 김 두만 총장은 훈시를 통해 「박순국 소령의 용기 있는 결심과 임관을 전장 병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예 공군의 일원으로 영공방위에 크게 기여 할 것」을 당부했다.

사 진 : ① 김 총장의 훈시 ② 김 총장 박 소령을 축복
 ③ 계급장 수여 ④ 박 소령의 감격어린 선서

국민 교육현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해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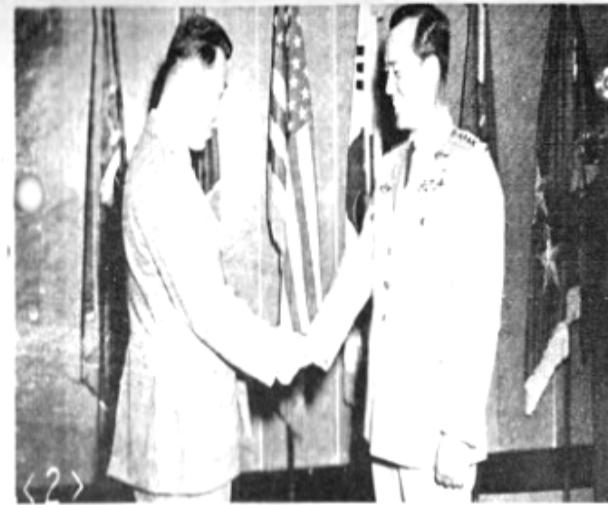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브라질 무관 공본 예방

주일, 한국검임 브라질 무관인 「수자」소장이 신임인 사차 5월 18일 공군본부로 김두만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제23기 특수 사관후보생 임관식

제 23기 특수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6월 1일 공군 기술 교육단 연병장에서 육만호 공군 참모차장을 비롯한 이충갑 기교단장 내외 귀빈과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공군」 제123호

차 례

☆권두언 정훈감 신 찬 (2)
 군인의 충성심과 사생관 경희대 초급대학장 윤 영 춘 (4)
 새 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 이대 교수 김 은 우 (14)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전우신문 편집실장 서 정 욱 (23)
 · 유니온에서 만난 「크랙」 교수 지 명 관 (31)
 <덕성여대 교수>
 수 · 음 덕 중령 김 병 로 (34)
 필 · 정약용의 교훈 어 효 선 (33)
 <아동문학가>
 · 국기배례 중위 최 흥 길 (38)

비 군인적인 유해독소를 해부한다

특 해방감과 탈선의식 조선일보 사회부차장 유 경 환 (41)
 집 적당주의와 단체 속의 책임회피 소 령 박 용 훈 (47)
 | 이기주의적 생활방식의 폐단 시 인 황 금 찬 (52)
 열등의식이 가져오는 병영이탈 전우신문 논설위원 이 창 특 (56)

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경향신문 외신부 송 경 섭 (61)
 사 미국 · 중공 · 소련 삼대국의 정립 한국일보 외신부 이 제 승 (68)
 한 · 일 관계의 전망 중앙일보 외신부 정 규 웅 (74)

7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명 「민족의 등불」에서 (80)
 현혈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편 집 실 (86)

캐나다 풍물소개 <홍익대 교수> 윤 중 혁 (88)

표지 · 차례 그림 이 재 철
 사진화보 : 표지2~3면, 차례 뒤

6 · 25발 발 21주년, 그 날의 분노를 기억하자!

특 북한 괴뢰군의 남침과 6 · 25의 참상 공산주의문제 연구소장 조 성 직 (96)
 집 북괴 도전에 대응하는 우리의 각오와 자세 · 단국대학 강사 김 유 혁 (102)
 북괴는 제2의 6 · 25를 획책하고 있다 국제문제 연구소 김 태 서 (108)
 <체험기> · 폐간병의 수류탄 이 승 념 (114) · 40여일의 숨바꼭질 · 류홍렬 (116)
 <문박 · 서울대학원장> <문박 · 성대 대학원장>
 · 나뉠 구해준 청년 · 한갑수 (118) · 사지(死地)에서 읽은 책 · 안병옥 (121)
 <한글학회이사 · 대한일보전무> <승전대 교수>

군 흡연과 비행적성 대령 · 박 경 화 (123)
 사 <연재> 소련의 군사전략⑨ 중 령 · 이 종 학 (130)
 과 세계의 공군력 소개—구라파 편 (143)
 학 미 · 소의 핵 전략태세와 공군 (157)
 전 전개돼 가는 VTOL의 세계 (168)
 육 · 해 · 공 3차원 시대의 체계분석 중령 · 김 진 화 (181)

- 새 시대의 성 윤리 문제 군목 · 이 영 털 (188)
- 성의 시장화와 새 윤리 군목 · 김 선 도 (198)

군 현대인과 성경 군목 · 김 두 식 (203)
 중 자기완성의 길 군목 · 허 수 (205)
 코 영혼의 고속도로 군목 · 설 삼 용 (207)
 너 <단 편> 후 일 담 작가 · 최 인 호 (211)

공군

<제 123호 : 1971년 제 3호>

<비매품:무단전재금>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공군대령 신 찬

인쇄처:공군교재창

인쇄인:공군대령 최금규

편집실: TEL. 406-2204,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아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권 두 언>



국사의 올바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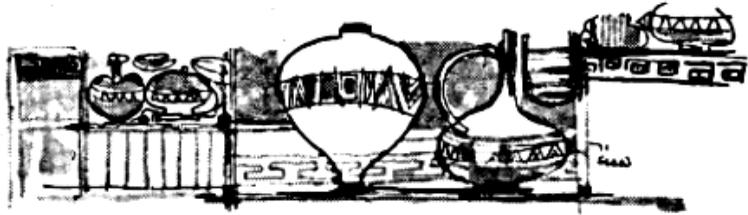
—국사의 올바른 이해는
민족정신의 지주가 된다—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이스라엘 민족은 2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구의 끝까지 방황하다가 2차 대전 후에야 옛날 그들의 선조가 살던 고장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웠다. 지중해 연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많은 시련을 무릅쓰고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다. 2천년 만에 도로 찾은 조국, 비록 땅은 사막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조국이었다. 그들은 살기 좋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피땀을 마다하지 않았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상의 일이 담긴 우리 역사의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솟아나고 또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인 문화의 낙후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누(累)천년동안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은 것으로 되어 있다. 대륙의 한끝에 붙어 있다는 지리적인 조건은 마치



숙명적인 굴레를 쓴 것처럼……

일제의 지배 밑에서 조장된 민족적 열등감은, 의리성이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했고, 또 대륙의 무력적 압력에 의해 사대적 사상을 가진 일도 있었다. 이 모두가 보잘것없는 치욕이요, 자멸적인 것으로 확실히 극복해야 할 병폐이었다. 이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하듯이 스스로가 딛고 설 힘이 모자랐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 또 우리 역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일소해야 한다. 조상의 일을 되새겨 「우리민족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주체성을 가지고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강감찬 장군의 구주대첩,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 등 자랑할 만한 위대한 선열들이 수없이 있고, 문화적으로 원효의 불법, 석굴암의 미술, 고려의 청자 및 금속활자, 세종의 한글창제 등 찬란한 역사가 빛나고 있지 않은가!

곤욕의 이면에 『슬기로운 얼』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표본을 면에서 찾지 말고, 바로 우리의 조상에서 찾아 상위 중진국으로 변형하는 조국의 「지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의 정신교육도 이러한 의미의 올바른 국사의 이해와 밑바탕을 이룰 때, 우리가 바라는 정병강군이 이룩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군인의 충성심과 사생관

윤 영 춘

경희대 초급대학장

군인의 충성심과 사생관

윤 영 춘
 <경희대 초급대학장>

①종군(從軍)과 충성(忠誠)
 세상에서 군인생활처럼 의무적이요, 충실한 생활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유니폼을 입고 행동도 규율 적이요, 통일적이다. 일단 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목숨을 내어던지면서까지 나라를 수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종군하지 않고는 사나이다운 용감이나 슬기를 펼쳐 볼 기회가 적다고 본다. 세계적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들은 대개가 길고 짧은 간에 군인생활을 거친 사람들이요, 군인생활에서 충성심을 심분 발휘한 사람들이다.
 학자, 과학자, 예술가 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슬아슬한 장면을 거치지 않은 이가 별로 없으며 그러므로 해서 심각한 작품을 써낸다는가 적절한 정책을 시행한다는지 생사에 대한 인생철학을 지어내는 것이다.
 처칠은 오랜 군인생활을 지낸 정치가요.

케네디도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가졌던 것이다. 문화사를 더듬어 보면 희랍 같은 나라의 소크라테스, 소포클레스 같은 철인들이 나왔을 때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으며, 이들은 전쟁에 종군한 경험이 있었고 로마 전성시대에는 카이자가 문무를 겸한 정책을 써 왔다. 호머 같은 시인은 청년시기를 지나서 부루투스 장군의 휘하의 이름 없는 보병 대장을 지낸 경험을 가졌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 초사는 1369년에 에드워드 3세의 불란서와의 전쟁에 종군한 경험을 가졌다. 셰익스피어는 기마군관(騎馬軍官)을 지낸 바 있고, 화가 푸란시스는 보병대사관(步兵隊士官)으로 종군했고, 지질학자(地質學者) 니즈키린은 보병 대장이었다. 키푸링은 젊었을 때 스코틀랜드 군대의 보병으로 종군한 바 있다.

스페인의 문학 전성기에는 시인이나 작가치고 일단 군대에 적을 두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시인 로버트는 육군으로 종군했으며 소설가 셀판테스도 역시 육군에 종군하면서 내버스터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누워있으면서 하는 말이 『총탄이 나의 몸을 부상시킬지언정 나의 붓끝을 부상시키지는 못할 것이요, 더욱이나 나의 의기를 저하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폴투칼의 문학가 크먼은 셀판테스와 마찬가지로 군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소설가로 군인이었다. 불행하게도 전쟁에서 둘 다 부상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왼손을 잃었고 한 사람은 오른쪽 눈을 잃어서 거의 폐인에 가깝게 되었으나 후세에 소설로 이름을 크게 떨치었다.

근대 철학의 원노로 불리우는 데칼트는 1916년에 불란서 지원병으로 입대해서 오란다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파푸리공의 휘하에서 5년 동안 종군하는 중 전쟁에서 높이 공을 세웠는데 그때는 25세였었다. 이 밖에도 마알스는 하나의 육군 기수(技手)로서, 종군하면서 후에 광학(光學)으로 이름을 떨쳤고, 박물가 마크도 중년에 군인이 되어 종군하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했다.

불란서 문인 중에 라슈부크는 격언(格言)이라는 책을 써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는 소년 시절에 일찌감치 군에 입대해서 여러 번의 전역을 치러냈다.

루이크릴은 단원법론(單元法論)을 저술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라인강 근처에 살다가 후에 공화당 군대에 입대해서 보병으로 이태리 전쟁에 종군했다. 군대생활을 하는 중에 희랍어로 불말(火馬)이라는 책을 저술했으나 이 원고는 송두리째 적에게 박탈당해서 후광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종군생활을 규율과 절제에 엄격한 훈련을 받은 기간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며 인격형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하는데 원천이 될 줄 안다.

불의와 싸우는 것은 괴로운 일이나 얼마나 인류를 위해 다행한 일인가. 젊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면 그 공덕은 후세에 빛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충성심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일들은 별처럼 길이 빛날 것이다. 호머의 말처럼 『그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처럼 영광스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종군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한 나머지 틈틈이 자기 시간을 내어 소신껏 자기 학문의 터전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일면 그의 충실성을 보인 증거인 줄 안다.



② 불명의 등대

충성은 마음의 등대다. 충성이란 말은 영어로 Loyalty, fidelity, fealty인데 이 뜻은 신의(信義) 또는 성실(誠實)에 통한다. 다른 잡념 없이 오로지 한 길로만 달리는 경향을 말함이다. 마치 말의 두 눈에 보안을 씌워 결눈질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리도록 하는 수법과 같은 것이다.

성실(Sincerity)이란 말은 아아더-턴(Arthur Tonne)의 해석에 따르면 「밀초로 때우지 않은」(Without wax)이라는 말이다. 성실의 형용사 「Sincere」는 라틴어의 「Sine」과 (cere)의 두 개의 말을

영어로 연결시킨 것인데 그 뜻은 대리석을 짐에 싸서 수송할 때 대리석이 귀가 떨어지거나 조각 한 귀통이의 석상(石像)이 깨어질 때가 가끔 있다.

이 흠점을 감추기 위하여 그 상처를 하얀 밀(密)을 빗어서 메워 넣는다. 이 같은 속임수가 발달되어 전문가가 보아도 그 흠점을 발견할 수 없으리만큼 교묘하게 만들어 넣는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메워 넣은 밀초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부드러운 밀은 폭풍 뇌우와 매서운 계절풍에 기어이 금이 가고 흉터가 나고야 마는 법이다.

이런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위조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포장에 쓰는 말이 밀초를 바르지 않은 순전한 대리석이라는 뜻에서 Sine Cere이라고 쓴다. 밀초로 뭍질 안 한 것을 성실이라고 한다면 나라에 대해서 쓰는 말로는 충성심이라고 한다. 물론 개인관계에 있어서도 충성이라는 말을 안 쓰는 바가 아니나 진심이라든가 성실이라는 말을 동격적(同格的)으로 항상 쓰고 있는 터이다. 위조, 날조, 엉터리, 가짜, 속임수는 충성, 또는 성실의 반대어이다.

맥아더 원수가 극동사령관으로 재임 중 한국 전선이 위기 일로에 처해 있음을 알고 예하 지휘관을 데리고 한국전선에 친히 나와서 실태를 파악할 때의 일이다. 하루는 파괴된 한강철교 부근을 시찰하던 중 강둑에 젊은 한국병정 하나가 총을 들고 황폐해진 강둑을 지키고 서 있었다. 맥아더 원수는 너무 기특해서 20세 쯤 남짓한 이 병정에게로 가서, “도대체 너는 어째서 이런 황폐한 곳에 서 있느냐?”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서 있을 작정인가?”

“상사가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릴 때까지—”

맥아더 원수는 크게 감동을 받고 뒤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서 있는 병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마음에 판단하기를, 한국 병정이 저만하면 앞날이 밝다는 결론에서 동경 극동사령부에 돌아가서 속히 북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 결과는 평양과 청진까지의 탈환은 급속도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20세 남짓한 젊은 장병 한 사람의 충성심이 맥아더 원수를 감동시켜 커다란 성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大學)에 기록되기를 「충성은 밝음(성즉명:誠則明)」이라고 했는데 중심에 충성이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그것이 밖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마는 법이다. 중용(中庸)에 「오직 천하에 지 성만으로 능히 그 본성을 다한다(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고 했다. 군인은 나라의 충복(忠僕)이요, 간성(干誠)이다. 이것을 좀먹는 것은 불충성이다. 나라의 심장부가 성실하고 순수하고 건전해야만 그 나라가 건전해질 수 있다. 이 핵심이 바로 군인인 줄 안다. 이 심장부가 가짜요, 부정투성이요, 불충실하고 부패 덩어리라고 하면 그 나라도 따라 부정부패투성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625동안 이후 상이군인이 한참 행패를 부리고 양민을 괴롭히던 때의 일이다. 하루는 삼십세 좌우로 보이는 상이군인 하나가 다리를 절면서 아이를 업고 내 집에 찾아온 일이 있었다. 처절한 모습을 하고 때 투성인 아이를 내려놓으며 하는 말이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이렇게 다리를 절며 다닙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아이를 내어 버리고 어디론지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여비가 부족하니 동정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 댁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 목사님이 소개해 준 까닭입니다.”

“어느 목사님 말입니까?”

“박 목사 말입니다.”

그는 내 집 대문에 교회 팻말이 붙은 것을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목사님의 이름의 탐문해서 알고 온 것인데 그 실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나에게 이 상이군인을 소개해 준 일이 전혀 없었다.

이된 사연을 모르고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가 자기 고향으로 넉넉히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고맙다고 백 번 인사를 하고 다리를 절며 대문 밖으로 나갔다 하도 불쌍해서 뒤에서 한참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있었다. 내가 뒤에서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약 2백 미터의 거리에 가서부터는 제법 활개를 치며 죽죽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속지 않았나 하고 자신을 의심할 정도였다.

다음날 나의 친구 생일이어서 초청을 받고 친구 집에 불리어 갔다. 때마침 어제 내 집에 왔던 그 상이군인이 똑같은 수법으로 그 연극을 재연하는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가라고 호통치고 싶었으나 그런대로 참았다. 내 친구가 적절히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그 후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 틀림없는 그 상이군인이 똑같은 수법으로 만가에 많은 피해를 끼치다가 나중에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시계를 훔쳐내다가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행실은 언제나 표면에 나타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응이 오고 마는 법이다.



③ 인간은 죽음의 망명객(亡命客)

죽음을 잊지 말라는 말은 자고이래로 많이 써온 것인데 이 말은 산 사람에게 대한 말이며 죽음은 산 사람에게 대한 문제에 속한다. 충의(忠義)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달리 충의를 버리고 사리(私利)에 살며 용감(勇敢)을 버리고 비겁한 기생 흠아비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살았다 해도 죽음에 쫓기며 살아가는 망명객과 같다. 떼뻗이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죽음은 한여름의 구름장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살고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투성인 듯하다. 삶은 죽음의 부정이요, 죽음은 삶의 부정이기도 하다. 이것은 죽음의 생성(生成)에 대한 정반대(正反對)의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 생성에는 죽음의 자각이 따르기 마련이다. 인간은 자기의 유한성(有限性)을 자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불가피적(不可避的)으로 죽음에 이르러 고 마는 운명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야 한다.

생명에 충만해 있는 청년시대는 죽음을 그다지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으로 망각하는 순간은 행복하다.

그러나 어느 때엔가는 죽음이 닥쳐오고 만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경험하지 않고서도 죽음의 한 부분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빈사상태(頻死狀態)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그런 때일 것이다. 그러나 빈사상태만으로 죽음을 맛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종의 상상력에 의하여 또는 종교를 통하여 미래 세계를 환상적으로 그려보는 데서 이생과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죽음이라는 과정을 밟아 저세상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육체는 죽어 없어지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생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다지 가질 필요가 없을 줄 안다. 삶에 대한 애착과 인정에 대한 비극, 혈연에 대한 근심 걱정보다 나의 영혼의 갈 길은 어떤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길을 값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명에 충실되어 젊음을 자랑하는 젊은이들은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마치 촛불에 덩벼드는 불나비와 같아서 생사를 모르고 세상 향락에 덩비다가 끝장을 보고 만다.

내일은 예측할 수 없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다. 죽음이 문턱에 이르렀어도 이를 모르고 능청스럽게 지남이 도리어 행복된 일일 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경우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니 만치 오늘을 보람차게 보냄이 내일을 위해 예금 통장을 갖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실을 허술하게 보낼 수가 없다. 현실을 충실 되게 보냄이 죽음의 공포를 더는 길ियो 죽음을 극복하는 지름길인 줄 안다.

예수교를 박해하던 중세기에 로마 병정이 충실한 주의 종 뿌끄의 집을 찾아 뿌끄를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했다.



뿌끄의 집인 줄 모르고 뿌끄의 집에 들어간 병정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갈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려고 할 즈음 뿌끄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정인 줄을 모르고 다만 평소에 하던 솜씨로 그들에게 지성껏 대접해 드렸다. 병정들은 이 성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뿌끄에게 묻기를, “여보, 영감 뿌끄라는 사람을 압니까? 그 사람 집이 어디 있냐요.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네 압니다. 그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니 천천히 음식을 잡수시고 하루 쉬시고 내일 체포해 가지지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하는데 영감이 뿌끄를 알거든 그 집에 같이 가서 그를 체포하는데 협력해 주세요.”

“네! 바로 제가 뿌끄입니다.”

병정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의 인격에 감동된 로마 병정들은 체포하지 않고 로마성에 되돌아가서 천하에 이같이 훌륭한 성인이 없다고 보고해서 로마 법황은 그에게 특사를 내려 무사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은 공의에 살고 충성을 다해 자기소임을 다하는데서 죽음의 언덕을 피해 살 수 있을 것이다. 설마 그에게 죽음이 닥쳐와도 고독해 하지 않는다. 137세나 산 이스마엘은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산다(창세기 25장 17절)」고 한 것을 보면 죽은 뒤에도 영혼은 살아 있음을 시사해 준 것이 아닌가.



④ 죽음의 극복(克服)

삶을 충실히 하는데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높은 이상에서 나라와 겨레와 인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죽음을 이기는 비결은 착한 일에 심혈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데 있다. 피테의 걸작인,

파우스트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 심지어 마술까지 배웠으나 자연의 비밀을 것 잡기는 너무나 무력했다. 그는 마술로써 지령(地靈)을 불렀으나 자기 힘의 부족을 느끼고

독배(毒杯)를 마시고 죽으려다가 부활제 종소리를 듣고 어린 시절이 그리워 독배를 던지고 군중 속에 섞이어서 교외로 나간다. 이때 악마 메피스트와 계약을 맺는다.

파우스트가 살아 있는 동안에 메피스트는 파우스트가 요구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성공시켜 주도록 되었다. 그 대신 파우스트가 죽을 때면 그의 영혼을 메피스트에게 맡겨서 지옥에 가도록 했다. 메피스트는 파우스트에게 도로 젊어지는 약을 먹여서 청춘으로 돌아가게 한다. 도로 젊어진 파우스트는 여러 가지 파란곡절을 지나서 삶을 보내고 죽었다. 아무리 애써도 땅 위에 활동은 불가능했다. 그의 욕망이나 이상 같은 것은 실현될 수 없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잠깐 멈춰 달라.....”고 외쳤다.

이 뜻은 파우스트가 메피스트에게 그의 영혼을 도로 주기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맞는다.”라고 했다.

파우스트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더불어 자유의 국도를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땅 위에서 많은 사람의 행복이 실현되는 것을 본 파우스트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해서 메피스트는 실제적으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메피스트는 승리한 듯하지만 결국 파우스트가 인간의 고뇌를 노력으로 이기고 유한한 인생의 죽음을 자기의 이상을 실현함으로 극복했다. 행복감을 느끼는 데서 오는 파우스트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인 줄 안다.

그 증거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⑤ 값있는 죽음은 삶의 재생(再生)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하여 플라톤이 쓴 「죽음」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공의(公義)를 위해 받는 죽음의 잔을 달갑게 받았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



죽음은 애절한 것이 아니고 통쾌한 것이라는 빛을 보았다. 죽음이란 내 일생동안 추구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을 뒤에 남겨 두고도 슬프게 생각지 않는 바라고 했다. 이 같은 변명을 하는 것을 변명보다도 믿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 말을 들은 케기스가 옆에서 다그쳐 묻기를,

“육체를 이탈하면 영혼이 연기와 같이 소멸되거나 또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것을 알고 또 믿으면 만사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그것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자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크나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옛사람의 가르침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세상에 가서 이 세상을 돌아와 재생할 때까지 거기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옛 가르침을 믿을 수 있든 없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소생한다는 것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까지도 죽음에서 소생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커다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살아 있는 모두가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죽음이란 오직 「새로운 삶의 재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얼핏 보아 불교의 윤회설(輪廻說)과 비슷하나 이 책의 뜻은 죽음의 공포를 덜려는데 중점을 둔 것이지 결코 윤회설은 아니다. 땃땃이 살다가 죽을 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나는 참말 그때 느낄 만족감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인 줄 안다. 이것이 오로지 숭고한 이념 아래 조국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 하다가 죽는 군인에게 올 면류관이며 죽어도 영원히 살아남을 귀한 존재일 줄로 안다.

× × ×



새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

김 은 우
<이대 교수>



새 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은 먼저 새 세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무엇이나는 데서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군인도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고 그 인간이 과연 새 세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새 세대에 맞는 군인상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말해 둘 것은 최근에 와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발달된 과학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지는 곳이 군사기술이고 이 군사기술은 모든 기술 중에서도 가장 첨단을 가게 되는 기술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려는 제목과 중요하게 관계되는 점은 가장 최첨단을 달려야 하는 군사기술에는 과학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계와 기술이나가 반드시 인간과 합작 조화됨으로서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술에 직결되는 인간, 즉 군인도 인간으로서는 최첨단을 달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지 않고서는 운전수 없는 전차와 같고 지휘관 없고 선장 없는 배와 마찬가지로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해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새 인간상과 새 과학기술

그러면 새 세대가 먼저 요구하는 새 인간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똑똑하게 새 인간상과 새 군인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현재 의미하고 있는 새 세대 또는 새 시대란 과연 어떤 성격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의 새 문명 비판 분석 이론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와 교육면에서나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수로 있는 허버트 마셜 맥루한은 말하기를 현대를 가리켜서 일렉트로닉스(전자공학)시대라고 했다.

이 일렉트로닉스의 시대라는 말은 비단 우리 인간의 생활용품이나 모든 기계와 도구가 모두 전기화되었다는 데서만이 아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화된 매개체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신경과 감정마저도 지배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전자화된 것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인간 자체도 일렉트로나이즈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지배되어 왔던 문자 문화시대의 환경이나 인쇄 활자시대의 문화 환경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텔레비전의 영상화한 전자매체 문화와 라디오나 전신·전화나 영화 등 모든 전자화 된 매스컴의 매개를 통해서 모든 문화생활을 하게 되어 생각하는 것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자기가 사는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곧 정보화시대에서 태어난 인간들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를 일렉트로닉스의 시대라고 하기로 하지만 정보화시대라고도 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요새 와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못하는 병신처럼 된 것 같다.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하여튼 누구나가 정보에 빨라야만 산다.

정보가 빠르지 않으면 살았어도 죽은 사람이나 매한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맥루한은 요새의 인간은 그 인간 자체 됴됨이가 인간 안테나로 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요새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새 세대는 무한히 예민한 감각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생존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옛날식으로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하나하나를 차례차례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 시시각각 부닥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려다가는 어느 귀신도 모르게 개죽음을 할지 모르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다.

69년 여름 영국 노팅함 대학에서 「세계 젊은이들의 포름」이라는 청년대회를 열었다. 필자도 참석했다.

이때 영국 옥스포드 대학 철학교수 존 카드너는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지금껏 당해 보지 못했던 세계 미증유의 위기를 당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즉 인간 모두가 예민한 감각으로 앞을 내다보는 예감에 차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멸망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면 바로 이 예민한 예감에 차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직감적인 감각이 어떤 하나의 일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함께 파악해서 지체와 유예 없이 통찰력 있는 판단을 내려 실천으로 행동을 옮겨 모험이라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세대의 새 학설들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물리학자 로버트 위너

<새 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

박사가 제창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인간두뇌공학」이 새롭게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이버네틱스의 원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현대에서는 언제나 물에 빠져서 남의 구원의 손길이나 기다리고 있는 바다의 익사자와 같다는 것이다.

이 사이버네틱스를 체득해야 하는 것은 특히 군인에게 더욱 긴급한 것이라 하겠다.

이 이론을 길게 설명할 수 없으나 간단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사이버네틱스란 희랍어의 돛단배의 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이것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와 같아서 사람이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돛대와 키가 있는 반면에 자기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바람이나 풍랑이나 폭풍이나 조수 같은 것이 있는데 비록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역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체념하지 않고 이 역풍을 이용해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목적하는 항해를 성공시키는 법이다.

말하자면 나에게 닥쳐오는 위협이나 위협, 곤란을 역이용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전쟁에서 작전의 예지로 굉장한 과학적 연구를 하고 있다.

요새 와서는 전쟁도 병기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병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비단 전쟁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 세대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것은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보고 그것을 다 통찰해서 자기 일을 처리해 나셔야만 한다는 것이 새 세대에 적응해서 살게 되는 생활의 사이버네틱스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대는 하드 테크놀로지(Hard Technology)

<새 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

시대에서부터 소프트 테크놀로지(Soft-Technology)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소프트 테크놀로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제련소가 새롭게 설치되어 그 개관식을 하게 되었을 때 축사를 미국 뉴욕 메트로·오페라의 지휘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때 그는 축사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손을 써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노동자라고 하고, 손과 머리를 써서 일하는 사람을 전문직의 직업인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 같은 예술가들은 손과 머리와 그리고 또 하트(Heart)(심장), 즉 마음과 정서를 써서 일을 한다.

이제 똑똑히 말하겠거니와 앞으로의 세대는 노동자건 직업인건 정치가건 군인인건 다 같이 예술가들처럼 손과 머리와 그리고 하트를 써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쳐서 일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한다.

아무리한 일을 하든 하트를 함께 쓸 줄 모르게 된다면 비록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목적은 달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은 파멸되고 만다는 이야기다.

언젠가 한국의 한 장성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정말 한국 군인이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비록 병졸 하나라도 꽃을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고 비록 전쟁터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나무 한 포기까지 마음을 쓸 줄 아는 멋있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굉장히 앞서 있는 생각을 하는 한국 장성이라고 생각되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소프트 테크놀로지 시대가 되어 가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소프트 테크놀로지에 전환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쟁의 승리자는 되었는데 자연과 인간은 죽음의 골짜기에 놓이듯이 삭막한 불행의 세계 속

<새 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

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공해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공업 발달의 목적은 달렸지만 공해로 말미암아 인간과 생물은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자꾸 몰려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과 같은 것이다.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까지의 하드 테크놀로지가 범한 과오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DDT」라는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의 예가 좋을 것 같다.

DDT 약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이 DDT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생긴 약이다. 1960년대까지는 이 DDT는 인간이 인류역사 중에서 새롭게 발명한 약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다.

덕택에 우리나라에서도 빈대와 벼룩과 이, 그리고 파리 등 많은 해충들이 씨를 말렸다.

DDT 약의 목적은 달성됐다. 그러나 DDT 때문에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즉 모든 좋은 익충들도 죽었고 벌레들이 죽어가니까 새들이 점점 죽어갔다. 이것까지는 아직 참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DDT란 약이 한 번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거나 없어지지 않고 독한 약기운을 작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DDT는 사람에게 큰 해를 주어 20세기 후반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정신박약아를 만들어 놓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즉 풀이 DDT가 뿌려진 땅에서 자라난 것은 수분과 함께 DDT로 빨아 올랐다. 이 풀을 먹은 젖소가 젖을 짜 때 그 우유 속에 DDT가 흘러나오게 됐다. 그 우유를 먹은 유아가 DDT를 먹게 된 셈이다.

이렇게 DDT를 먹은 아이는 먼저 그 해독이 두뇌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어찌 비행기로 살포된 DDT가 젖소가 먹는 풀잎에만 빨려 올라갔겠는가. 과일 속에도, 채소 속에도 물론 들어갔을 것이다.

<새 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

해충 잡으려다 사람 잡는 셈이 됐다. 「우리말에 생쥐 잡으려다 큰 독 깨뜨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DDT 생산도 법으로 금지되었고 사용도 엄금됐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번 71년 5월 1일을 기해서 DDT 사용을 법으로 금한다고 냈다.

이것은 다행히 나타난 DDT의 산 예이지만 이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이런 하드테크놀로지의 부산물이 숨겨진 예가 얼마나 앞으로 나올 것인지 참으로 예언을 불허한다.

목적을 도달하는 것만이 제일이 아니다. 소프트 테크놀로지는 이제 물질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도 발전시키는데 힘쓰지만 목적에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도 똑같이 종합적으로 예의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대자연에 대해서도 조화 있는 균형을 잡도록 해 놓은 다음에 이 세 가지 조화 밑에서 비로소 새 세대의 올바른 인간 가치가 나오리라고 믿는 것이다.

과학 기술만 독주해서도 안 되고 인간만이 독주해서도 안 된다. 인간은 과거에는 대자연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도구를 창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은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급속하게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템포도 못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기계와 기술의 주인 자리에서 쫓겨나 과학기계 기술의 종이 되고 만 셈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어 자연을 자주 정복하다 보니까 이제와서는 자연도 인간을 등지게 되었고 이리다가는 자연의 대기도 사람이 마시면 죽게 될 독가스로 변할 가능성도 보이게 됐다.

이 지구상에 산소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양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량도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와서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 새 세대에서는 엔지니어링도 기계공학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링(SystemEngineering)이라 해서 인간과 자연과 기계가 일치하고 조화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참다운 과학 기술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새 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

이것이 바로 최첨단의 과학기술인 것이다.

제일 먼저도 말했지만 오늘에 와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군사기술은 과학기술의 최첨단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늘에 와서 산업계, 이 공업계니, 정치계니, 그 어느 계보다도 군계야말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가장 먼저 들어와서 군사 기술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즉 인간과 자연과 기계 병기, 과학무기가 조화되고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인간이란 새 세대가 요구하는 인간 중에서도 최첨단의 감각과 문화적 체계 즉 전자화 한 인간 안테나가 된 인간이 바로 새 군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겠다.

결론

5종의 새 요소를 가진 인간상에다 최첨단을 가한 것.

여기서 더 한 가지 새로운 세대가 바라는 군인상에 첨가할 것은 모름지기 새 군인상이 구현되는 군인은 일렉트로나이즈한 인간 안테나가 될 만큼 예민한 감각과 촉각과 예감과 직감의 소유자일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테크놀로지에서 말하는 하트의 주인공이어서 인간과 자연과 과학기술을 일치시킨 사람이고 동시에 사이버네틱스에서 말하듯이 아무리 역경과 역풍이 닥쳐와도 즉각적으로 전체의 상황을 한꺼번에 통찰 파악하는 예지로써 독창적인 모험을 신나는 기분으로 결행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키네틱스(Kinetics) 일명 바디랭귀지 (Body Language)에 익숙해야만 한다.

이 키네틱스란 귀에 서투른 말이겠지만 그 원리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즉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신체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어떤 움직임이 적건 크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 세대가 요구하는 군인상>

눈 하나 깜짝하는데도 이미 모든 언어 표현키 어려운 내용과 의미가 표시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의 인간에게는 말이나 관념이나 사상은 너무도 복잡해지고 교활해져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사용하는 말은 그만큼 이미 타락되었다는 말이다.

말이 없는 중에도 인간은 진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진실을 그의 표정과 움직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실험상 증명되었다.

언젠가 베트남의 영화 타이거 오브 정글(Tiger of Jungle)「숲속의 호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 출품된 것을 필자가 심사원으로 참가해서 심사한 일이 있다.

그 영화는 우수 영화로 입상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글속에서 게릴라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의 말도 안 하고 자기 부하를 지휘하는데 전부가 눈과 턱과 팔과 손으로만 명령을 내린다.

그것처럼 체내 깊숙이 스며드는 진실감과 엄숙한 느낌을 준 일이 없다.

원래 군인은 헛바닥이나 입술을 움직여 말로 한 목 보는 것이 아니다.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인간미와 용기와 신뢰심과 인간적 정열과 힘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새 세대가 요구하는 새 군인상이란 새 세대가 요구하는 인간상 중에서 가장 첨단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잘할 수 있는 인간상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름은 군인상이지만 실제로 국방을 담당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겸한 새 세대와 새 사회의 몸으로서 임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자상도 되어야 할 것이다.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서 정 옥
〈전우신문 편집실장〉



이성을 잃지 않은 합리적인 행동만이 참된 군인의 용기이다.

사람의 의지만은 자유로운 것이다.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도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과성을 띠고 있고 제약도 받는 것이지만 어떠한 유혹이나 충동에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곱힘이 없이 그런 것 등을 이겨내면서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행동하는 능력이 참되게 발휘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도 부른다.

그 용기는 또한 자유로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자유로운 인간의 참된 행동에서 얻어지는 용기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자.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특히 우리 군인들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란 어떤 것인가를…….

모든 행동을 이성으로, 생명·재산보호 잊지 말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각한다는가 또는 선택한다는 능력은 곧 이성이다.

그렇다면 그 이성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이나 충동에서 선택하는 자유로 참다운 의미에서 그 행동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의롭다고 판단되어 움직여질 때 그것은 곧 이성이요 참된 용기인 것이다.

모든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곧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소는 끌거나 채찍질을 하면 걷는다. 그러나 사람은 명령에 복종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명령에 복종할 때는 그것을 어긴 다음에 오는 어떠한 물리적 폭력이 두려워서 그러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자유로 올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받아 자각적으로 자기 명령으로 전환시켜서 움직일 때 우리는 자유로 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사태에 직면하여 이성으로 자각, 과연 의롭다고 판단하여 합리성을 띠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의 그 원동력을 우리는 참된 용기라고 한다. 때문에 용기는 인간의 행동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또 그 행동력은 곧 인간의 이성이다. 그렇다면 여기 특히 군인에게 더욱 필요하고 요구되는 참된 용기의 밑바닥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성이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또 누구나 그 생활의 대부분을 이성에 따라 영위하고 있다. 특히 근대 사회가 이성의 자각과 더불어 형성된 이래 생활의 모든 면을 이성에 맞는,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합리적 사고의 소산인 과학의 응용으로 기계화 시대라는 새로운 단계를 이룬지 이미 오래지만 사회 자체가 하나의 기계적 집단이 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분품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짜인 집단적 기계가 곧 오늘의 사회다.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그것은 이성 자각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결과는 이 사회를 마치 피라미드형처럼 상하가 분명하며 상부는 그 집단의 목적을 쥐고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부의 행동을 명령한다. 하부의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상부에 대하여는 일정한 의무를 하부에 대하여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스스로에서 우리나라는 참된 용기란 상부어나 하부에 하등의 의무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수행하면서 사태와 위급을 모면하는 수단으로 생기는 것이 용기다. 때문에 그 용기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용기를 우리는 흔히 만용이라고 한다. 만용은 곧 그 조직의 규탄은 물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된다.

자멸에서 사회의 죄악으로 변한다는 무서운 사실이다. 이제 여기 참된 용기에서 얻어지는 사회나 그 조직의 공익과 의무를 다한 예와 만용으로 인한 병폐의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순간의 기지, 불굴의 용기, 조종사 정재성 대위의 경우

먼저 말한 바와 같이 군인에게 있어서의 용기는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그 용기는 때와 장소에 따라 빛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용기는 순간적으로 발산되는 인간의 기지, 그것이 불굴의 용기로 변한다. 그것은 민간인의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군인에게에는 절대 필요 불가결이다. 특히 공군 장병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 그 한 예로 공군 9821부대에 근무하는 교관 정재성 대위의 경우를 살펴보자.

× × ×

비행훈련 중 고장을 일으킨 얘기를 무사히 착륙시켜 고귀한 생명과 값비싼 항공기를 살린 장한 보라매의 웰던 소식.

지난 9일 오후 2시 6분 비행 훈련차 T-28기로 조종학생을 뒤에 태우고 기지를 이륙한 공군 9821부대 정재성 대위(28-공사 147)는 이륙 직후 고도 1백 피트에서 프로펠러-케이블 작동정지로 기체가 수평비행 능력을 잃고 계속 하강하는 위기를 맞았다.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정 대위는 즉시 기지에 비상 호출을 하는 한편 당황한 후방석의 조종학생을 안심시키면서 기지 근처 갯벌에 불시착할 것을 결심하고 고도를 50피트까지 강하시켰다.

그러나 수십 명의 조개잡이 낚시꾼들이 갯벌에 깔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정 대위는 자신의 생명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주민을 희생시킬 수 없어 반사적으로 조종간을 잡아채었다.

이때 항공기는 기적적으로 10피트를 상승하며 고도 60피트를 유지했고, 이에 용기를 얻은 정 대위는 침착하게 좌선회를 시도하는 모험을 감행, 맞은편 산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실추 직전에 착륙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 광경을 지상에서 손에 땀을 쥐며 지켜 보고 있던 부대장 이하 전조종사들은 정대위의 항공기가 활주로에 터치·다운하는 순간 일제히 환성을 울리며 기쁨과 감사의 갈채를 보냈다.

땀투성이로 범벅이 된 채 얘기에서 내린 정 대위는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국가재산을 건지고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의 땀을 닦았다.

한편 부대장은 정 대위의 뛰어난 비행 기술과 불굴의 용기를 높이 치하하고 비전 시하에서 조종사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명예인 웰던 상을 공군본부에 상신했다.

<1970년 8월 18일 전우신문 3면>

× × ×

참으로 장한 일이다.

물론 이 이상의 기지와 용기를 지니고 조국과 민족에 봉사하는 장병도 있으리라.

그러나 여기 정 대위의 기지와 용기는 자기의 얘기를 구했으며 크게 나라의 재산을 보호한 것이요 또 나아가서는 고귀한 인명을 구출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정 대위에게 그러한 용기가 없었더라면 자신과 조종 학생의 생명은 물론이요, 조개잡이를 하던 수십명의 민간인들이 그 비행기에 깔려 희생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 대위의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정 대위는 조종 교관으로 참된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뒤에 앉은 조종 학생은 물론이요, 정 대위를 교관으로 모시고 있는 학생들은 형식이나,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이론이 아닌 산 체험을 배웠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신수범이 바로 정 대위의 용기요 또한 참된 군인 정신인 것이다.

희생을 각오하고 자신이 지닌 최선의 방법을 다한 그의 용기야말로 우리 공군의 보라매 정신인 것이다.

침착을 잃지 않고 모험을 감행한 정 대위의 그 투지와 용기는 평소의 고된 교육이나 훈련이 없었더라면 절대 소생할 수 없었으리라.

또한 그의 군인으로서의 조종교관 된 밑바닥을 흐르는 애국 애족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기지와 용기는 찾아볼 수 없었으리라.

지옥행 꺾은 자유의 함심 KAL기 납북 모면과 용기

다음은 여기서 지난 1월 23일 속초 서울간의 정기 여객기(KAL소속) 납북 모면사건에서 보여 준 승무원들의 용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 × ×

지난번 KAL기 납북사건이 있는 지 1년 1개월여 만에 또다시 KAL기가 납북될 뻔하다가 조종사와 보안원 및 훈련조종사의 기지와 용기로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23일 낮 1시 7분 대한항공(KAL)소속 F27기(기번 HL5212-제841편)가 승객 60명(범인포함)과 승무원 5명 등을 태우고 속초 대포리 비행장을 이륙, 서울로 20분 가량 비행하던 중 승객을 가장했던 범인 김상태(22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거진 3리)가 소지했던 4개의 사제 수류탄 중 2발을 조종실 문과 객실에 던져 파괴하고 조종사를 위협 월북을 강요했으나 훈련조종사 전명세(40)씨와 보안원 최천일(27)씨의 생명을 건 용기와 기장 이강훈(36)씨의 기지, 그리고 긴급 출동한 공군기의 위협사격과 유도를 받아 범인을 사살하고 오후 2시 20분경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해안 모래사장에 비상착륙, 극적으로 납북을 면했다.

<1971년 1월 25일 동아일보>

× × ×

물론 당시의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사고로 훈련조종사 전씨는 순직하고 스튜어디스 최석자(27)양 등 2명의 승무원과 4명의 승객이 중상을 입고 8명이 경상을 입었던 것이다.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범인 김은 2발의 사제 수류탄을 던지고, 다시 2발의 수류탄을 던지려고 양손에 들고 계속 월북을 강요했으나 우리 공군 F5A기의 추격과 위협사격으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마침 범인 김이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순간 보안원 최씨가 재빨리 권총2발을 쏘 김은 비칠하며 손에 들었던 수류탄을 놓아 터지는 바람에 범인은 그 자리에서 폭사했고 이때 훈련조종사 전씨는 폭발로 인한 승객의 희생을 막기 위해 용감히 수류탄을 던졌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씨가 몸을 날리지 않았더라면 기체는 온통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이고 승객들도 온전히 못했을 것이다.

전씨는 쓰러진 채 빨리 승객을 구출하라고 마지막 목메인 소리를 쳤다고 한다.

드디어 기체가 불시착하고 범인의 등 뒤에서 끌어 내려진 전명세 훈련조종사는 실낱같은 의식을 가다듬었다.

작업 중인 해안의 ○○부대 장병들에게 그는,

“여기가 대한민국에 틀림없느냐!”라고 목메었다고 한다. 군 후송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앰블런스 속에서도 그는 보안관 최씨에게 “승객들이 많이 다치지 않았느냐 미안하다.”

고 피투성이의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끝내 그는 서울로 이송 도중 애석하게도 숨졌다.

이 얼마나 숭고한 최후인가.

이 KAL기에 뒀던 승무원들의 기지와 용기, 그리고 반공정신은 온 국민의 거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담한 조종, 정확한 사격, 살신의 기습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꺾고 자유를 되찾은 것이다.

전명세씨가 아니었다면 기체가 풍비박산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결코 승객 60명도 생명을 잃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자유를 지킨 그들의 용감성과 기지는 모두 일찍부터 우리 군에서 배양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교육과 훈련이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목숨을 건 순간의 판단은 참된 인간의 의지 참된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참된 용기는 위기를 극복하고 전우를 구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구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이상 정 대위의 경우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참된 용기로 인간의 생명과 나라의 재산을 구한 실례를 들어 봤다. 반면 한때나마 우리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만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국군으로서 조국의 방위와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서 무기를 들고 있다.

때문에 그 무기는 어디까지나 지나게 되는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성을 잃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애인이 변신했다고 해서 부대에서 함부로 총기를 들고 군대사회를 이탈해서 죄 없는 시민을 인질로 하는 따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은 만용인 것이다. 그러한 만용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국가와 민족에 죄를 짓고 마는 것이다.

사랑하고 귀여워 해 주던 어머니나 병영에서 아끼고 믿어주던 상관이나 동료 전우들에게 숙죄할 수 없는 큰 과오를 지게 된다. 물론 그러한 만용은 계획되고 조직적인 경우보다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경우가 많다.

순간의 판단을 그르케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성을 잃은 판단은 대역을 범할 순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행동에서 합리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자유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각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인간의 참된 행동은 순간에도 행동하기 전에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가를 판단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판단의 힘이 곧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성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주어진 대로의 이성으로만 그 구실을 다 한다고 보는 것은 속단이다. 이성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수련되어야 한다. 많은 수련을 쌓을수록 그 이성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승공이라는 정신적 밑바닥 위에 자신의 정신을 올려놓고 닦고 키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되풀이되지만 KAL기 승무원들에게서 본 참된 용기는 반공이라는 정신적인

<군인에게 기대되는 참된 용기>

지주가 없었더라면 그 지옥행을 막지 못했을 것이요 또 정 대위의 경우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군 본연의 사명을 망각했다면 애기와 주민을 구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과연 장하고 용감무쌍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성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수련을 역설하였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이성만으로 된 존재도 아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감정의 판단을 그르치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자칫하면 자기는 물론 남까지도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몰아넣게도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언제라도 그 조절의 힘이 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용기를 찾는 길이다. 참된 용기 그것이 바로 군인정신인 것이다.

그 군인정신이 충열할 때 온 국민은 군을 신뢰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고 용감한 군인이 되기 위하여 군인정신에 투철하여 어떤 상황에서 나 어떤 불의에도 굴함이 없어야 하겠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붉은 미수와 불행은 목숨을 걸고 격퇴 또는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 그러한 침략이나 불행을 방어하고 이겨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철한 반공정신이다.

반공정신은 곧 군인 정신이다.

이성을 잃지 않고 합리적인 행동이 곧 군인정신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정신은 비단 군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KAL기의 납북을 구출한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신무장을 첫째 위치에 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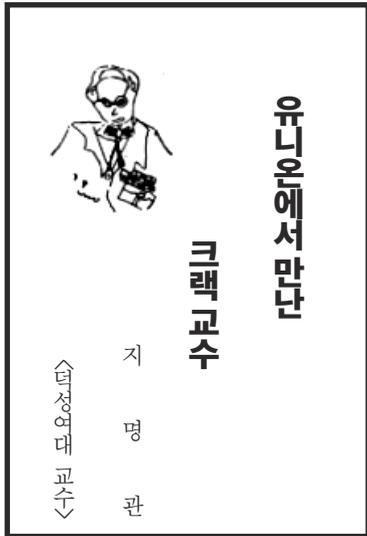
그 정신무장이 근간에 바로 군인정신이요 반공정신이다.

군인정신이야말로 참된 용기의 행동적 기본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군에 있어서는 만용이란 있을 수 없다.

자신이 민주군대의 일원으로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엄정한 군기를 해칠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참된 군인정신은 이성을 잃지 않은 합리적인 과당성에서 움직여지는 성실한 행동을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수) (필)



1967년의 일이다. 나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1년간을 배우게 되었다. 그때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수이며 성공회 성직자인 케네트 크랙 교수에게서 이슬람 종교 강의를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랍 여러 나라에서 연구 생활을 하고 가르쳐 온 이슬람 연구에 있어서 현대 최고의 권위자다. 그는 한 학기는 미국에서 강의하고 또 한 학기는 캠브리지나 아랍국가에서 강의를 한다.

그해 유니온에서 가르친 것은 코란과 중동 종교 두 강좌였다. 코란에 담겨진 교리를 가르칠 때 그는 어디까지나 종교학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슬람 종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동 종교에서는 중동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즉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각종파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동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종교들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의 강의는 거의 중얼거리는 것 같은 나지막한 음성으로 차근차근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근엄하고 깊은 명상에 잠긴 것 같은 얼굴에는 때때로 가벼운 미소가 지나가곤 하였다. 이슬람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도 그는 곧잘 셰익스피어 같은 고전을 인용하였다.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전문적인 학자의 풍모가 아니라 높은 교양인 높은 인격이라고 나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인품이 그의 강의에서는 물론 그의 저서에서도 넘쳐흐른다. 그의 문장은 문학 작품처럼 향기 높은 것이었다. 「파키스탄의 모스렘이 승전기를 부를 때 인도의 모스렘은 흐느껴 운다」 이런 것이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비극을 전하는 그의 필치다.

모스렘 나라를 세운다고 하였지만 파키스탄에는

<수 필>

전 인구의 40퍼센트에 달하는 힌두교가 있다. 또 한편 인도에는 아직 3천 5백만이나 되는 모스렘이 남아 있다. 이들은 몸은 비록 다른 곳에 있어도 마음은 자기 종교의 나라들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소속한 나라에 충성을 바치려고 하지 않고 종교에 따라 자기 나라 아닌 자기 나라에 충성을 바친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모스렘이 힌두교를 억누르면 인도에 있는 모스렘은 그곳 힌두교도들의 박해를 받아야 한다. 인도의 모스렘이 고통을 겪으면 파키스탄의 비극이 찾아온다.

이러한 사태 때문에 인도는 파키스탄의 문제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고 파키스탄도 인도를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 버릴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크랙 교수는 종교 연구가답게 비판하면서도 깊은 동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크랙교수와 무엇보다도 아랍 사람들과 모스렘 교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언제나 풍부한 인간애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인가 하루는 누가 우리가 있는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있었다. 건넌방에 묵고 있던 인도네시아 친구와 함께 내려가 보니까 크랙교수가 와 있었다. 그는 손에 한 권의 노트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루로요씨의 노트 같은데……”

인도네시아 친구가 교실에 잊어버리고 온 노트를 가지고 크랙 교수는 수줍은 듯이 주섬주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교수는 우리에게 노트를 전해주고는 이미 어두워가는 거리로 총총히 사라져 갔다. 우리는 구내식당으로 발을 옮기면서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바가 거의 발꿈치까지 닿을 것 같았다.

그는 세계적인 권위를 조금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분이였다. 한없이 겸허하지만 그의 인간이 풍기는 교양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언제나 시간 전에 칠판에 제목들을 써 놓고는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벨이 날 때면 정확하게 강의를 끝냈다. 페이퍼를 쓰려고 하면 자세한 지도를 해 주었고 페이퍼 속의 어귀까지 일일이 수정해 주었다. 그리고는 긴 논평을 타이프로 쳐서 삽입하여 주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페이퍼와 논평을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그리고 찾던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크랙교수에게서 비로소 발견하였다고 생각한다.



고려·이조의 유명한 학자·정치가치고 귀양살이 안 한 이는 거의 없는가 싶다.

귀양이란 고려 때부터 있던 형벌의 한가지로 죄인을 먼 지방으로 쫓아 보내던 제도다.

귀양 간다면 귀양살이를 간다는 뜻인데, 도덕이나 의리에 벗어난 일을 하였을 때 알잡아 경고하기를 너 그런 짓 하면 귀양 간다고 일렀다.

귀양 살다 하면 어떤 지정한 곳으로 가서 귀양살이를 한다는 뜻이고, 귀양살이는 귀양 가서 부자유스럽게 지내는 생활을 가리키는데 궁벽한 산촌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지내는 답답한 생활을 이리기도 한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업신여겨 귀양다리라 일컬었다.

귀양살이에서 자유스러운 몸이 되는 것을 귀양 풀린다 하고, 귀양 살던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을 귀양 풀어 준다고 하였다.

귀양을 한자말로 정배(定配)·찬배(釡配), 귀양 보내는 것을 유배(流配)·유적(流謫)·유찬(流竄), 섬으로 귀양 보내는 것을 배도(配島), 귀양이 풀리는 것을 해배(解配), 귀양 보낸 곳을 적소(調所)라 한다.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 701~762)은 스스로를 인간 세상에 귀양 온 신선이라 하여 호를 적선(謫仙)이라 하였다.

순조(純祖) 때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제주도에 9년, 북청(함경북도)에 10년, 도합 19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했다.

추사와 같은 시대의 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천주교도의 대 탄압으로 전라도 강진(康津)에 유배되었다. 다산은 여기서 18년 동안 오로지 독서와 저술에 힘써 그 많은 저술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비록 외롭고 부자유스럽기는 했으나 오�히려 뜻 있는 시기가 아니었던가 한다.

바로 며칠 전에 다산의 사경첩(四景帖)이라는 친필 영인(影印=복사 인쇄)을 대하게 되었다. 글씨도 좋거니와 글이 또한 좋다. 글의 뜻인즉 이렇다.

다산(茶山) 사는 여러 유생(儒生)이 나를 서울로 찾아와 인사를 마친 뒤에 내가 문기를, “올에 동쪽 암자에 이영을 이었느냐?”

“못 이었습니다”

“홍도화와 무교(無橋 나무 이름)는 어떠하냐?”

“네 아름답게 잘 자랍니다.”

“우물 벽 쌓은 돌들은 무너지지나 않았느냐?”

“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못 속의 잉어 두 마리는 더 자랐느냐?”

“네, 길이가 두 자나 됩니다.”

“동사로(東寺路)가에 심은 선춘화도 무성하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 이른 차(茶) 탄 것은 별에 말렸느냐?”

“아직 다 못 말렸습니다.”

“차계(茶契)는 잘 운영이 되느냐? 돈이나 곡식을 누가 축내지나 않았느냐?”

“네 잘 되어 갑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더라도 그를 대함에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다시 다산에 갈 수 없으니 또한 죽은 자와 같다. 만일 내가 다시 가더라도 모름지기 나를 보기에 부끄러운 빛이 없도록 힘이 옳으니라……

내용인즉 강진 귀양살이에서 풀려 서울 집에 돌아온지 얼마 만에 찾아온 그곳 유생과 문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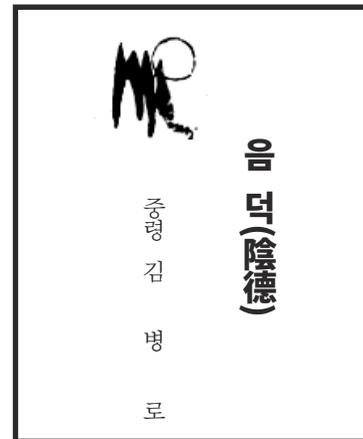
정 약용은 귀양살이하는 동안 그곳 사람으로 하여금 산에 차(茶)를 심게 하

고, 그곳을 다산(茶山)이라 함과 아울러 또한 호를 다산이라 한 것이다.

다산의 자상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거니와, 그보다도 독서와 저술에만 열매이지 않고 주민의 이용후생에 힘썼으니 이론과 실천을 겸한 실학(實學)의 대가다운 변모를 여실히 보여 준 산 증거라 하겠다.

끝에 옛사람의 말이라 하여 찾아온 유생에게 내린 교훈은 우리에게 크나큰 감명을 주는 일대 문장이라 하겠다.

작품에 필요한 자료를 뽑기 위해



난생처음 관상(觀相)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내용이 적 흥미로웠다. 특히 상법(相法) 자체보다 개운법(開運法), 그러니까 나쁜 상으로 인해 맞닥뜨리게 될 액운을 여하히 물리칠 수 있는냐 하는 방법을 논한 대목이 흥미 있었다.

개운법은 아주 단조로웠다. 밝혀 말해서 한가지뿐이었는데, 그렇기때문에 처음 그걸 읽고 난 실망했었다. 딴 책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인데 여기에 수록했다고 저자가 서두에서부터 자랑하던 개운법이 겨우 이거나 했었다.

종류뿐 아니라 개운법의 내용이 엉뚱한 데에도 난 실망했다.

저자가 내세운 유일한 개운법이 식사(食事)의 조절이었는데, 사람의 운명과 식사 사이에 전국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유일무이한 개운의 방법이 되겠는가 하였다. 한데 시간을 두고 곰곰 생각하니 이 방법이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분(分)에 맞는 식사를 해라, 조식(粗食)을 해라, 량을 팔부 정도로 조절해라, 하루 세 때를 거르지 말라, 착실하게 먹어라, 감사하며 먹어라, 육식은 필요하나 많이 하지 말라, 채식을 힘쓰라, 편식하지 말라 등의 계율이라든가, 포식(飽食) 내지 과식은 아까운 음식물을 쓸데없는 인분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으며, 분에 넘는 미식(美食)은 시비(施肥)가 지나쳐서 곡식을 영양과다로 병들고 썩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육식이 지나치면 몸 마음이 무겁고 둔해지는데 반해 채식에 치중하면 몸 마음이 가볍고 머리가 고상해지며 몸이 건강해져서 일할 의욕이 용솨음친다는 등의 풀이가 흥미할 만하다고 느껴졌다. 특히 자기 분에 넘는 미식은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정, 이웃과 국가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하였는데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난 이 문제를 식사에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그 참뜻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식사할 때에 그 사람의 주변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식을 팔부 정도로, 하루 세 때, 착실히, 감사하며 먹는 사람의 생활이야 보나마나 건설할 것 아닌가. 몸이 건강하고 생각도 건전하고 가정도 원만한 것 아닌가. 몸이 건강하니까 일 잘할 것이고, 생각이 건전하니까 하는 일이 선할 것이고, 가정이 원만하니까 늘 마음이 즐거울 것 아닌가.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을 이웃이나 국가가 싫어할 터이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웃들은 부러워하고 좋아할 것이고, 국가는 모범 가정으로 감싸 줄 것이 분명하다.

이쯤 되면 벌써 개운은 된 것이다. 배겨낼 액운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개운 법이지…….

이런 추리를 하면서 난 그럴듯하다고 혼자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런데 그 저자는 또 하나의 귀중한 개운 법을 거기에 더하여 제시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개운법이라고 딱히 못 박진 않았지만 그건 최고의 개운 법이란 뜻으로 제기되어 있었다. 음덕(陰德)이란 말이었는데, 위에 제시한 개운 법으로도 개운이 안 될 경우엔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잘라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운법이란 하나의 방법 초월한 최후, 최선의 개운비법이란 뜻이었다.

음덕은 남모르게 남을 도움으로써 쌓아지는 덕이라 하였는데, 나는 이것으로써 모든 액운을 씻을 수 있단 저자의 의견에 공감이었다. 공감이 아니라 내가 미리부터 지니고 있던 생각에 그것이 맞아 들어갔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손(客) 대접하기를 즐겨 하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등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음덕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관상법과 성경의 다른 점은 전자가 음덕을 받아들여 액운을 해소해 줄 주체를 제 시 못하는데 반해 후자는 이것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뚜렷이 밝혔단 사실이다. 또 전자는 이 음덕으로 인해 그저 액운이 없어진다고 막연히 말했을 뿐인데 후자에서는 음덕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도리와 순서를 명명 백백히 제시해 놓았던 사실이다.

암튼 난 이 관상법을 읽고서, 종교의 유무를 막론하고, 인간의 양심이 지향하는 표적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표출은 하면서도 그 표적 자체를 주관하는 주재자(主宰者)를 못 찾고 있을 따름이라 생각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이 음덕을 우리의 실생활과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잘못이 아닌지 모르지만 음덕의 반대를 양덕(陽德)이라 할 적에 우리 주변엔 덕을 세우되 음덕 쪽보다 양덕 쪽을 취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적잖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양덕의 성격을 엄밀히 따져 보면 사실상의 덕이 아닌 것 같다. 까닭은 양덕을 한다는 것은 벌써 그 밑바닥에 여면 저의가 움직이고 있겠기 때문이다.

덕을 세움으로서 자기에게 와질 유형무형의 이득, 그러니까 인기랄지, 명예, PE 효과랄지, 출세 등의 반대급부를 염두에 두고 세운 덕이기 땀에 이진 엄밀히 따지면 덕이기보다 미끼 아니면 투자의 성질이 되는 것이다. 낚시꾼이 던지는 미끼가 덕이기보다 큰 이득 즉, 고기를 위한 기만된 선심임은 두말할 나위 없겠고, 백주에 큰소리치며 남을 돕는 사람치고 뒤에 올 자기의 더 큰 이득을 고려 않는 사람은 없을 줄 안다. 이진 투자이지 덕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덕은 존재할 수가 없고, 음덕 이꼴 덕이 되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음덕이란 말만 있고 양덕이란 말은 생겨나지조차 못했는지 모르겠다.

우린 덕, 그러니까 음덕을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야겠다. 이것이 자아가 살고, 가정이 서고, 국가 민족이 흥하는 길이란 걸 알고 은연중 남을 돕는 습관을 키워야겠다.

그럼 덕은 남을 돕는 자비만으로 형성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해져서 덕이 이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데에 가장 좋은 표본이 고 요(皐陶)의 구덕(九德)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그걸 설명해 두려 한다.

고요는 중국 순(舜)임금 때의 법상(法相)으로서 임금을 간(諫)할 때에 이 덕을 많이 내세웠었다. 이 구덕도 그런 계제에 나온 말인 것이다.

구덕의 맨 처음은 너그러운 마음씨와 동시에 엄격한 마음도 지녀야 한다는 것(寬而栗)이고, 다음은 온화한 마음씨와 동시에 스스로를 확립하는 주관을 가지라는 것(柔而立), 세번째는 정직함과 동시에 공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愿而恭), 넷째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하며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마음씨를 가질 것(亂而敬), 다섯째는 웅고집스럽지 않은 동시에 바른 일은 끝까지 지키는 굳셈을 지녀야 한다는 것(擾而毅), 여섯째로 강직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질 것(直而溫), 일곱째는 일 처리를 간결히 하고 늘 청렴할 것(簡而廉), 여덟째는 흔들리지 않는 깨끗함과 실제적인 독실함을 지닐 것(剛而寒), 끝으로 백절불굴하는 투지와 정의를 위해 굽히지 않는 정신을 가질 것(疆而義) 등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린 아무쪼록 자신의 덕을 갖추고 나아가서 남에게 음덕을 세우는데 관심갖고 노력해야겠다. 아울러 식사의 조절법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겠다. 관상법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건 관상법 이전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국기 하강식—

후보생 시절에 구대장님 말씀이 <국가와 국기와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 하루 중 가장 엄숙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군문에 든 지 3년여. 이제껏 매일처럼 맞고 보낸 국기 하강식 때마다 나 자신 얼마나 <국가와 국기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여 왔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 ○ ○
국기는 곧 국가를 상징하므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기를 통하여 애

국심을 고취시키고 있고 국가에 대한 분명한 연대의식—애국심—은 국기에 대한 존엄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각급 기관, 특히 학교 같은 데서는 비 오는 날 이외에는 언제나 성조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학교 때부터 「미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암송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모든 국민이 기립하여 모자를 벗는 것이 일상 생활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잘 듣고 있다.

한때,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운명 때문에 자기나라 안에서도 국기인 입장기를 게양할 수 없었다가 연합군 사령부의 특별 허가로 1949년 1월에야 마음 놓고 게양할 수 있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왜정 치하에서 3·1운동이나 6·10만세 사건 같은 독립 운동을 전개할 때 태극기를 앞세웠으며, 또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국기인 태극기를 간직하고 물려주는 것이 애국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 왔음은 국기란 한 국가의 국운과 더불어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로 <세계 속의 한국>이란 뚜렷한 이미지를 심고 선진제국에 발맞추어 이제 명실공히 공업 중진국이 되었고 용약 발전하는 건강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경일이나

행사 때에는 물론 군인 된 우리로서 매일 국기를 떳떳하게 게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행한 일인가.

자유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 있던 일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시중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국기에 대한 외경심을 불러일으켜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 집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가정적으로 기쁜 날, 심지어는 멀리 떠나갔던 아들이 귀가했을 때 흔히 국기를 게양한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면 국기가 함부로 취급되어 존엄성이 결여될 것도 같지만 마음 바닥(심궁)에서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친밀감은 차라리 부럽다고나 할까.



지난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오련 선수는 수영 부문에서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조 선수는 물론, 이를 지켜보던 우리 선수단 임원들과 교포들이 애국가를 개창하며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부모 슬하를 떠나 객지에서 고생을 해봐야 부모님의 은공을 뺏속 깊이 느낄 수 있듯이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외지에서 애국가를 듣고 부르게 되거나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조국을 향한 향수(?) 때문에 새로운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한다.



민족의 영광과 고난의 역정이 접철된 태극기—
국방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군인으로서의 우리는 부대 출근과 동시에 태극기를 대하고 일과가 끝날 때 매일처럼 국기배례를 하는 셈이지만 과연 <국가와 국기와 자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얼마나 진실되게 생각해 왔는지 학번쯤은 조용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부산에 있는 모 민간업체를 방문하였는데 계양대 주변은 청결하게 잘 손질되어 있었지만 사기와 나란히 게양된 국기를 보니 때가 배어 보기 흉할 뿐더러 국기 가장자리가 떨어져 있어 몹시 우울한 심경이 되었던 적이 있다.

우리들 주변에서 가끔 애국이니 애족이니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진실로 애국 애족의 척도를 어떻게 저울질할까. 우리 군부대에서는 물론 개인 회사나 학교 같은 데서도 사기 나 교기를 앞세우 있는데 우리 모두 사기나

교기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국기인 태극기를 대하는 숭엄한 마음이 참으로 애국 애족하는 자세가 아닐까.



국가와 국기의 나.
내 나라가 없었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나대로의 제삼철학(?)을 궁구하면서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분명히 다짐한다.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 동안에 참으로 애국할 줄 아는 군인이요, 한 소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다.
국기배례—군인인 나. 국가로부터의 소명 의식을 절감한다.

<위인 일화>

김유신 장군이 아직 청년시대의 일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곧 반성하고 고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 때 그는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빠져서 밤이면 천관을 찾아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훈계로 잘못을 깨닫고는 두 번 다시 천관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김유신은 화랑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 위에서 졸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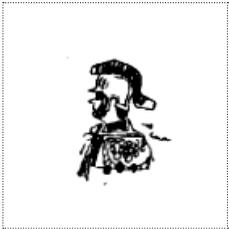
말은 천관의 집에 가는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밤마다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다. 천관의 집에 거의 다 갔을 무렵에 김유신은 말이 천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짐승이기로서니 내가 금하고 있는 길을 모른다니, 이래서야 장차 삼국을 통일하려는 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고 허리에 찌던 칼을 뽑아 사랑했던 말의 목을 벤 뒤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특)(집) I

비 군인적인 유해독소를 해부한다

해방감과 탈선의식



유 경 환
(조선일보 사회부차장)

(1)

「쾌지나 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적이 내려다 볼 수 있는 철원평야 한 수색중대 본부에서 대여섯 가지 간단한 기악에 맞춰 병사들끼리 둥글게 둥글게 돌며 춤을 추었다. 그것이 야전춤이었다.

스스로 흥겨워 추는 것이 아니고 방문객에 보여주기 위해 추는 춤이었기에 십여 년 전 내 병사시절이 생각나 가슴이 메였지만, 군 당국이 병사의 여흥에까지 지휘관심을 쏟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고 돌아왔다.

젊음을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을 받는 병사생활에서 이런 여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특집 I . 비 군인적인 유해독소를 해부한다.>

만일 스스로 흥겨워 이런 쾌지나 춤을 춘다면 젊음이라는 팽팽한 타이어의 공기를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빼내는 작용으로써 훌륭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전방에서 돌아오며 생각한 나대로의 생각이었다.

긴장과 규율과 그리고 제약받는 생활에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든 보상 보완되는 반작용을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긴장과 규율생활과 젊음에 대한 제약 등의 지속은 인간인 이상 언제나 한계점을 불러들이게 마련이라는 심리학자의 말이 뒷받침하듯이, 하나의 물리적 공식처럼 나타나는 시기인 때문이다. 정신적인 문제이지만, 그러나 전지가 아닌 이상 그것이 물리적 공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준전시 체제하에서의 18년이 우선 그 요건으로 분석될 수 있다.

신문사 데스크석에서 휴지로 처리되는 많은 기사가 있다. 그 일부가 지면에 실려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구, 진주, 춘천, 서울 등에서 일어난 육군의 총기인질사건이라든가, 공군의 경우 대전의 집단총돌 사건, 또 고성에서의 집단행동이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사건에는 그 원인이 작용했고 원인엔 사회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군의 탈선행위로 활자화된다. 사회일반은 원인을 제쳐놓고 군기문제로 보게 되고 여론은 결코 군을 동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쉽다.

(2)

이런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공통적으로 얻는(신문기자로서) 결론은 이런 것이다.

「기대감에 대한 수직적인 실망이 불균기의 요인이 된다.」는 하나의 가정이다. 즉 가장 즐거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되었다고 병사의 마음속에 속단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 실망을 주고 그 실망은 저항의식으로 급진전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저항의 대상이 뚜렷치 못할 때 그것은 대상 없는 반항이 되고 그 반항은 사회적인 탈선으로 나타난다.

양구 다방에서의 총기 인질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가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반항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기사 속에 넣었다. 이 한마디는 사회면 기사에서 가십난에 인용되고 사설로도 취급되고, 좌담회 화제로, 텔레비전에서의 대화주제로 확산되어 퍼져 나갔다. 이유는 어쨌든 개인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발전되는 것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작용이다.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뚜렷한

표적의 「적」이 준전시체제의 18년이란 기간 동안에 개념화하기 시작했다. 군 인생의 의무복무 기간 3년은 현실사회와 현저한 격차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입대 전에 몸에 밴 생활의식과 입대 후의 3년간의 굽인 의식과의 조화와 갈등은 젊은이에게 젊음에 대한 고민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병사들이 이 조화와 갈등 사이에서 자기 철학을 소박하게 지니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만, 극소수의 병사가 그 해결을 포기할 때 자기 기대에 대한 실망이 수직적으로 떨어져 안겨지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불균기의 요인이 되고 만다.

또 대부분 제대를 얼마 앞둔 병사들이 이른바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 수가 많다. 현실사회에 대한 체념이 어떤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나 이겨온 자기 철학이 무너지게 될 때 순간적인 탈선행위는 폭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신문기자는 보아 왔다.

휴가를 나온 병사나 술을 마신 장병이 영내생활에서 자기대로 지냈던 소박한 자기 철학이 거부당하거나, 그나마 최대의 궁지로 생각하던 군복에 모욕이 주어졌다고 판단될 때 「집단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다. 실지로 집단충돌의 원인은 「군복에 대한 궁지」가 모욕되었을 때였다.

다른 말로 하면, 동료가 부당한 모욕을 받았을 때 그 보복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충실이 부당하게 평가되었을 때도 있었다.

(3)

술과 휴가와 제대를 앞둔 초조감이 언제나 비군인적 유해 독소와 결부되었다는 것이 신문기자대로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병사생활에서의 일시적인 해방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해방감에 필요 없는 용기(?)까지 없혀 주기 때문이다.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해방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결코 영내생활이 해방감을 억제시키는 일본 군대식의 그것도 아닌데도, 술과 휴가와 제대를 앞둔 초조감이 해방감을 갖게 하는 것은, 단지 저수지의 물이 수문이 열렸을 때 쏟아져 나오는 현상과 같은 심리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이견(잘 몰라도) 나의 의무복무 기간 군인생활에서 가진 체험으로도 뒷받침된다. 사고원인 분석에서 병사가 갖는 어떤 기대감에 실망은 서서히 옆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닦쳐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해방감이 긴장이 해이되고 규율 밖에서의 자유로움, 그리고 제약 없는 활동무대에서 병사는 새삼스럽게 잃었다고 착각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되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심리를 만드는 것이다.

나와 보니 집안 살림이 형편없다, 애인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사귀고 있다, 어머니가 너무 비참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등의 생각이 자기 앞의 전부인 것으로 확대되어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원인을 자기의 군복무생활 즉 제약생활에다 결부시키게 되고 이를 깨쳐 버리려고 달려들게 자기 심리를 몰아가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군의 정훈교육으로 사전에 대비를 시키지 않는 지휘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다. 군의 정훈교육으로 충분한 예비상황을 설정, 교육시키는 것만이 가능하고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라고 현재의 우리 군의 실태와 조건하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뜻하게 사전에 어떤 가능성을 교육시켰을 때 기대감에 작용하는 실망은 설사 온다하더라도 수직적으로, 벽에 부딪힌 듯이 오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휴전 직후, 또는 전시에 전방에서 돌아온 병사가 「탈선행위」라고 일률적으로 말하는 비사회적, 비군인적 행동을 한 사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또 사실 그런 탈선행위는 요즈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4)

다양한 개체가 모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군은 어떤 하나의 개체가 전체를 흐려 놓을 수 있는 잠재성을 늘 안고 있다. 이 다양한 개체를 중요시해야 할 책임은 우선 정훈교육에 있는 것이다.

타이어가 터지는 것은 공기가 포화상태를 이룬 팽팽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 그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폭발점이 된다. 이견 누구나 중학물리에서 배운 이론이다.

마찬가지로 군이라는 전체조직을 이루는 수많은 개체 가운데 가장 정신적으로 약한 의지의 개체가 ①외 부작용을 받았을 때 나 ②포화상태의 한계점이 넘었을 때 사고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포화상태의 한계가 넘는다는 내부 작용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고 또 잘 모른다. 다만 외부작용은 기자의 눈으로 말할 수 있다.

요즈음 일어나는 군의 사건은 대부분 외부작용에 의한 것인 것 같다. 그러나 외부작용이 도전하는 것은 드물고 다만 외부작용 앞에 나서게 될 때 마찰점이 생기는 것 같다.

군의 병영이나 주둔지, 또는 전방이 현실사회와 아주 절연된 해외전선이나 섬이거나 또는 먼 거리의 전선이라면 모르되, 우리의 실정에서는 거의 현실사회와 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차원 다른 사회가 하나의

<특집 I . 비 군인적인 유해독소를 해부한다.>

보다 큰 사회 속에 공존하는 실태이므로 외부작용과의 마찰은 항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외부작용으로 나타날 현실사회의 비군인적 유해독소는 무엇인가?

한때는 사람과 군인이 구별되어 지칭되던 때도 있었다. 물론 속된 표현으로 일반사회인과 군인을 구별해 말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린이나 부녀자들까지도 별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남자면 거의 전부가 군엘 다녀온 예 비역들이거나 학생군사교련을 받는 적령학생층이다(물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가 군을 그전처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냉대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군에 안 가는 것이 약은 사람으로 통하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비군인적 유해독소가 현실사회 일반에 만연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치성, 소비성향, 부정부패 등 사회풍조와 불신사조가 있으나 이것이 일부 군인의 탈선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원천적인 원인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이 근본적 문제점과 직접적인 원인 작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원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전체를 놓고 보면, 비군인적 유해독소란 사회 문제로 안고 군에 들어가는 다양한 개체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현실사회를 군의 병영생활 안까지 연장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처지의 개체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상 현실 사회를 획일적인 사회체제로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획일적인 사회체제로 군과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회는 군국주의에서만 이상적인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문제를 항시 내포하고 있어도 사회문제 전반이 그런대로 조화, 해결돼 나가는 민주사회를 구가하고 있는 한, 사회가 제도적으로 비군인적 유해독소를 군을 위해 먼저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결론은 뻔하다. 국민개병주의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중, 군이 병사를 포용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체득하고 있는 군이 공수대와 해병이다. 군 문제는 끝까지 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신문기자에게까지 인식되어 있을 정도이다.

발전도상의 사회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순과 부닥칠 때 그것을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도 군 스스로 처리하는 기술

<특집 I . 비 군인적인 유해독소를 해부한다.>

은 그것이 정훈교육이든 지휘관의 책임역량이든 간에 군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고 병사의 통계가 탈영병일 때 그 탈영병 전과의 책임도 우선 군에 귀착되는 것이 당연하다.

공군은 신사의 군대라고들 말한다. 신사의 군대라면 공군 병사의 그 개체 인격도 모두 신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개체가 전체를 이루는 군 조직에선 전체가 신사의식을 갖도록 공군이 노력해야 한다. 대전, 고성(사천) 지역에서의 집단 충돌사건도, 사회가 그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대신 스스로의 자제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겠다.

일본의 김희로(金喜老)총기 인질사건의 신문 보도 이후, 우리나라에 병사의 총기 인질사건이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분석되어, 요즘은 신문도 유괴범사건을 다루지 않듯이, 군의 총기 인질사건은 가능한 크게 보도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사회문제일 때는 그 내포한 문제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도 안 할 수가 없다. 만일 신문의 과장된 보도가 불군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신문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신문제작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문제이다. 결코 군이 안고 있는 개체들의 탈선의식이 신문기사에서 자극되어 고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군은 앞서도 말했듯이 개체의 판단기준과 가치의식을 더 높이도록 정훈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켜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사회범죄의 구성 원인에 여자가 관련된 것이 그 통계상 압도적인 비율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여자를 배제시킬 수는 없다. 또 여자만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의 탈선행위로 이런 각도에서 봐야만 한다.

<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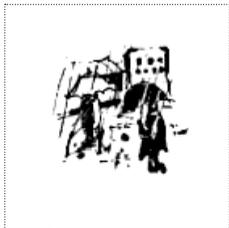
◇ 거짓말로서 몸을 지킬 수는 없다. 도금이 벗겨지듯 언젠가는 거짓말로 때운 자국이 드러나고 만다.

진실도 때로는 우리를 다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머지않아 치료받을 수 있는 상처이다. <지 드>

◇ 누구나 사람에게는 과실이 없지 않다. 잘못을 고쳐나가면 먼저의 잘못도 자취를 감추는 것이지만 고치지 않은 잘못은 영영 잘못으로 뿌리를 박고 만다 <논 어>

적당주의와 단체 속의 책임회피

소 령 박 용 훈



오늘날 지구상에는 2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만도 3천만의 겨레가 모여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 이 3천만 속에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으며 무수한 나가 모여 가족,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가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품없는 나무 하나하나와 무성한 잡초 념쿨이 모여 아름다운 동산과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듯이 종종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스페인의 어느 적은 마을의 마구간 주인이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 보고 이런 보잘것 없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초라한 직업에 매달려 매일 일을 해도 아내와 자녀들의 생활비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이 일을 계속하며 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때마침 그 앞 한길에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창밖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앞발을 높이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 말에 탄 사람은 고삐를 잡고 교묘하게 말을 진정시켜 다행히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만일에 내가 말안장과 고삐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아 말을 탄 사람이 말의 고삐를 잡고 진정시킬 때 고삐가 끊어졌다면 필경 그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거나 심지어 죽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 아직까지 자기가 불평하던 보잘 것 없는 마구간 일이 한 사람의 부상을 막고 나아가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중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아 다음부터는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였다는 글을 본 일이 있다.

우리는 이 얘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즉 자기의 하는 일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까지의 마구간 주인과 같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혐오하면서 되는대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나야 무슨 존재가치가 있나?' 또는 '나는 이등병에 불과한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무슨 결과가 있겠나?' 하는 심정에서 요령과 눈치만 살피면서 마지못하여 되는대로 매일 매일을 허송세월 하면서 불평과 나태로 일관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듯 우리는 적개는 가족, 사회, 집단 그리고 국가라는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슬픔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운명 지워지고 있는 것이며, 인간의 역사란 이와 같은 무수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들의 행동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단일한 이름 없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인간이 역사를 장식하였다고 하면 믿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러한 개개인이 자기의 생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 때 인간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치를 마치 발바닥의 티끌 하나보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을 적당히 처리함으로써 이웃을 괴롭히고 자기 속한 집단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18세기의 유명한 정치철학자 몽테스큐의 말에 『내가 만일에 내 자신에게는 유익하나 내 가족에게 해가 되는 그 무엇을 알았을 때에는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어 버렸다. 만일에 내가 내 가족에게는 유익할지라도 내 나라에 손해가 되는 그 무엇을 알았을 때에는 나는 즉시 그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만일에 내 나라에는 유익할지라도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그 무엇을 알았을 때에는 나는 그것을 범죄로서 간주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과연 책임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해득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자기의 책임이 부모형제 이웃,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책임이란 그 무엇보다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은 국민의 삼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복을 입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자기라는 존재가치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한 젊은이들 가운데 군복을 입고 병역을 필하는 3년 내지 4년이라는 기간을 그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과는 연관이 없는 단순히 거쳐 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시간을 때꾸어 나간 다음 제대 후에 갖게 되는 영구한 직업에 열성을 다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군대생활에 임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않은지 나 자신을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심리학의 학술 이론 중 조건반사라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개에게 먹이(고기)를 줄 때 종을 울리는 동작을 여러 번 거듭하면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된다는 간단한 실험결과에서 얻어진 이론이다. 이 조건반사 이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행위도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새로운 습관이나 제2의 천성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으로 효과적인 자극과 반응을 통하여 인간을 더욱 교화되고 유능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극과 반응이 잘못되면 심히 위험한 존재가 되어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심리학 및 교육학의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애를 통하여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20대의 청년시기를 군복을 입고 3년 내지 4년이라는 황금시기를 군에서 복무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생활습관과 사물의 가치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군대생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규칙적인 엄정한 규정생활과 스스로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통하여 스스로를 단련하고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신념을 길러주는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장이며, 동시에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군에서 요구하는 규율에 자신을 동화시키고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나가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 제대 후에 사회에 진출하여 무슨 일에 종사하든 그 분야에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근시안적이고 부정적인 자세와 순간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휘말린 연약한 마음가짐 때문에 요령과 회피 그리고 불평 가운데 군대생활을 영위하노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습관과 사고방식이 몸에 붙어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결국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회피로 사회에서 냉대 받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실례는 내 자신 십여 년의 군대생활을 통하여 직접간접으로 주위의 상관, 동료, 그리고 부하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보고 들은 결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우리가 군대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명분에 앞서 자신의 가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이를 성실하게 자기의 온갖 노력을 다하여 이행한다면 이것이 곧 자신을 위하고 나아가 이웃과 겨레를 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조건을 들어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 내가 겪는 불행과 고통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겪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흔히 자아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온 세계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듯 착각을 일으켜 자기라는 테두리에 쳐박혀 근시안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다. 내가 하기 힘든 일은 남도 하기 싫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남도 고통스러우며 내가 좋은 것은 남도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나만이 편하고 나만이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가기 위하여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공통된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드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예외적인 존재라는 그릇된 판단을 버리고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통에 스스로 뛰어들어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에 임하여야 한다.

둘째, 자기 직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자기가 맡은 직책이 크거나 작거나 또는 무겁거나 가볍거나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불평 대신 응당 받아들일 것으로 수락하여 연구와 정성을 들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어떤 의의를 찾는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등산가가 더운 여름날 험하고 힘든 비탈길을 오르는 것은 정상을 정복하여 희열을 맛보는 것 이외에 등산을 통하여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는데 의의가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의와 목적이 결과에 있기보다 과정에 있는 것이다. 노력의 대가 없이 결과만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의 꿈이요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에 의하여 인류 역사는 점철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진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활동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쇠는 그대로 놔두면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나 두드리고 갈면 강해지듯 우리 인간의 신체구조도 움직이고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마비되고 만다.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니 흙과 바위를 뚫어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 듯 우리의 두뇌와 신체 기능도 쓰고 움직이는 가운데 습관을 만들고 습관에 의하여 발달하고 강해지는 것이다. 무슨 일이고 계획과 꿈은 크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여 공염불만 외운 결과가 무엇이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바쁜 끝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리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도 몸과 마음을 피땀 흘려 움직이는 가운데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인생의 환희와 보람을 찾게 된다. 오늘날 자유진영의 기수인 미국의 부와 국력은 초창기에 신천지를 찾아온 청교도의 피땀 어린 개척정신이 그 기틀이 되었으며, 수백 년간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룩된 로마는 멸망기의 사치와 방탕에 의하여 결국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였다. 오늘을 편안히 살기 위하여 안일과 무사를 찾는 것은 내일을 버리는 것이며 입에 쓴 약이 몸을 보호하듯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은 내일의 영광을 약속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는 말은바 직책을 성실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데서만 생의 의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7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국토방위는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자주국방의 터전을 이룩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군인에게 주어진 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한 시기이다. 나 하나가 적당히 한들 무슨 영향이 있으랴, 또는 나 하나만 편안하고 잘 살면 됐지 남이야 생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어리석은 안일과 퇴폐의 마음자세는 나를 좀 먹고 군대를 약화시키며 조국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재삼 명심하여 우리 장병 각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나 자신의 발전과 우리를 위하고 모처럼 이룩된 조국의 번영에 앞장선 기수가 되자.

☆ ☆ ☆ ☆

이기주의적 생활방식의 폐단



황 금 찬
<시 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주의적 방식에 의하여 생활하고 마련한 사람들은 이기주의적 방식에 의하여 살아간다. 개인주의는 한 개체의 생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부지되는 국가며 사회에 대하여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고향이 평화롭고 나아가서 내 국가가 평화로워야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까닭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잘살고 편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내 가정과 고향과 내 나라에 어떤 변고가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내게도 불행이 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 불행을 막고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그 변고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 행동은 결코 이기주의적 소산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소산인 것이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사회나 국가야 어찌되었던 나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심하면 내 가족이라도 내 이익을 위하여서 몰라야 하는 때가 허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정부패분자들도 그 모두가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던 간에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는 주의,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인 것이다.

내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되던 나의 조국이야 어디로 가던 간에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주의는 모름지기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다. 더욱 요즘은 이 이기주의적 병폐가 계속 만연되어 가고 있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근심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가령 콩나물예다 인체에 해가 되는 농약을 주어 기르고 빛이 나라고 수은을 칠해 팔고 있다고 어느 병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거나, 두부에는 인체에 해로운 석회질을 섞어 만든다고 했으며, 커피에는 썩은 콩나물과 톱밥을 가지고 가짜 커피를 만들어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다방에 팔았다고 했다.

어찌 그것뿐이라 말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작은 그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피라미드 외에 얼마나 많은 거물 부패분자들이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이들이 모두 이기주의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이 극심하게 되면 사회나 단체나 국가는 저들에게서 버림받고 말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 이런 기풍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뿌리가 말라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런 불건전한 사조가 꼬리를 물고 강물이 흐르듯 계속하는 것인가. 그것은 따지고 보면 쾌락주의나 향락주의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기 마련인 것이다.

더구나 국가의 간성이 되는 군인들 중에 이러한 통폐의 이기주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실로 그 국가의 운명은 바람 앞에 깜박이는 등불과도 같아지는 것이다.

저 역사에 가장 빛나는 거인들로 남은 사람들은 이기주의적 소행에서가 아니라 단결과 의무를 위하여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초개같이 바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서의 이름들이었다. 고구려의 누 유며 고려의 강감찬, 황산 평야에서 싸우던 계백 장군이며 신라의 소년 관창 임진난 때 금산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중봉 조헌선생 그리고 승병대장에 영규, 이렇게 열거하려면 한이 없겠으니 그만두려니와 모름지기 이들은 자기를 버리고 조국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조국을 구출한 사람들이었으며 구출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아랍을 상대로 싸울 때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당시 이스라엘 학생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은 모두 열두 명이었는데 대 아랍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학생들은 이튿날 모두 학교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랍 학생들은 그대로 남아서 껌이나 씹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것을 본 하버드대학 교수는 이번 전쟁은 묻지 않아도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의 진의는 우리가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청년들이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국가를 돌아보지 않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사리사욕을 헨 칼 쓰듯 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외적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적을 그 안에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선도문제가 많이들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기풍이 이루 말이 안 될 정도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이 일종의 방종 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들 하고 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과 상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자라면 언젠가는 우리국가의 간성이 되기도 하고 또 지도자적 위치에 놓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방종에 가까우리만치 몸에 배고 있는 그 이기적인 생활태도를 급작히 바꿀 수가 있을런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지금의 기성세대가 근심하는 것처럼 오늘의 청소년들의 생활과 윤리가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라의 간성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불건전한 단체 생활이 계속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의 청소년들이 가장 건전한 사고와 불건전한 이기주의적인 경향을 떠나 생활할 수 있게 길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의 생활에 암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하여 따지고 보면 해방 후 우리들이 섭취해야 할 문화권이 한없이 넓어졌고 그로 인해 비판도 없이 문화의 와중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청년 일부층에게 방종과 분에 넘은 치사와 무질서한 생활과 사고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아 해보면 그들이 가장 즐기는 것이 어렸을 때에는 만화 같은 것이요, 좀 자라면서 한국의 경음악이나 아니면 팝송 같은 것을 가장 즐겨듣고 영화를 봐도 총을 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들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것을 듣고 보는 것이 결코 그들의 생활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어갈 수 없는 요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해방 후 지각없는 사람들이 그려내는 만화의 물결을 보고 나는 하도 기가 막 혀 정부가 수립된 후 나는 서면으로 문교부에 그 백해무익의 만화의 물결을 막아줄 수 없느냐고 문의한 일이 있거니와 그 결과가 오늘의 청년들에게 어 떤 영향을 주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몇 년 전 007 위기일발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그 관중의 수가 무려 사십오만이었던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관중 층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면 기를 쓰고 보는 그런 태 도는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것이며 또한 우연히 없어질 수도 없는 것 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과 올바른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사람은 본래 좋아하는 것을 타고 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좋아할 수 있는 요 소만 가지고 나는 것이다.

가치야 어떻든간에 많이 접하고 친해지면 좋기 마련인 것이다. 옛날과 달라 우리 주위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방송망과 신문잡지가 수시로 그 사치는 막론 하고 우리들의 눈과 귀로 소리와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아름답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의 예 만 보더라도 많은 방송이 유행가를 보내고 있다.

그것뿐이다. 그것 외에 있다면 값싼 희극 따위들이다. 그것은 지성인들로는 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만 보고 듣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올바른 생 활태도와 윤리를 배울 것인지 생각하면 한심하기만 하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음악은 가려진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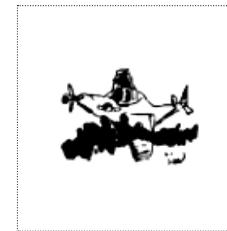
또한 영화도 관객 위주는 수입하지 말고 영화의 질 위주로 수입해야 할 것이 다. 이런 철저한 관심 위에서 청소년 교육에 힘을 기울인다면 틀림없이 건전 한 일꾼들이 이 나라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유학생의 말을 빌리면, 지금 서독같이 패륜아와 풍기에 저촉되는 청소년들이 적은 나라도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 그 나라는 우선 음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생각해 볼 일일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과 좋은 글 그리고 훌륭한 그림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정서 를 길러야 한다. 그래야 내일이 있을 것이요, 이기주의적 생활태도에서 파생 된 부패와 부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열등의식이 가져오는 병영이탈

이 창 록
<전우신문 논설위원>



(1) P훈병의 경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훈병(訓兵) 얘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열등의식이 병영생활에서 심리적(心理的)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암 시하는 한 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논산훈련소에서 생긴 일이다.

P훈병(訓兵)은 화전민(火田民) 출신이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산길로 이십리는 실히 걸어야만 하는 두메산골에서 성 년이 되어 훈련소에 입소했다. 징집되어 훈련소까지는 처음 보는 세계가 아닐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다.

자동차도 기차도 처음 타보는 것이었다. 식사는 조상제사 때에도 먹어 보지 못한 이밥이었다. 지급품은 설날에도 만져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아무리 고 된 훈련이나 작업 출동도 두메산골에서보다는 훨씬 손쉬운 육체노동이었다.

총검술, 구보, 장애물 돌파 등 재미있으면 있었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더위도 추위도 문제되지 않았다.

어느덧, 그는 꿈이라는 애칭(愛稱)을 선사받을 만큼, 소속연대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용기와 육체조건이 따르는 모든 연대대항에 대표선수로 출장하게 되 었다. 그중에서도 씨름대회 때엔 상 씨름꾼으로 당당한 위풍을 자랑하게 되었 다. 모든 일에 피로를 모르는 모범훈병

으로 출선했다. 성질도 온순했다. 조교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도 서슴지 않을 만큼 순종했다. 불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겐 남모르는 번민이 있었다.

낮 놓고도 기억조차 모르는 문맹자(文盲者)였다. 글뿐 아니라, 문화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캄캄 절벽이었다.

정훈교육을 비롯하여 일체의 교양시간이 크게 고통스러웠다. 뛰고 포복하고 파고 운반할 때엔 언제나 앞장서면서도 앞전히 앉아서 귀를 기울일 때면 막심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처음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두메산골이 세계의 전부였던 탓으로 하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었으나 차츰 모범훈병으로 알려지게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무학무식(無學無識)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되었다.

지식이 인간사회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을수록, P훈병은 자신의 무학이 슬퍼지고 저주스러웠다.

입소 당초엔 전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으나, 무식이 부끄러워지면 서부터는 솔직할 수가 없게 되었다. 무식한 것을 얼버무리는 버릇이 생겨갔다. P훈병은 이때부터 심한 낙후감(落後感)과 소외감(疎外感)을 품기 시작했다. 전우들이 자신의 무식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곱이라고 부르는 것도 귀에 거슬리게 되었다. 곱같이 미련한 놈이라고 놀려대는 것만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메산골에서 성장한 숙명이 저주스럽고, 초등학교마저 보내주지 않은 부모가 원망스러워졌다.

P훈병은 차츰 전우들에게서 동떨어진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훈련과 작업출동에도 처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난폭성을 폭발시켜 훈병 두 명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군가 교육시간이었다. 새로운 군가의 첫 시간이었다. 등사한 16절지의 가사와 악보가 훈병 각자에게 배부되었다. 교관은 우선 가사를 익히기 위해 몇몇 훈병에게 가사를 읽히고 나서 후렴 대목에서 P훈병을 지명했다. P훈병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수그렸다. 귀밀이 뜨겁고 관자놀이가 쿵쿵거렸다. 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읽을 줄 모릅시다 하고 넘길 것이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가사마저 읽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외로웠다. 가슴을 후비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몸을 가늘게 떨기까지 했다.

그 귓전에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죽인 웃음이었다. P훈병은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도 모르게 무쇠 같은 주먹을 휘둘렀다.

내무반에서 좌우로 배개를 가지런히 하는 절친한 전우였다. 악의 없는 웃음을 비웃음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발작적인 폭행을 뒤늦게 분석한 연대본부는 그때에야 P훈병의 눈물겨운 번민을 파악했던 것이다.

(2) 열등의식은 왜 병영이탈의 원인이 되는가?

앞에서 예로 든 P훈병의 경우는 문맹(文盲)으로 인한 열등의식이지만, 병영생활에서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여진다.

원래 열등의식의 심리학적인 정의는 신체 및 정신의 결함, 사회적 지위의 열세 등에 기인하는 특유한 감정적 태도이며 자기를 무력(무능)하다고 평가하는 감정으로 긴장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현실 도피적 행동이나 합리화(合理化) 또는 보상작용(補償作用)이 일어나기가 일쑤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행동이나 신경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리학자(心理學者) A.Adler(Austria, 1870~1937)의 설에 의하면, 열등감은 성장에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나 지나치게 강하면,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충동과 실패 및 파탄에 대한 공포의 정신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

P훈병은 남다른 체력조건과 인내력으로 전기면(戰技面)에 있어서는 모범적이면서도 자신의 성장과정과 문맹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모처럼의 특성마저도 부정하는 심한 갈등에 빠지고 만 것이다. 다행히도 더 큰 불행에 부딪히기 전에 따뜻한 선도(善導)를 받게 되었지만, 각 군 공이 지나친 열등의식 때문에 군복무를 불행하게 종말 짓는 예가 적지 않게 생기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열등의식이라고 해서 그 전부가 비극적인 동기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심리적으로 열등의식이 때로는 성장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개적(個的)인 소질이 문제되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결함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법이다. 베토벤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헬렌 켈러도 같은 경우가 된다. 자신이 숙명적으로 걸머지고 있는 신체불구를 창조와 조화의 의욕으로 극복하여 대성한 이 예를 보더라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보상작용(過補償作用)이 해로운 것만이 아님을 증명해 준다.

다만, 보상작용이 이지러진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거기에는 생활주변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현실도피적(現實逃避的)인 정신갈등이 생기게 된다. 자학적(自虐的)인 비판이 현실에 대한 반발 또는 부정(否定)으로 비약한다.

<특집 I . 비 군인적인 유해독소를 해부한다.>

군인의 경우 그것은 병영이탈을 비롯한 갖가지 군기위반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하극상(下克上) 또는 총기사건 등 극단적인 범죄행위로 확대되는 예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 병영에서의 열등의식은 왕왕 강박관념(強迫觀念)으로 변모한다. 일종의 피해망상(被害妄想)에 빠져, 병영 내의 모든 환경—군 특유의 조직체, 상하간의 엄격한 질서, 엄연한 군율(軍律) 등에 대한 반항과 외면으로 스스로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병영 내의 열등의식은 일반사회의 경우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체적인 결함에서 오는 열등의식보다도 입대전의 개인적인 성장과정, 학력, 가정적 조건, 교우관계, 사회경력 등이 열등의식의 여건이 되는 것이며, 입대 후의 계급 관계, 직위(職位)배정, 처우 내용, 감정문제 등이 입대전의 여건과 더불어 근본적인 동기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군체질(軍體質)의 특유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사회생활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자기 분수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군 병영생활은 앞서 예거한 모든 개적조건을 일단 백지로 환원하여 백이면 백 모든 인원을 똑같은 출발점에 올려놓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하는 것이니, 여기에서 개인격차(個人格差)가 두드러질 것은 뻔한 노릇이다. 그리고 뒤떨어진 병사는 항상 앞선 병사에 의해 끌려가기 마련이며, 욱바가지를 뒤집어쓰게 된다. 매일 똑같이 대하는 똑같은 얼굴 속에서 무능하다고 욱먹고 멸시당하고 할 때에 당사자는 우선 못난 자기 자신을 비감하고, 이 비감이 커져 자학적인 강박관념을 품게 되고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으며, 전우의 눈치를 살피는 비굴한 과정 끝에 병영전체에 대한 반발심으로 현실도피적인 돌파구를 찾기에 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나 깨나 똑같은 환경일 수밖에 없는 병영생활 속에서는 도피처,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을 감쌀만한 곳이 없으므로 병영 밖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3) 열등의식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열등의식에 빠지는 경우, 그 반응은 극단적인 의미에서 가지의 유형(類型)으로 구분하게 된다. 즉, 자기부정의 자포자기를 택하는 소극형과 반발적인 보살을 시도하는 적극형의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군대의 기준으로 볼 때,

<특집 I . 비 군인적인 유해독소를 해부한다.>

이 두 가지는 공히 위험하며 비 군인적인 저해요소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는 현실도피적인 자학으로 인해 병영이탈 등 군율위반(軍律違反)을 저지르게 되며, 후자는 자기충족을 위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왕왕 엄청난 영내사고를 저지르는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등의식은 당사자의 개적(個的)인 문제로만 간주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부대 전체의 공동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휘관을 비롯한 전우들이 따뜻하게 선도해 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열등의식은 주변에 대하여 피해망상적인 낙후감(落後感)으로 도피하려는 경향과 반발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선도책(善導策)은 우선 무엇보다도 따뜻한 이해심과 감싸주는 분위기가 필요해진다.

여기서 특히 지휘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는 열등의식 선도가 주요한 지휘책임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현대적인 명지휘는 열이면 열의 부하를 동일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데에 있다고 한다. 낙오병은 지휘의 결함이며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예로 든 P훈병의 경우, 용맹한 병사로서의 소질을 지니면서도 성장 과정에 대한 열등의식과 문맹으로 인한 낙후감 때문에 그 모처럼의 특성마저 망칠 뻔했는데 다행히도 조기 선도로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조교가 소대장에게 보고했고,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건의하여 연대장이 특별한 관심으로 한글교육을 정훈참모부에 의뢰했던 것이다. 정훈참모부에 의뢰했던 것이다. 정훈참모부는 다시 군종부와 협조하여 신앙심도 일깨워 주는 개인지도에 힘써 P훈병의 눈을 뜨게 해 주었던 것이다. P훈병은 현재, 중동부전선의 철책선을 진두에서 파수 보는 모범분대장으로 표창을 세 번이나 받은 바 있다. 군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인간을 다시 다듬는 인간재생창이라고도 한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열등의식의 요소마저도 말끔히 씻어주는 따뜻하고 관심 깊은 지휘책임이 간절하게 요망된다.

☆ ☆ ☆ ☆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송 경 섭
〈경향신문 외신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 70년을 전후해서 그 면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정책에 관한 미국의 태도를 집약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라는 기치아래 펼쳐진 일련의 정책과 중공과의 화해무드를 지적할 수 있다. 지난 수년 이래 미국은 중공에 관해 이제까지 위협과 봉쇄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던 것과는 달리 유연중 화해와 접근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상을 절제 풍겨주고 있다.

중공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완화태도의 배경은 중공과의 긴장계속이 결코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69년 3월 미국 상원의외교위원회에 닉슨은 이러한 사실을 피력하면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중공정책에 유동성을 둘 것임을 암시했었다. 중공을 하나의 실체로써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69년 유엔총회에서 닉슨 대통령은 중공이 고립적 태도를 포기한다면 중공대표와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비쳤다. 그리고 중공과의 무역과 여행문제에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도 아울러 밝혔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은 69년 2월 바르샤바에서 중공과의 대사급회담을 주선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중공의 냉담한 태도로 결실을 보지는 못했었다. 그 후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중공이 단순 과반수를 획득함으로써 미국의 중공정책은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탁구팀의 중공방문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예이다.

69년 광섬에서 발표한 닉슨 대통령의 이른바 괄 독트린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청사진을 밝힌바 있다. 괄 독트린의 구체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닉슨 독트린은 여태까지와는 달리 자국의 국방을 원칙적으로 자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 대표적 예로서 월남 전쟁에 관해 월남전을 결코 미국의 전쟁으로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월남을 지원할 따름이지 대신 싸워주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곧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입장은 월남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각국, 라오스나 태국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원조와 군사력 배양으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선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가 아닌 대내적인 불안에서 빚어진 사태에는 미국은 결코 개입치 않겠다는 뜻인 것이다.

즉 닉슨 대통령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은 실은 아시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책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기본정책은 월남에서 그 대표적인 적용사례를 볼 수 있다.

미국은 월남 전쟁을 떠맡다시피 했던 이제까지의 정책에서 일대전환을 단행, 월남전쟁의 월남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닉슨 취임 시 38만을 헤아리던 주월 미군의 숫자는 금년 말까지는 18만 4천으로 대폭 감축된다.

동남아제국의 국내정세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그 혼란만을 더욱 조장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대외정책에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미국은 현재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건설적인 경제적 원조로서 이 지역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하면 미국은 월남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월남, 나아가선 동남아시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경제지원문제에서도 볼 수 있다, 흔히 신고립주의라고 평가되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그러나 현재 세계정세 특히 동남아의 복잡한 세력균형, 예를 들면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는 상황 아래서는 닉슨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일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점이다.

미국이 동남아에서 철수하는 경우 이 지역의 힘의 진공을 무엇으로 메꾸어야 할 것인가가 닉슨 독트린이 당면한 첫 과제라고 하겠다. 미국이 철수한 후 이 지역의 주역은 일본이 맡아야 하며 그 후 강력한 발언권을 가짐으로써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가 멀지 않다는 것이 주일 본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하버드 대학교수인 라이샤워의 견해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남아에서 철수한 후에도 이 지역의 불안정은 여전할 것이라고 본다면 미국이 앞으로 이 지역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주목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어찌서 닉슨 독트린으로 대변되는 고립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적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요점만을 간추려 본다.

66년부터 가열화하기 시작한 월남 전쟁은 미국 국내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왔다 또한 반전파를 비롯한 일반국민의 갈등과 분란 속에서 닉슨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였다. 당사 선거전의 최대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월남전쟁의 종식을 가져오느냐는 것이었다. 닉슨이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민주당의 존슨 정부가 확대시켜 놓은 월남전쟁의 명예로운 종결이었다.

따라서 차기선거를 앞둔 닉슨에게는 월남전의 종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월남 전쟁 외에도 닉슨 대통령이 광섬에서 밝힌 정책을 구체화 기까지에는 다변화되는 세계의 역균형과 소위 제3세력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세계의 경찰역할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비판은 결국은 닉슨 독 트린 이라는 형식으로 대외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편의상 다음의 몇 개 부문으로 나누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아세아정책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본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 중공, 일본의 관계

아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세력균형과 안보는 미국과 중공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오키나와 반환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등이 또한 이 지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 중공, 일본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기 이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는 길 이 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중공관계의 악화가 극동지역의 중요한 안전보장세인 일본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적으로 일본을 중공과의 전쟁에 끌어넣을 것이라고 일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공이 아시아지역의 공산주의세력 확장을 노리더라도 이 지역의 민족주의 세력팽창으로 쉽게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국은 이 민족주의 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미국은 대외정책에 다각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이나 기타 동남아제국의 주체적 민족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이 지역안보를 유지하려는 것이 정책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최근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써 이를 뒷받침하여 미국이 간접적인 외곽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로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아시아국가의 국내적 변혁에 주동역할을 피해야 하며 또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밖에서 우호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은 나아가고 있다.

닉슨·독트린과 월남 전쟁

미국은 월남 전쟁에서 미국 군사전략의 한계와 군사적 해결책의 비생산성을 그 어느 곳에서도보다도 깊이 인식한 것 같다.

10만 이상의 인명 피해와 하루 평균 8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끝에 미국은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은 것 같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한나는 아시아지역, 특히 월남과 같은 곳의 정치적 불안에는 내란의 형태를 띤 비정규전이 대부분인 까닭에 군사력의 직접적 투입이 별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월남 전쟁이 동남아에서의 집단 안전보장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 준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월남 전쟁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과 실망을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국방비 감축 요구와 합치되어 사실상의 닉슨-독트린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닉슨-독트린의 발생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상대적인 안전보장 개념이다. 무력만이 안전보장의 지름길이라는 소위 절대적 안전보장 개념은 지난 선거 도중까지만 해도 닉슨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절대적 안전보장이라는 힘의 우위론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어 그칠 줄 모르는 상호경계만이 지속될 따름이다. 따라서 안전보장이란 결국 상대방을 눌러야만 이루어진다는 이율배반 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핵무기부문에 소련에 대한 우위가 소련의 부단한 핵무기 개발로 무너지자 상대적 안전보장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한 일면도 있다. 여기에는 닉슨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인 헨리-키신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닉슨의 『대결의 시대에서 협상의 시대로』라는 슬로건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는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도입된 유연반격적전의 수정이다. 적절한 보복으로 적에게 대응한다는 이 전략은 게릴라전에 대비한 일종의 편법이었다.

50년대 델레스의 핵에 의한 대량보복전략은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핵보유국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속박하는 면을 갖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게릴라전쟁의 효율성을 높여준 결과를 가져왔다. 이 핵에 의한 대량보복 전략의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곧 유연보복전략이며 따라서 통상병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월남전쟁의 확대라는 현상을 빚어냈다. 여기에서부터 지루한 월남 특유의 전쟁을 유발시킨 것이 되었으며 이를 깨달은 미국은, 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국 자신이 해결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된 것이다.

끝으로 셋째는 ICBM 대륙간 탄도탄의 발전과 공군력과 수송력의 별다른 해외기지 및 병력주둔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이상과 같은 배경 아래 닉슨-독트린이 나타난 것이며 우선적으로 월남에 적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전환

월남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맞본 미국은 아시아에서 좀 더 군사적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닉슨이 지난 선거전에서 내세운 공약이 존슨 전 대통령이 벌여놓은 월남 전쟁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에 초점을 둔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사실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전쟁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닉슨이 선보여야 할 정책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인 닉슨-독트린에서 한국만이 예외이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낙천적이며 한편으로 비현실적인 견해라고 밖에는 풀이할 수 없다.

닉슨 정부가 아시아에 대한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려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그 지역적 군사적 특수성을 내세워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관한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이 70년도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71년 말까지 2만 명을 감축 4만 3천명 선을 유지하려는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각 언론단체에서는 강렬한 반론을 제기해 왔으나 미국 정책에 수정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었다.

미국은 한국내의 반대의견에 관해 비록 2만 명을 철수시키기는 하지만 결코 한국에서 완전철수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 강조하면서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과 경제발전을 들고 있다.

또한 미군의 기동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에 대한 실례로써 69년 3월의 포커스-레티나 공수작전과 지난 3월초에 있는 「자유의 도약」작전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내세우고 있다.(미국은 70년 말 의회에서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군원 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음은 미국은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플레이션과 외채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몇몇 국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미국은 거듭 강조하면서 주한 미군의 감축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안전보장을 주로 한 대외정책에는 뚜렷한 전환점을 나타냈다.

자유세계의 국가들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부담을 공평하게 져야 한다고 닉슨은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른바 닉슨-독트린의 적용을 실천에 옮기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한국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ASPAC)가 자발적으로 집단방위기구로 전환할 것을 은연중 기대하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이에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의 실현은 어려울 것 같다. 일본은 이미 아시아각료회의(ASPAC) 군사동맹화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닉슨 대통령은 집단안보체제 외에 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방위역할을 내심 바라고 있다. 즉 미국의 짐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아래 닉슨 대통령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있어 위에서 살핀 현실적인 실리위주의 대 아시아정책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박 대통령 문언록

◇ 우리가 참되게 영령들에 봉헌하는 길, 그것은 차라리 그들이 못다 이룬 미완성의 유업을 오늘에 완성시키려는 우리들의 결의를 보다 새로이 하는 일인 것이다.

◇ 저축은 반드시 소득이 많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은 소득이라도 소비를 절약하면 저축이 되는 것이며, 또한 적은 돈이라도 한 푼 한 푼 모이고 쌓이면 거대한 산업자금을 이루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을 현실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것이 지성인들의 밝은 눈이다.

미국 · 중공 · 소련 삼대국의 정립

변천하는 국제 정세

이 재 승
<한국일보 외신부>

중공은 지난 4월 9일 집권(49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탁구팀과 이들을 수행하는 3명의 미국 기자들을 초청, 국빈(國賓)대우를 해주었다.

미국과 중공 사이의 팽팽 얼어붙었던 대화의 장벽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공수상 주은래(周恩來)는 미국 탁구팀을 맞는 환영사에서 미·중공국민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장(章)을 맞았다고 말했다.

주은래의 환영사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중공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 내의 여론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간의 외교」(중공의 표현으로는 인민외교), 미국 탁구팀은 바로 이 국민간의 외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미국탁구팀의 초청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국인 기자들의 입국허용이다. 미국이 61년 바르샤바 미·중공대사급 회담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 하나인 스포츠와 언론인의 교류를 중공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공이 말하는 소위 국민간의 외교가 아직은 걸음마 상태에 있지마는 국가간의 해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느니만큼 미·중공의 접근은 국제적으로 당연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소 두 강대국에 의하여 지배되어온 국제정세는 중공의 국제무대의 등장으로 미·중공·소 등 3자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전망에서 있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소의 2원 지배체제에서 미·중공·소의 3원 지배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있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중공의 평풍 외교에 대한 미·중공·소의 입장을 알아본다.

대결의 원리를 추구하는 중공

1969년 4월 개최되었던 제9차 전당대회는 중공의 내외정책의 전환점이었다. 안으로는 3년 동안에 걸쳐 벌어진 문화대혁명에 일단 중지부를 찍고 안정회 복기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밖으로는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후퇴 내지 정치되었던 외교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중공의 미국과 소련에 대한 원칙적인 관계는 제9차 전당대회에서 모택동 다음가는 중공의 넘버투 맨인 임표(林彪)의 기초연설에 나타나 있다.

임표는 소위 반제반수(反帝反修)를 바꿔 말하면 미국의 제국주의와 소련의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중공외교정책의 기초라고 명백히 했다.

문화혁명 이후 중공의 외교정책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공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으로부터 국제문제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 반소 반미(反蘇反美)정책을 추진 우호국과 외교관계의 발전을 모색했으며 현 시점에서의 중공의 주요목적은 자기들의 조건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의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공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중공외교는 문화혁명기간 동안의 혁명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수상 주은래의 현실외교는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공이 외교관계수립에서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온 것은 대만영유권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러나 중공은 이 원칙을 유동성 있게 원용 캐나다와는 대만영유권에 대해서 유의한다는 선에서 만족했고 쿠웨이트와는 대만영유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중공을 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선언만으로 만족했다.

이러한 유연한 외교로 중공은 70년 10월과 11월 2개월 사이에 캐나다, 기니, 이탈리아, 이디오피아 등 4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4월 현재 국교수립국은 모두 60여 개국으로 자유중국과 3개국으로 격차를 좁혔다.

또한 70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중공가입·자유중국 축출의 알바니아 안이 과반수를 획득 미국을 놀라게 했다.

중국대표권 문제를 3분지 2의 다수를 요하는 중요사항 지정안만으로는 미국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이 계속 중공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공동견해가 되었다.

중공은 또한 69년 9월 코시긴 주은래 회담을 계기로 대사 교환의 재개와 국경문제회담을 시작했다.

69년 10월 개막된 국경회담은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통상 면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다.

중공은 국경 회담에서 ① 국경의 분쟁지역으로부터 양측 군대의 철수 ② 중공, 소련간의 현재의 모든 국경협정을 제정 러시아가 중국에 강제한 불평등조약으로 인정할 것 ③ 이 두 조건이 수락된 뒤에 불평등조약을 전반적인 해결의 토대로 하여 협상을 할 것이며 ④ 조약을 위반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반환해야 하며 ⑤ 상호의 국경조정에는 현지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소련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로 양측은 국경의 분쟁지역에 병력을 집결시켜 놓은 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공은 소련과의 국경회담과 거의 때를 같이 미국과도 거의 1년 동안 중단되었던 바르샤바 대사급회담을 재개했다. 그러나 중공은 70년 5월 미군의 캄보디아 성역작전에 항의 바르샤바 회담을 중단시켜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중공은 마소 두 강대국에 대해서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는 것이다. 중·소국가를 결집하여 미·소 두 강대국에 대항하려는 것이 중공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고 보면 자신에 게 뚜렷한 이익이 생기지 않는 한 중공은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마·소와의 데이땅뜨(화해)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이 미국 탁구팀을 초청하여 국민간의 외교를 강조한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미국 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닉슨 대통령이 취하려 하는 2개 중국 정책을 배격토록 압력을 넣자는 것이다.

중공과 미국 국민사이에 상호이해와 우의가 발전되어 중공을 전중국의 대표로 인정하는 1개의 중국 여론이 형성된다면 닉슨 정부는 궁지에 처하게 되고 또한 동요될지 모른다.

이러한 여론이 닉슨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정책에 변경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중공의 국민간의 외교의 승리가 되며 양측 정부 간의 관계개선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소련이 중공의 국민간의 외교에 대한 미국 내의 동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중공문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앞으로 23년내에 세계정세가 크게 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해서 중공이 유연하고 대담한 외교정책을 펴 갈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공이 과연 미·소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정치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미·중공·소의 새로운 움직임을 유의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진의를 타진하는 미국

중공의 미국 탁구팀의 초청에 대한 미 정부와 민간의 반응은 한마디로 호의적이라고도 하겠다.

닉슨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중공과의 무역 제한을 완화하는 5개 항목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보다 앞서 2월 닉슨 대통령은 미국 시민에 대한 중공에의 여행제한을 철폐 미국 시민의 중공여행을 완전히 터놓았다.

중공이 22년 만에 미국과 대화의 장벽을 뚫어 놓은 것은 닉슨의 취임 이래의 대중공완화책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 닉슨의 주가가 높아가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그러나 중단되고 있는 바르샤바 미·중공대사회담에 대해서는 이 회담을 단절시킨 중공에 재개의 책임이 있다는 침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지난 4월말 기자회견에서 중공과의 관계는 단계적이며 질서정연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공의 유엔 가입이나 미·중공의 국교수립문제에 대해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될 것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닉슨 행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련의 조치로 보아 정·경(政經)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선 풀기 쉬운 문제부터 서서히 풀어보자는 것이다.

미·중공관계개선에서 궁극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자유중국문제와 이와 관련된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문제 그리고 인도차이나 전쟁문제이다.

자유중국문제에는 닉슨 행정부로서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중국문제에서 우선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 중공이 유엔 가입의 조건으로 자유중국의 추방을 고집하는 한 닉슨 행정부는 계속 중공의 가입을 봉쇄할 것이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는 상원내의 일각을 필두로 해서 여론의 상당한 기지를 받고 있는 1개의 중국 1개의 대만(臺灣)을 내세우는 2개의 중국 논으로 후퇴해야 할지 모르고 또한 그럴 용의도 갖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자유중국으로서의 대 타격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 공화당의 유력한 상원의원인 제이벳츠 의원은 이미 2개의 중국론에 입각한 중공가맹지지 결의안을 제출했다.

상원의교위원회는 아직 정식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나 오는 여름까지 중국문제 공청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문제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중공승인의 「무드」는 일층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닉슨 대통령으로서 중공의 접근에 대해 성의 있는 반응을 보였다 하겠다. 미국은 중공 탁구팀을 초청(구두)했으며 신문기자의 입국도 허용할 용의가 있음을 비쳤고 금수해제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할 것도 약속했다.

중공의 서브로서 시작된 핑퐁 외교에서 볼은 미국에서 중공으로 다시 넘어갔다. 중공이 국민간의 외교를 정부 간의 외교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가의 여부는 바르샤바 대사급 회담의 재개여부로 나타난다.

중공은 4월말 현재 미국의 중용에도 불구하고 회담재개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닉슨으로서 중공의 태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악몽 속의 소련

중공의 미 탁구팀의 초청과 이에 뒤이어 곧 발표된 닉슨 대통령의 대·중공 무력제한 완화 조치 등 미·중공의 템포 빠른 접근에 대해 소련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중공·소의 3원 외교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보는 소련의 외교수뇌부들은 신경을 돋우고 있다.

소련의 신문과 잡지들은 미국 탁구팀의 중공방문에 대해 뉴스 자체만을 보도했을 뿐 일체 논평을 하지 않았다.

소련이 본격적인 논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중공이 바라는 미·중공의 접근 가능 한계선을 추측해보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중공·소의 트로이카(3두) 체제를 맞는 소련의 하나의 악몽은 미·중공의 정치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시점에서 이것이 손쉽게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소련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뿐만 아니라 양측의 인적교류제한이 실천에 옮겨져 극단한 경우 미국 국회의원의 중공방문이 실현됐다 하더라도

<변천하는 국제정세>

미국과 중공 사이에는 대만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엔 대표권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개의 중국 방식으로는 중공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공의 미국에 대한 유연외교도 기복적인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외교전술로 보는 것이 소련 외교소식통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소련의 불안은 중공이 보이기 시작한 외교전술의 전환이 어느 범위까지 뻗어갈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다. 적어도 미·중공무역은 가까운 장래에 본격적인 체도에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소련도 예상하고 있다.

중공시장으로 쇄도하는 서구(西歐) 여러 나라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미국 실업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공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경우 정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은 미·중공 경제관계의 확대를 소련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실현은 미·중공간의 인적교류 뒤이어 정치교류로 깊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중공의 유연한 이상으로 미국이 중공에 대해 유연 노선을 걸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불만은 중공이 사실 원하는 것은 베트남 이후 월남전 이후의 발언권을 굳히자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월남전의 종결을 고려하는 미국이 평화적 해결에 중공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베트남 이후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입장은 중공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우려가 짙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지난 3월 제24차 당 대회에서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호소했으나 중공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공이 미국보다도 소련을 당면의 제1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소련으로서는 큰 불만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중공간의 접근이 진전될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소련은 착잡한 가운데 사태를 정관하고 있다 하겠다.

× × × ×

한 · 일 관계의 전망

정 규 응
<중앙일보 외신부>



세계 제3위라는 GNP(국민총생산)를 향유하며 또다시 아시아의 거인으로 자라난 일본은 65년 12월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서 다가왔다.

일제 36년, 해방 후부터 국교정상화까지 20년 동안의 대화의 단절기, 그리고 국교정상화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가시밭길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뜻에서 한·일 관계의 전망에 앞서 해방 후부터 오늘날까지의 두 나라 사이를 대충 돌이켜 봐야겠다.

해방 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편의상 대략 4기로 구분한다.

제1기는 해방 후부터 1952년 4월 28일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주권을 회복하기까지, 제2기는 대일강화 조약 이후 1959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 붕괴까지, 제3기는 장 면 민주당정권 수립 후부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까지, 제4기는 65년부터 오늘까지.

제1기

이 시기의 일본은 독자적인 외교정책 나아가서 대한정책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패전국 일본은 일본주둔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점령 지배 밑에 있었으므로 모든 대외관계는 연합군사령부의 결정에 좌우됐기 때문이다.

<한 · 일 관계의 전망>

해방·독립이 되자 49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승전자와 같은 태도로 일본에 대해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대일강화조약의 당사국이 되려고 외교교섭을 벌였지만 연합군사령부에 의해 거절당했다.

그 후 연합군사령부의 알선으로 51년 10월 20일부터 제1차 한·일회담이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42년 만에 대등한 위치에서 일본인과 마주 앉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비록 전쟁배상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36년간의 피의 대가를 찾고 어업협정을 맺어 일본인의 남획으로부터 연안 어족을 보호하자는 생각인데 반해 일본은 우선 들어만 준다든가 또는 일본인의 소민족이 될 염려가 많은 재일교포를 돌려보내고 싶은 동상이몽의 꼴이었다. 결렬은 당연했다.

제2기

1952년 1월 이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함으로써 외교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51년 10월 영해를 침범한 일본선원 1천명에 체형을 선고한 후였다. 일본의 여론은 들끓었다. 독립 후 일본으로서도 최초로 당하는 중대 문제였다.

따라서 53년 4월 열린 제2차 한·일회담의 양상은 제1차 때와는 판이했다. 토의조차 꺼려했고 어업문제를 「어업 및 평화선」이란 의제로 채택하여 문제해결을 서둘렀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평화선을 선포한 뒤라 이 문제를 피하고 청구권 문제를 다루고 싶어 했다. 일본은 한국의 속셈을 떠볼 양으로 평화선 안에 있는 독도에 일본보안청 배를 보내 순시케 해 왔다. 한국의 독도수시비대에 의해 발포세례를 받고 물러났음은 물론 평화선에 대한 한국의 강경태도를 확인했다.

그러던 중 한국 휴전협정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어 두 나라는 이를 관망하기로 하고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그 후 또다시 제3차 한·일 회담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미국의 권고에 못 이긴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초부터 한·일 회담을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결렬의 구실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는 중 회담을 결렬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 생겼다. 한국 대표단의 유도작전에 말려든 구보다 일본 측 일본 대표가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지배한 것은 한국에 오히려 유익하였고 강화조약 체결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등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한국 측은 즉각 발언취소를 요구했고 일본의 불응에 따라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한 · 일 관계의 전망>

회담이 결렬되자 한·일 두 나라는 서로 인질외교를 시작했다. 한국은 평화선을 침입한 일본 어부를 나포하여 처형을 가했고, 일본은 일본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을 무기한 억류했다.

54년 6월 한국이 억류된 일본 어부 4백50여 명 전원을 석방조치한데 반해 일본은 인도주의라는 미적 아래 재일교포를 복송할 것을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때를 맞춰 복귀는 대일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해 왔다. 55년 5월에는 일·북괴 어로협정이 체결되는 것에서 그쳤을 뿐이지만 기시 씨가 새로 수상에 임명되자 일본은 한국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구보다 씨의 망언을 취소했고, 억지를 부려오던 대일청구권도 포기하는 등 한국에 대해 굴욕적인 양보를 보였다. 어부억류사태로 인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져 한·일 관계협상이 촉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59년 7월 13일 일본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 인도주의라는 구실로 재일교포 복송을 선언하고 국교 단절을 각오한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캔커타에서 북괴와 북송협정을 체결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두 나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한국은 유엔에 북송저지를 제소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참전 16개국에 이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일통상 단절도 불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하는 기분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막대한 금액의 북송저지운동자금도 풀었다. 그러나 59년 12월 14일 북송 희생자 제1진 9백 75명은 북녘땅 청진을 향해 차가운 뱃길을 떠났다.

제3기

4·19학생의거로 장면 정권이 들어섰다. 장 정권은 한·일관계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청구권조로 지불받을 외화와 한·일간의 경제협력으로 경제 5개년 계획의 구상을 펴보려고 착안했다. 이승만 정권의 강경 대일정책이 친일저자세 외교로 급진됐다.

당시 일본의 외화보유고는 20억 달러를 초과했지만 수출시장은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었다.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국은 1억 달러 이상의 수출흑자가 예상되는 훌륭한 일본의 수출시장이 된다는 점을 내다 본 일본은 때를 놓치지 않고 대한 접근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일본과의 해동이 촉진되어 가자 한국의 정치인, 경제인들은

<한 · 일 관계의 전망>

일본 자본을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일본 측이 당황할 정도였다. 군사혁명의 암운은 짙어만 가는데,

군사혁명이 일어나자 한일 관계는 일시 긴장됐으나 기시 수상이 박정희 군사정권을 지지하고 나섰고 62년 11월에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오하라 일본외상 사이에 이른바 김-오오하라 메모에 의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이란 청구권 타결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 청구권의 해결원칙이 합의를 봄에 따라 회담의 초점은 어업문제로 바뀌었고, 324 대일 굴욕 외교반대 데모, 63 계엄 사태 등으로 회담은 무기 휴회에 들어갔으나 66년 4월 3일 일본을 방문한 이 동원 외무부장은 정치적 절충 끝에 청구권, 문화재, 교포지위, 어업문제 합의사항에 가조인, 6월 22일 동경의 일본 수상 관저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과 제협정은 정식 조인됐다. 예비교섭을 시작한지 13년 8개월, 7차 회담을 거친 각국의 난산이었다.

제 4기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분장을 유발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의 북괴접촉은 한일 기본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며, 북괴 기술자 입국, 일본상사의 북괴입국 등으로 신경을 날카롭게 하기 시작했다.

68년 11월 1백 54차에 걸쳐 8만 8천 3백 60명을 북송케 한 일본과 북괴 적십자 사이에 체결된 캄보디아 협정(재일교포 북송협정)은 만료되었으나 일본은 변칙적 방법으로 이를 연장하려고 획책했고 이보다 앞서 4월에는 미노에 동경도지사는 독자적인 권한으로 북괴조총련에 의해 개교된 조선대학교를 인가 특히 69년에는 조총련계 재일교포 6명의 북괴왕래를 허용하는가 하면 외화일로를 견고 있는 한일 무역 역조현상에 무성의한 반응을 보여 국교정상화 4년 만에 한일 관계는 극도로 긴장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해 2월 1일 일본경제신문과 동경신문이 북괴와 일본상사 사이의 콜레라 등 밀무역기도사실이 보도되자 한국은 비인도적인 북괴를 규탄하는 한편 일본의 무책임한 상흔 및 북괴와의 무역행위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위에서 돌이켜 본 바와 같이 험난한 길을 거쳐 국교가 정상화되고 양국우호 증진을 위한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 전망은 결코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두 나라

<한 · 일 관계의 전망>

사이에 산적해 있는 난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대충 살펴보면,

◇ 재일교포 영구권 문제 = 지난 1월 16일로 마감된 영주권 신청에서 재일교포 61만 명 중 26만 7천 5백 71명이 신청했는데 우송 등 기타 접수지연을 고려하면 약 29만 명선에 이른다고 한다. 영주권신청은 65년 양국 간에 체결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잠정적 조치에서 벗어나 떳떳한 지위를 부여, 일본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북괴의 회유적 마수에서 구해내어 조국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북괴의 영향력을 소탕하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도 물론이다. 일본 법무성허가가 난 교포는 18만 4천여 명밖에 되지 않다가 이번 신청으로 29만 명으로 늘기는 했어도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 미신청자에 대한 대책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 재일교포 북송문제 = 67년, 캄보디아 협정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존속했을 때 신청했던 1만5천명의 재일교포를 위해 잔무처리라는 명목으로 69년에 일본 적십자사와 북괴 적십자사가 접촉했으나 북괴는 북송을 위한 북괴요원의 일본 입국에 있어서 일본이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하라는 것을 약속 위반이라고 하여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계속 대립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4일 일본적십자는 5월 14일부터 북송을 재개 오는 10월까지 약 2천명을 북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북송협정은 모스크바에서 일본 북괴 적십자 간의 협상 끝에 지난 2월에 재개되어 체결된 것으로 지난 59~67년 사이 북송을 희망한 1만 7천명에 한한 것이라 한다.

◇ 조련계 북괴왕래 = 조련계는 65년 초소위 조국 자유왕복운동을 전개하기 시작 일본 정부도 일본 내 혁신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인도적 이유로 65년 2명, 68년 6명, 70명에 6명의 북괴왕래를 허용했다. 현재 왕래 신청자 수는 약 2천 4백 명. 지난해 엑스포 70 만국박람회에는 북괴시찰단의 입국을 허용치 않았지만 삿포로 동계올림픽과 나고야에서 열렸던 제34차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는 북괴 대표단의 입국을 허가, 문화 체육 등 비정치적 분야와 순수한 인도적 이유에서의 왕래는 막기 벽찬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한국정부에서는 신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일 정기 각료회의 = 지난해 7월 사흘 동안

<한·일 관계의 전망>

서울에서 제4차 각료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관계와 국제정세 검토를 비롯한 경제협력, 무역, 재무, 농림, 교통, 운수문제 등을 광범하게 협의했다.

특히 일본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적극참여, 중공업 육성을 위한 5천만 달러 차관과 추가 5천만 달러 차관용의 등을 약속하고 서울 지하철공사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문제를 원칙적인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시정책과 협력문제는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개선의 핵심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의 한일 관계는 양국의 경제협력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견지에서 상호협력과 유대강화에 중점이 두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의 선언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외적 유대는 한·미간의 강력한 공동방위협력체제와 아울러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9년 11월의 닉슨사토 회담에서 미국은 오키나와 현 정권을 72년까지 일본에 반환키로 합의한데 대해 정부가 오키나와 군사기지가 극동 및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날로 격증하는 북괴의 도발 및 침략행위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오키나와 기지의 군사적 가치가 저하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곧 일본의 경제외적 협력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다행히 마일 양국은 오키나와 반환이 극동안보를 위한 미국의 국제의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음을 밝혀 지속적인 한일간의 안보방위노력이 기대되고 있다.

<박 대통령 문언록>

◇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더욱이 극동에 몰아치고 있는 차가운 국제적 정세 속에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애국 애족이란 관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7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명



☆

70년대의 상황적 성격을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약단계의 후반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근대화 과정의 제1단계 후반기로 보아 전반기의 기존질서의 개혁 또는 붕괴기능에 이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광범하게 심화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정치사회의 질서가 재편성되는 단계로 본다.

따라서 70년대의 특징적 양상은 개혁, 붕괴보다는 조정, 통합분립, 확산보다는 통일내연화가, 불균형보다는 균형이 사회진화의 중핵적인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70년대의 조정, 통합, 통일, 내연화 그리고 균형이 들어서는 상황은 근대화작업의 시초적인 과업을 종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70년대로서 끝을 맺는 근대화 과정의 시초적 단계가 역사적인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7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명>

거기에는 성숙기와 소비기가 뒤따라오는 정치, 사회 발전에 대하여 자동적인 추진력을 가동시켜 준다는 역사의 계속성이 뒤따른다.

인류사회가 근대화를 추진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진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최소한도의 공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도약단계로 말하여지는 과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3년이며 특히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 이후에 도약단계에 들어선 나라들은 보다 짧게 18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숙단계에 들어서기에 필요로 하는 시간은 평균 38년이며 소비단계에로의 이행에 필요했던 시간도 평균 37년으로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상의 숫자는 주로 18세기의 후반기에 근대화 과정에 들어서서 20세기의 초기에 도약과정을 완수한 경우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여건이 근대적인 상황으로 갖추어진 이후에 근대화작업을 시작한 나라들은 보다 짧은 시간 즉 대개 다른 국가들이 소요했던 시간의 3분의 1로서 도약단계로부터 소비단계에까지 발전한 사실을 간추려 낼 수 있다. 우리가 주름잡아 도약 단계에 15년 성숙단계에 12년, 그리고 소비단계에로의 이행에 12년을 계산하여 우리의 역사진전을 투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나라들은 도약단계와 성숙단계에 동시에 들어선 나라도 있고 또는 성숙단계와 소비단계와의 큰 시차 없이 이룩해 나가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시간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외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1980년대부터는 소비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그려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국제사회의 발전과정과의 영향관계를 받아들이는다면 도약단계에 들어서서부터 20~25년 후부터는 소비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7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명>

그러나 그러한 25년의 소요시간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는 도약단계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처럼 순조로운 진보만을 기대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전제된 바와 같이 우리가 도약단계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안보문제의 제기과 아울러 강대국의 대추진국 외교정책이 그 전환점을 우리의 도약단계의 후반기와 겹쳐 근대화작업의 순조로운 발전 전망에 대하여 위협적인 여건으로 대두할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내적인 사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양상이 합리적 또는 발전적으로 상응하지 못하는 단절적인 상관관계를 이룩할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75년을 현 집권층에서는 도약단계를 매듭짓는 시기로 보아 중요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적인 정치상황의 동향은 그때에 긴장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필요 이상의 대내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밑에서 우리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절대적인 요인은 필요 이상의 긴장상태를 해소해 가는데 있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난국의 극복이 70년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의 표상이 될 것이고, 그 표상은 역사의 기록으로서 민족발전에 있어 제2의 전환점이 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과해질 70년대의 사명이 있고 그러한 사명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간직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70년대의 그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본다면 첫째로 도약단계의 전반부를 이끌어온 현 영도력을 중심으로 하여 혼미적인 시관(時觀)으로부터의 탈피가 요청된다.

이미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혼미적인 시관은 현재 가운데에 로 도피하는 태도 기존질서와의



<7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명>

유리상태에서 가지는 위축된 과거를 가진 인간에서 주로 찾아지며 또 그들은 개인의 생을 자기 1대만의 그것에 그치는 훨씬 좁은 시간의 한계를 지니는 역사 의식 속의 시관이라고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 혼미적인 시관이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적인 모순 또는 반작용적인 역할로 등장하여 역기능을 하리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시관이 역기능적인 사회 요인이 된다는 것은 60년대의 통치, 또는 발전기능이 기존질서를 붕괴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기존질서 속에서 안주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유리 의식을 조장하고 그러한 의식을 발전적인 통합의식으로 재편성 또는 재정향하려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종속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여 자주적인 가치관의 수용태세로의 전환문제이다. 대외적인 여건도 그 태세가 갖추어 지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회한형적 시관 속에서 존재해 온 우리의 민족심리는 예비형적 또는 진취형적 시관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어려운 집단 심리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형 또는 진취형의 시관은 60년대로부터 70년대로 이어져 다시 80년대의 소비단계에 접어드는 발전과정에서 영도력의 안정 기능에 대하여 위해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차원은 시원적으로 한정적이며 제약성이 많기 때문에 영도력의 기능을 위한 자원이 제약을 받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더욱 제약적인 정치자원을 기능화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한정된 정치자원을 능률적으로 운영 관리해온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진취적인 영도자의 시관만이 그것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60년대의 발전정책에 의한 실적이 실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명>

더욱 진취형의 시관은 소비를 위한 생산의 태도라기보다는 판매를 위한 생산의 태도로서 논리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70년대의 기여가 확대되는 사회세력임과 아울러 바람직한 영도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60년대까지는 구체적으로 발전계획을 구성하지 않았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노력인 것이다. 통일에 관한 한 그것은 보다 고차적인 발전목표임과 아울러 발전의 구극적인 지향인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장소, 시간 또는 인간 등의 차원의 발전 목표라기보다도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적 동일체감을 전제하지 않는 한 논의하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록 통일이 대외적인 환경의 상황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대내적인 문제이지만 어디까지나, 대내적인 정책정향이 그 중핵이 되는 통일에의 발전과정을 형성하는 의지가 그 근간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보다 무거운 사명이며 통일을 위한 소명의식이기도 하다.

이 소명의식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없는 당위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사멸과 의식은 70년대뿐만 아니라 그 후의 역사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발전 지향이기도 하다.

끝으로 회한형적 시관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미래의 시상(時相)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공포의식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정은 물론 과거의 위축되었던 시상도 아울러 부정하고 조그마한 현재의 안정마저 부정하는 부정의 심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현재에로의 도피태도라기보다도 도피처 없는 현재로부터의 도피이기도 하다.

이것을 부정의 정치논리라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와 같은 부정의 정치논리는 민주정치의 진전, 또는 발전에 대한



<7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명>

부정은 물론 자기 존립의 현실마저 부정하여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사회관계에서 스스로의 책임마저 부정해 버리는 권리이양의 왜소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왜소성이 권력관계에 있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정치심리를 표상할 때 정치사회의 실존은 어떠한 뜻도 지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뜻을 지녔다 하더라도 뜻을 지닌 목적의식이 없어지는 결과를 자아낼 수도 있다.

따라서 70년대에는 발전지향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를 중심으로 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조정되고 통합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가 정치(定置)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의식을 지닐 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민족의 등불에서—



<위인 일화>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어 인재를 양성할 때의 일화이다. 후에 쟁쟁한 인물이 되었던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에서 공부하는 젊은 선비들이 추울까 하여 시종을 데리고 집현전을 가 보았는데 이 날 밤의 숙직 신숙주가 야반삼경인데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돌아온 세종대왕은 시종을 시켜 다시 집현전을 보게 하였는데 신숙주는 아직 책을 읽고 있었다. 얼마 후에 세종대왕은 또 다시 보고 오라고 하였다. 신숙주는 닭우는 소리가 나자 촛불을 끄고 자리에 들어갔다는 시종의 보고를 듣자 세종대왕은 당신이 입고 있던 수달피 두루마기를 시종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 이것을 잠든 신숙주에게 가만히 덮어 주고 오너라.”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내 피 한 방울로 전우의 생명을 구한다.—

—편 집 실—

- ... 금번 우리 군에서는 종래 매혈에만 의존해오던 혈액을 장 ...○
- ...병들의 헌혈로 공급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모든 ...○
- ...선진국에서는 헌혈로서 혈액수요에 충당하지 오래이나 우 ...○
- ...리 나라에서는 이제야 헌혈 운동이 일어난 것은 늦은 감이 ...○
-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장병들은 내 피 한 방울이 내 귀...○
- ...중한 전우의 생명을 구한다는 고귀한 희생과 사랑의 정신...○
- ...로 헌혈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우애를 발휘할 수 있어야 ...○
- ...겠다.....○

◇개요

피는 사람의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헌혈운동의 필요성은 범세계적인 관심사로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의 50~75%가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 수요에 충당할 뿐 아니라 외국 원조까지도 가능토록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혈액수요를 거의 유상 공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혈액 부족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피의 매매행위를 하는 직업적인 매혈자의 유상공혈로 인한 저질의 피를, 가족이나 전우가 수혈이 필요할 때 수혈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 자주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의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내 피 한 방울이 내 귀중한 전우의 생명을 구한다는 고귀한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전우애를 발휘할 때가 온 것이며, 이러한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혈의 혜택을 자기 자신도 받게 되는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혈액생리

인체 내의 혈액은 체중의 약 90%에 해당하며, 체중이 50-60kg인 사람의 경우에는 약 4,000-5,000cc의 피를 가지고 있다.

피는 뼈속에서 만들어지며 언제나 일정한 양이 생기는 동시에 일정한 양

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새 피가 생기고 묵은 피가 없어지기까지는 120일이 필요하다.

즉 피는 120일을 주기로 언제나 신진대사의 작용을 거듭하고 있으며, 하루에 평균 50cc의 피가 생기고, 몸 밖으로 배설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뽑으면 묵은 피가 빨리 빠짐으로써 새로운 피가 빨리 생기게 되어 건강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생리적으로는 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채혈

헌혈은 체중 50Kg 이상 되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특별한 기준에 의한 신체 검사와 혈액 검사를 거쳐 피를 뽑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정이 내린 건강한 사람으로 1회 채혈에는 약 240-480cc까지 채혈할 수 있다.

◇헌혈자에 대한 특전

- ① 헌혈한 장병 및 군속은 어떠한 곳에서도 필요로 하는 양의 수혈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서 응급수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당량의 혈액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 ② 채혈 직후,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 및 영양섭취를 위하여 부대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한다.
- ③ 헌혈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헌혈증을 교부하여 그 증서로 삼는다.
<헌혈증 사본>

| | |
|------------------------------------|--------------|
| 헌혈증 NO. | 소속 ; 혈액형 () |
| 계급 ; | 군번 ; |
| 성명 ; | |
| 상기자는 헌혈하였음을 증명함 ○○○ 단 장 인 전대 | |

| 일자 | 장소 | 군의원 날인 |
|----|----|--------|
| | | |
| | | |
| | | |

◇헌혈운동의 전개

전 장병의 신체 조건이 허락하는 한 입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최소 1회 이상 자발적으로 헌혈하도록 하며, 각 의무 부대장은 헌혈상담소를 설치하여 헌혈에 관한 의학적인 상담에 응한다.

또한 헌혈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한 부대 및 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

한 표창을 한다.



윤 중 혁

<홍익대학 교수>

내가 서울 김포 국제공항을 떠나 캐나다로 향한 것이 1967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즐긴 다음 27일이었다. 오후 3시 대형 제트 여객기에 몸을 맡기고 동경을 경유 태평양을 건넜다. 태평양상에서 일부변경선을 지날 때 시곗바늘을 하루 뒤로 돌리라고 한다. 태평양을 넘는 동시에 하루를 버는 셈이 된다. 따라서 동에서 서로 넘어올 때엔 하루를 잃어버리게 된다. 27일에 떠나 27일 저녁 열시에 캐나다의 제2의 도시 인구 2백만의 토론토에 도착하였다. 오는 도중 서해안의 제3의 인구 팔십여 만의 밴쿠버에서 약 두 시간 내렸다가 공항 세관에서 간단히 소지품 조사를 받고 행선지로 향한 것이다. 중간에 캐나다 대초원지대인 중서부의 농산물 중심지인 위니펙에서 비행기가 좀 쉰다. 우리 승객들은 비행기 속에서 약 한 시간 정도 스텐더스가 주는 티.커피를 마시며 신문잡지에 눈을 옮기고 어떤 이는 옆의 사람과 적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내가 캐나다에 온 것은 대학의 영어영문학 교수로서 영어를 좀 익혀 학생교육에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과 어느 정도 전문을 넓혀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온 것이다. 우선 캐나다 하면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평화스럽고 대지의 크기에 비하여 인구수가 아주 적은 곳이란 것은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지의 크기는 소련의 다음가는 미국보다는 약간 더 큰 세계 제2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소련의 크기는 632만 2천 350평방마일이고, 미국은 361만 5천 211평방마일인데 비하여 캐나다는 385만 2천 평방마일이라 그 크기는 짐작이 어느 정도 되리라 믿는다. 이 광활한 땅에는 소련과 미국이 각각 인구 1억 이상 2억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캐나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보다도 적은 약 2천 2백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8만 5천 2백

<캐나다 풍물소개>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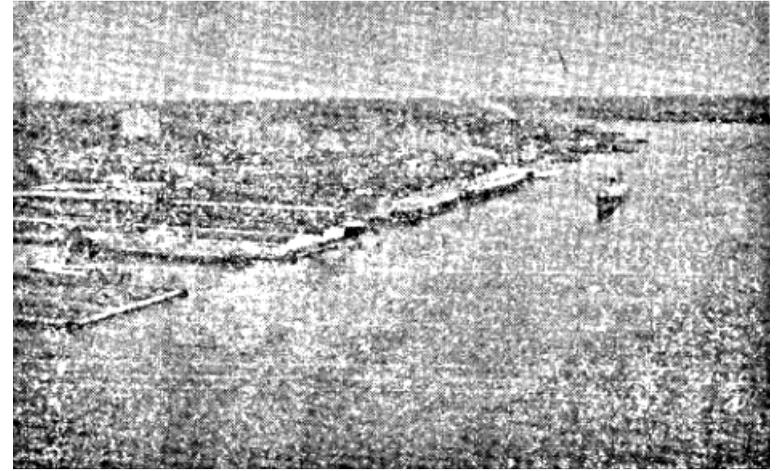
28평방마일이니까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약 45배가 되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정치체제는 연방공화제 수상중심,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며 수상은 다수당의 당수가 맡게 되는데 수상은 영국식을 따라 간접선거로 정한다. 수상 후보는 당원이 모여 당 대회에서 우열을 승부 댈데 마치 투우장을 방불케 하는 스포츠 대회처럼 일차 이차 또는 3차 투표를 거쳐서 결정된다. 표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이 매우 아슬아슬하여 TV를 보며 대회 광경을 보는 것이 마치 권투시합처럼 볼만

하다. 대개 누가 되리라고 신문지상이나 라디오 해설자가 예언도 하나 예측을 불허한다.

지난번 영국선거 때 윌슨이 되리라고 예측하던 것이 전도되어 히이스가 보수당을 이끌고 수상이 되다시피 영국 앵글로색슨의 후예들은 매우 신중하게 자기의 한 표를 제 고집대로 던진다. 이것이 모두 남보다 나를 앞세우는 자존심이 강한 성미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다. 현 수상 트루도는 총각으로 수상에 당선되었었다. 이제는 총각을 면하였다는 소식이 도하신문에 나서 호기심을 품고 그의 거동을 지켜보던 이에게는 실망이 클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로 수수께끼의 인물이었던 트루도가 그의 선배수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피얼슨의 후계자로 1968년 4월 6일에 수상이 될 때도 치열한 득표전 끝에 수상직에 올랐다. 그 당시의 캐나다 여건으론 향간에 여론도 있었으나 다채로운 학적 즉 정치적 경제학적 문화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데서 더구나 매력적인 연설, 독특한 언어구사 특히나 캐나다가 지향하고 있는 양국어 정책(영어, 불어)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란 점으로 모든 면에 유리하였으리라고 믿어진다. 이 나라는 영어하는 주와 불어하는 주로 나누어진다. 신문지상에 캐나다 하면 으레 오르내리는 퀘벡주. 이곳이 전적으로 프랑스계인이 많이 있는 곳이며 종교적으로 단연 로마천주교가 강한 곳이라 동리 도시 안에는 퀘벡만 가면 천주교성당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 종교심은 캐나다 어디서보다 강한 편이다. 우리가 캐나다에 오면 으레 이곳 사람들 입에서 프랑스 캐나다(French Canada) 또는 영국 캐나다

<캐나다 풍물소개>



(English Canada)라는 말을 듣게 마련이며 나는 후렌치 캐나다인(I am a French Canadian) 또는 나는 잉글리쉬 캐나다인(I am a English Canadian)이라고 뽐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출생지나 언어가 프랑스계란 말이고 또는 영국계란 말이 된다. 트루도 같은 어느 부계는 불란서이고, 모계의 혈통은 스크티쉬 잉글리쉬 게이프로 프렌치, 잉글리쉬 캐나다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는 16세기 이래 프랑스인 영국인이 거의 동시대에 개척을 시작하였다. 프랑스가 좀 더 먼저 온 모양인데 프랑스인이 영국인에 물리어 전쟁을 통하여 승부를 가리어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퀘벡이 독립되기를 원하는 이가 많다. 저 고인이 된 프랑스 전 드골 대통령이 퀘벡 몬트리얼(인구 200만이 넘는 캐나다 제 1의 도시)을 방문하여 퀘벡 독립만세를 불러 큰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 이 프렌치 캐나다 하면 이곳에서는 퀘벡주 뉴부란스키주 및 동부해안지역을 말하며 기타의 부분을 잉글리쉬 캐나다라고 한다. 캐나다 전반의 지역을 소개하면 북위(北緯) 42도 3부에서 북쪽을 뺀 북위 80도를 상회하는 추운 지방이란 인상이 드는 곳으로 우리나라 기온보다 추운 것은 사실이고 봄과 가을이 23주 있을까 말까 하여 여름철 한참 더울 때도 밤에는 서늘하여 선풍기나 에어컨이 불필요하다.

캐나다의 주는 북으로 2개의 준주(準州),

<캐나다 풍물소개>

이곳은 인구가 아주 희박한 곳으로 인디언 에스키모인이 주 주민인데 조그마한 집단 부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다. 에스키모인은 얼음집(igloo)에서 산다. 이 주의 이름은 Yukon Territory와 서북지역이란 Northwest Territory이고 그 아래로 동서로 나열돼있는 주는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 and Labrador)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노바스코치아(Nova Scotia), 뉴브런스윅(New Brunswick), 퀘벡(Quebec), 온타리오(Ontario), 마니토바(Manitoba) 사스캐추언(Saskatchewan), 앨버타(Alberta) 및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이렇게 10주에다 2개의 준주로 되어 있다. 북쪽 2개의 준주의 행정은 완전 자치가 아니라 중앙관서 오타와(Ottawa, 캐나다 수도)의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놓여 있다고 보겠다.

이 나라는 영국에서 자치령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1857년이였다. 즉 정치행정상의 국가의 상징은 영국국왕으로 하고 명목상의 그 대형기관으로 총독이 오타와에 있어 모든 외국사신의 아그레망은 총독이 취급하며 국가원수의 역할은 현재엔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의 대행을 이 총독이 하고 있다. 또한 각 주에는 부총독이 있다. 이들 총독 부총독은 과거에는 영국에서 직접 임명했었으나 오늘날에는 수상이 저명인사 중에 캐나다를 대표할만한 인격의 소유자를 추천하여 영국 왕이 임명하는 형식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영연방의 한 회원 국가이다. 지난 1967년엔 캐나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세계 박람회인 퀘벡의 몬트리얼시에서 열렸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리라 여겨진다.

한번은 저명한 역사교수가 나에게 미국과 캐나다의 큰 차이점을 간단히 말하겠다고 해서 일러주기를 미국은 영국왕의 깡패, 망나니 큰아들이 부왕과 뜻이 맞지 않아 집을 등지고 나가서 재산싸움 끝에 영국과 절교한 셈이라 억세고, 캐나다는 막내 공주로서 캐나다란 곳으로 시집을 보냈더니 항상 눈물을 흘리며 영국만 바라보기에 너도 새 집안을 세워 보라고 독립을 갖다 주었으나 여전히 영국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격이라고 하였다. 이곳의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사실상 영국 다음가는 영국인처럼 생각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캐나다의 해군기지가 있는 도바스코치아의 해리팩스(Halifax)라든가 서부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빅토리아(Victoria) 지역에 사는 영국계 후손들은 자기네가 사용하는 영어가 캐나다에서 가장 미국식 영어의 영향을

<캐나다 풍물소개>

받지 않은 순수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내놓고 자랑한다. 따라서 동부와 서부의 항구 도시에선 매우 보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중부의 온타리오나 중서부의 마니토바, 사스캐추언, 앨버타는 사실상 미국식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의복이나 사고방식도 매우 진보적인 자유사상이 짙다고 보겠다. 우리 동양인으로서 중부, 중서부에 가서 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이곳 캐나다의 주민의 인종분포를 보자면 영국계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불란서계가 인구 2천 2백만 중에 약 6백만을 차지하여 나머지는 이태리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유태인, 일본인, 중국인, 우리 한국인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의 나라이다. 곳곳에 희랍인, 이집트인, 인도인, 러시아혁명 때 망명 온 러시아인, 폴란드인, 심지어 이스토니아인, 체코인, 유고슬라비아인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 들어 살고 있다.

이 북미대륙의 북쪽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으니 좀 전에 언급하였던 인디언과 에스키모인 들이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현대 기계 문명과 등지고 태고 때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습성에 젖어 있으나 중앙관서의 특별한 고려하에 의료시설, 교육시설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다. 캐나다에도 미국처럼 인디언 보호지역이 있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받고 약간의 농사와 수렵을 하며 사는 자연 속의 인종들이 인디언이라 할 수 있으며 간혹 캐나다 시민이 되어 실사회에 나와서 중등, 고등 교육을 받고 직업전선에 나선 인디언도 눈에 뜨인다. 이들 캐나다 인디언도 적어도 자기네가 참된 캐나다인이라던 궁지는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인이 겪은 경험 중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은 친구 문병 차 베드(Bed)가 천여 개 있는 큰 종합병원에 들렸었는데 병원 복도에서 말 실랑이가 일어났다. 병원 직원 두 사람이 하나는 내가 진짜 캐나다인이라던 것이다. 재미있어 옆에서 듣자니 자기 아버지가 구라파에서 이민 와서 자기는 캐나다 태생이니 까 순수한 편이라고 하며 딱 한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와서 캐나다 시민이 되건 내가 10년 전에 와서 영주권을 얻고 5년 전에 캐나다 시민이 되건 캐나다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무슨 차가 있는가 하고 반문을 하는데 옆을 지나가던 캐나다 인디언 한 사람이 너희들 다 틀렸다. 왜인고 하니 나는 언제 이곳에 살았는지 기억도 할 수 없는 인디언이니 이 도둑놈들이 내가 정작 리얼 캐나다인(Real Canadian)이라고 쉐대니까 사실 그런 것이라 웰(Well) 하더니 한바탕 웃고 만 일이 있다.

<캐나다 풍물소개>

그리고 보면 진짜 캐나다인은 인디언이나 에스키모인일 것이다. 하여튼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것은 부인 못 할 일이며 정부나 사회 기타 종교단체에서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제 민족 제 국가 즉 전에 살던 조국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각 민족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되도록 멀리 말아야 된다는 말들을 하며 세계인은 모두 지구의 울타리 속에서 한 인류란 견지 하에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여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곳 원주민의 생활 및 숫자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들은 예술이나 상상의 세계, 수리의 세계, 즉 기계문명의 편리한 사고방식보다는 가장 중심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저 먹고 수렵하고 뛰노는 석기시대 생활을 해왔다고 하겠다.

또한 에스키모인은 남쪽의 따뜻한 곳에선 살기 힘든 체질이 되어버려 남쪽 아열대, 열대지방엔 내려와 살면 병에 쉽게 걸려 장수 못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믿음만한 말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인디언은 도시에서 많이 눈에 띄이나 에스키모인은 눈에 띄이는 일이 별로 없다. 이들 에스키모 및 인디언들은 구라파에서 질병이 백인을 따라 들어온 후 늘지 못하였으며 담보상태로 있다가 지난 10년 동안에 국가의 보호정책에 따라 인구가 늘어가는 현상이 보인다. 현재 인디언은 21만 3천 명 정도, 에스키모인은 1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들은 모두 중부에서 북부에 많이 사는데 에스키모인들은 가장 북쪽에 거주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노스웨스트 테리토리(북서부)와 북퀘벡에 흩어져서 산다. 이곳 인류학자들 말에는 20년 후에는 2배의 인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에스키모인들은 키나 용모가 분명히 동양족 특히 몽고인 우리 한국인처럼 보이는 것이 특색이다. 이들 에스키모인들은 북극을 중심으로 하여 물개, 백곰, 바다물고기, 고래 등을 잡아먹고 살며 개인의 재산이라곤 수렵도구가 전부며 때로는 자기부인까지도 자기 권한 밖의 사람일 때도 있다고 한다. 즉 때때로 겨울철에 썰매를 몰고 몇 10마일을 사냥 나갈 때 몸이 튼튼한 부인을 공출하며 사냥꾼과 딸려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수렵할 힘이 없거나 몸에 지장이 있을 시는 꽤히 응락 하여야 되며 또 제 부인이 태중일 때엔 남의 부인을 대신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추운 날씨에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고기 기름으로 얼음집 속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하며 수렵도구나 옷을 말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문율이 생겼다고 한다. 수렵에서 돌아오면 모두 똑같이 나누어 먹으며 부인은 제 남편에게 돌아가며 자녀 출생시는

<캐나다 풍물소개>

현재의 남편의 자식이 된다. 또 어린 에스키모인 부녀자 중에 워낙 원기왕성하고 튼튼한 여자는 남편을 둘 갖는 일도 있었다고 하나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은 드문 일이 되어 버렸고 과부가 될 경우도 평생을 혼자 사는 일은 드물고 빠른 시일 내에 혼처를 정하여 서로 의지하여 추운 기후와 맞서 산다고 한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어 그 지역풍토에 맞게 변화하여 발전하는 모양 같기도 하다.

이곳 전반적인 정치 행정 체제는 미국식 자본민주주의에다 영국식 사회보장 제도를 가미하여 지상 복지 국가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 같으며 작년만 하더라도 모든 의료 위생에 관계되는 것은 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물품 구매 시에 의료세를 부과한다거나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입을 늘려서 하시라도 병에 들면 무료로 입원, 치병,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금은 죽을 때까지도 반드시 다 치루어야 고이 잠들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우선 이 나라에 이민으로 들어가면 인력 동원처(Manpower Center)에 가서 직업을 알선 받는데 핑크 카드(Pink Card), 분홍색 카드를 받는다.

이것은 상담역을 맡은 직원이 직종을 적어 내주며 영어가 아주 서툴다고 인정이 될 경우(퀘벡에서는 불어가 서툴 경우) 영어 학교 입학수속을 밟아주며 하루 8시간 공부하는데 이 학교는 주로 이민을 위하여, 하루 3부제로 아침반, 저녁반, 새벽반, 이렇게 되어 있다. 가족이 없이 단신일 경우는 38불, 가족이 있을 경우 80불을 매주 내어준다. 기간은 6개월간을 영어교본은 캐나다인 잉글리쉬란 책자로서 국민학교 6학년 정도까지를 습득시킨다. 60점 미만이면 유급인데 2회 유급이면 퇴교,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대개 대졸들이 많아서 너무 점수를 잘 따면 다 배웠다고 중도하차시키는 경우가 있어 아는 것도 일부러 몇 개 틀리게 시험을 본다고들 한다. 우선 직장을 구하려면 인력 동원처에서 얻어주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일이 걸리기도 하므로 웬만한 영어를 습득하면 영어 학교 수료 전에 신문지상 구직, 구인광고를 보고 쫓아다닌다.

회사, 공장 심지어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수, 대학 총학장직까지도 신문 광고란에 나온다. 정부 관리도 물론이려니와 보수도 마음에 들고 일할 보람이 있는 곳이라고 느껴지면 그곳 인사처에 전화하여 시간 약속을 하여 놓고 면접을 한다. 대개가 서로 마음에 맞으면 그 직장서식에 맞게 이력을 적어놓고 서명, 사인을 하는데 그대로 믿고 채용하나 채용

<캐나다 풍물소개>

후 3개월 동안 주로 전화로 그런 직장에 문의해보고 서류에 적어 넣은 사실이 허위일 때엔 3개월 이내에 해고하고 마는데 점잖게 여러가지 여건이 당신에게 맞지 않은 모양이라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다. 며칠 후에 일한 것만큼의 수표가 날아온다. 또 어떤 때는 피고용인이 직장이 맞지 않고 딴 곳에 보다는 나온 곳이 있으면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고는 웬만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인간의 예의이지만 바쁠 때는 전화로도 상관없다. 사직을 통고하면 경리과에서 며칠 후에 봉급수표가 손안에 들어온다. 봉급은 대개 주급 또는 2주급으로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에 내주는데 현금이 아니고 모두 수표로 내주며 연봉일 경우도 달수와 날짜를 계산하여 나누어서 내준다.

학교교육은 주에 따라서 다르나 모두, 12학년 또는 13학년(온타리오주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의 여러 지역에서는 소·중·고등학교까지를 13년 한다)까지 완전히 의무교육이라 학비 일체 부모의 부담이 없다. 부모는 하루 세끼 밥 먹여 주고 입혀주면 제 나름대로 학교에 다니게 마련인데 다만 7학년서 13학년 때엔 약간의 노트나 펜, 연필 등 또는 여분의 참고도서는 자기가 사는 수가 있으나 이곳 학생들은 대개 곳곳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한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자기네 말인 영어가 가장 어렵고 그다음이 수학이라고 한다. 대학 1학년 때 영어 50점(급제 점수) 이상을 못 받아 2년, 3년 고생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 대학입학 시험은 없으나 고교 재학 시와 점수로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나라의 교육은 하고자 하는 열의와 머리만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면 관계상 이만 두서없는 말이나마 그칠까 한다.

<위인일화>

살수 대전의 승리에서 고구려를 구출한 을지문덕 장군이 개선하자 왕을 비롯한 백성들의 환영은 대단하였다. 그때 장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나라의 귀중한 백성이요 또 여러분의 귀중한 아들이요 남편인 청년을 많이 전사시키고 얻은 승리를 나 개인의 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살아서 돌아오는 을지문덕이 아니요 어딘지 모르는 산야에 쓰러진 이름 없는 젊은 용사들입니다.」

(특)(집) II.

6 · 25 발발 21주년—
그 날의 분노를 기억하자!



북한군 폭군의 남침과
6 · 25의 참상

조

성
공산주의문제
연구소 소장
연두소 소장

세계역사상 가장 처참한 6.25, 북한 괴뢰군의 남침은 공산주의자들의 악랄 무쌍한 생리를 단적으로 드러낸 만행 중의 만행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여지없이 노정시켰다.

수백만의 인명이 침략자의 총검에 쓰러졌으며 근 40억불(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파괴, 약탈당하였다. 미리 수년 전부터 세밀한 전쟁준비와 소련·중공의 적극적인 군사 경제의 뒷받침으로 불의

에 불법 납치한 이 6·25의 납치는 우리 한국민처럼 직접 체험하지 아니한 민족들은 그 처참한 잔인성을 속속들이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북괴는 이러한 고의적 납치를 자행하고도 지금 역시 6·25 납치가 자기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극력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6·25 납치계획이 정말 어떠한 과정과 계획 하에서 밟아왔는가를 또 다시 밝혀 놓음으로써 6·25 진상의 죄악상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 전야에 이르기까지 4년 10개월 동안에 공산북괴는 보병 12만 5천, 경비대 3만 4천, 공군 2천, 해군 1만 도합 17만 1천의 병력과 포(砲) 1,923문, 전차 120대, 장갑차 373대, 비행기 211대, 함정 30척의 많은 병력과 장비를 단시일 내에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소련의 집중적 침략준비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공산북한은 침략적 전초기지로 되어 버렸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8·15 해방 당시 북한에는 단 한명의 공산군장교도, 사병도 있지가 않았다. 모든 것은 미소공위(美蘇共委)와 유엔이 한국문제를 논의하는 배후에서 북한을 군사주의 일색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1948년 12월 26일까지 소련군이 전면적으로 주둔해 있는 동안 북한을 침략기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 분명하다.

소련 점령군은 북한에 진주하는 그 첫날부터 적위대, 보안대, 경비대, 철도 보안대, 평양학원 등의 각종 군사조직을 진행하여 1946년 6월에는 이것을 통합한 인민군으로 훈련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리하여 평양에 보안간부훈련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 평남 개천(价川), 평북, 남신의주(南新義州), 강계, 함북 나남(羅南) 등지에 각각 보안간부훈련소 간판을 걸고 여기서 정규군 훈련에 착수하였다.

2차대전시의 소련무기와 장비가 대대적으로 공급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당시 보안관부총훈련소의 총사령관은 최용건이었고 소위 정치부 사령관은 김일(金一)이며 포병부 사령관은 무정(武亭)이었다. 김일이 처음부터 정치부사령관이 된 것은 괴뢰군의 사상 인사문제를 장악하여 궁극적인 김일성 사병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남한에 대한 군사적 침략준비를 대체적으로 끝낸 소련은 1948년 12월 북한 주둔군의 철수를 발표하고(정책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포리부동한 가면극을 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소련이 마련해 놓은 공산북한의 괴뢰군으로 하여금 멀지않아

군사적 납치를 감행할 계획을 은폐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소련군의 대부분은 철수했지만 괴뢰군에 배치된 소련군 고문관은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남아서 납치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1950년 5월 17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김일성 임석하에 최용건, 박일우(내무상)무정, 김일, 허정숙들과 괴뢰군 사단장급의 장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앉았다. 이 자리에서 그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논의한다고 해 놓고 실인즉 무력침공의 예비회의를 열었던 것이다. 박일우(朴一禹)는 평화적 통일의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자기에게 무력통일을 맡겨 준다면 내무군대(내무성 산하군대)만으로 20일 내에 부산까지 함락시키겠다고 장담했으며 무정(武亭)은 『우리 인민군은 강합니다. 전차도 있고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함정도 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토론을 했고 최용건은 『그렇게 간단히 이길 수 있을지』라는 한 마디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이것은 무력침공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괴뢰군 총사령관으로서 괴뢰군의 힘을 과시하는 적절한 연기였다. 이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했던바 거의 이구동성으로 무력수단의 통일을 정당화시키는 발언이었다. 이러한 발언은 주로 괴뢰군 사단장들이 했으나 허정숙(許貞淑)은 그러한 충성의 발언을 자기도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무력침공은 내무군대나 인민군 어느 한쪽만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합하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일성이 결론 연설에서 『우리는 끝까지 평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무력수단이여야만 한다는 시기가 내일이 될는지 모래가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군사관계자들은 무력 통일의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이 회의가 끝나는 즉각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최후까지 평화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다만 6·25전야에 이르기까지 남한당국에 대하여 통일협상을 제청하고 조만식선생과 이주하, 김삼룡 등의 신병(身柄)교환을 하라고 제청한 사실을 의미할 따름이며 이것은 또한 6·25 무력침공 계획을 끝까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한 것이다.

이때부터 멀리 함경북도 나남, 원산, 강계쪽으로부터 중무장군이 야음을 이용하여 남으로 밀려왔다.

즉 행동개시가 벌어진 것이다. 일요일로 택일하여 놓고 모든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 공산북괴는 몇 시에 어떤 방송을 한다는 선포문과 연설문까지 마련하여 놓았다. 멀리 후방에서는 마침 일요일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야유회 운동회 같은

것을 준비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후일에 자기네가 침략자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마련해 두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면서 1950년 6월 16일 전방사단장 앞으로 남침명령이 내려졌다. 공격명령 제1호 1950년 6월 18일 평양에서는 당시의 북괴군 제4사단장 앞으로 발해진 것이었다. 불의의 침공을 받은 남한당국은 대항할 도리도 없이 수많은 도시와 농촌을 공산침략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사전에 세밀하고도 엄밀한 준비를 완료한 북괴도당들은 괴뢰군이 남침을 시작하자 수십만 명의 안전원(비밀경찰)과 공작대원들이 각기 사명을 맡고 괴뢰군의 뒤를 따라 더러 오기 시작하였다. 남침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한 괴뢰군은 중무장으로 발톱까지 무장하여 닥치는 대로 우리의 평화적인 시민까지 학살하였으며 다소라도 공공직에 있었다는 가족들에게는 무참한 방법으로 학살을 감행하였다.

도로와 시가지는 시체의 바다가 되었고 괴뢰군의 총탄에 쓰러져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어린아이까지 마구 총살하는 등 그들의 만행은 극에 달하였다. 공공재산은 물론이려니와 개인재산의 모두가 약탈되었으며, 인명의 존엄성도 동족애도 재산권도 공산침략군의 총검 앞에는 실로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 특히 불의에 서울을 점령한 괴뢰군들과 공작대원들은 서울시내의 가가호호를 닥치는 대로 수색하여 젊은 청장년들은 모조리 잡아내고, 식량, 금은보화의 귀중품 기타 가구까지 모조리 약탈하는 강도적 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소위 반동분자 체포라는 명목으로 가가호호를 누비면서 총으로 천장과 창고를 쏘아가면서 위협과 공갈로서 수라장을 만들어 놓았다. 소위 그들이 반동분자라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직원까지도 체포하여서 서울 수백 개소의 임시 유치장에 감금하여 인간 이하의 대우로서 고문과 구타 등 갖은 악독한 만행에 혈안이 되었다. 이로써 이유도 없이 앞잡이들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의 수백 개소에서는 괴뢰군과 내무서원들이 인민재판이란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총살하는 잔인무도한 학살행위도 예사로 자행되었다. 그러므로 서울 장안은 지옥의 도시, 학살의 도시, 피의 도시로 화하여 미처 피난가지 못한 우익인사와 거명인사들은 굴을 파고 숨어 있었는데 지하를 파고 숨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수도 토관 안에서 숨어 며칠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식하고 잔인한 괴뢰도당과 그 앞잡이들은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집단학살을 감행하는가 하면, 집집마다에 모든 재산의 약탈에 혈안이 되었다. 특히 김일성 도당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북으로 납치해오라는

정치인들의 수색에 광분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중견간부 이상 급의 체포에도 광분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서울뿐만 아니라 괴뢰군이 강점한 도시와 농촌에서도 같은 행동으로 학살과 약탈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의 국군과 유엔이 노도와 같이 괴뢰군과 중공을 격퇴하여 복진할 때, 최후 발악으로 괴뢰군들은 감금시킨 우리의 지도자(각계각층의 요인) 시민까지 형무소에서 또는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총살하여 도주하였다. 그 중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납치해간 정치 요인, 종교계 지도자, 공무원 등은 괴뢰군의 총검에 의하여 도보로 수천리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굶주린 창자를 끌어안고 북으로 북으로 끌려갔었다. 도중에서 병으로 도보 불가능한 납치인들은 무자비하게 타살하였는가 하면 대오(隊伍)에서 이탈된 사람들도 여지없이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므로 끌려가다가 학살당한 우리의 중견간부들과 기타 우익인사 정치인들만 하여도 수만여명에 달하였고, 순수한 납치 인사들만도 대략 8만여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사상 유례없는 동족상쟁의 크나큰 죄악을 범한 김일성 도당들은 참으로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되었고 또 세계의 어느 국민들도 북괴의 침략적 만행에 모두 아연실색하여 지금 침략자라는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괴도당들이 노린 적화남침의 악독한 행정에서 남북의 인명사상자 수는 2백여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거나 생산시설과 주택의 파괴 및 농지의 황폐화는 이 땅의 사막화를 우려케 할 정도였다. 피해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파괴의 분위기는 실로 몸서리치는 지옥상을 가져왔고 우리민족의 순량한 심정의 외곡과 잔인심리 및 찰라주의의 여독 같은 것은 지금껏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괴뢰도당들은 6.25의 실패와 전세계자유민의 원성의 적이 된 처지에서도 하등의 뉘우침도 없이 전법을 바꾸어 단계적으로 남침야욕의 계획을 또다시 수립하고 간접침략수법과 나아가서는 무장공비까지 대대적으로 양성하여 기어이 적화남침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오로지 적화통일이란 목표 하에 10년 이상이나 전쟁준비를 계속하여 북한동포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면서 방대한 자금과 전략물자 생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소위 국토의 요새화, 전민무장화, 괴뢰군 현대화 등으로 매일 잊지도 않던 남침소동을 벌이면서 우리들의 허점 즉, 혼란과 경제교란만을

노리면서 지하당조직, 고정간첩양성, 게릴라 밀파의 기회를 엿보면서 남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경제의 발전이 부진하고 따라서 국방태세가 미약하면 어떤 구실을 붙여 가면서도 괴뢰군을 남침시켜 소위 내란형식으로 한국을 전복하려고 갖은 악랄한 흥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과 혼란은 공산주의의 온상이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북괴는 괴뢰군 이상으로 중무장하고 사상적으로 쇄뇌교양까지 철저히 받고 있음으로 하여 노동적위대(민병) 130만 명이 정규군과 다름이 없다. 이 외에 무장공비 4만여 명 이상이 극한의 훈련으로서 남침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6.25의 몇 배 이상의 잔인무쌍한 참상을 가져올 제2의 6.25를 자행하려고 갖은 역선전, 기만적 평화공세를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극악한 전쟁준비에 필요한 각종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우리의 정부가 60년대에 눈부신 경제발전과 국방태세를 확립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제2의 6.25 남침이 감행되었으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은 결코 잠작이 아닌 것이다.

6.25 남침이 보여준 준엄한 체험과 그 후의 북괴도당들의 빈번한 남침, 무자비한 살육행위는 우리 한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반공정신을 양양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철석같은 반공태세 하에서 경제건설의 성과에 따른 국방태세가 확고히 확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건설 없이는 국방태세의 강화가 있을 수 없고 국방태세의 강화는 경제건설에 수반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 국민의 반공정신이 고도로 양양되었기 때문에 승공태세의 확립, 즉 차원이 높은 국방태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6.25의 처참 무쌍한 대홍변이 다시는 이 땅에 없이하려면 첫째도, 국력배양이며, 둘째도 국력배양이다. 국력배양은 우리의 국군을 중심으로 예비군의 무장화, 경찰, 전 국민 할 것 없이 일치단결하여 싸우면서 건설하며 싸우는 결의와 굳은 의지로써, 중단 없는 전진으로서 국력배양과 함께 총진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2의 6.25를 없애는 첩경이며 나아가서 우리의 국력과 자유의 물결이 북한 땅에 흘러넘칠 때에 승공통일의 성업을 이룩할 수 있으며 멸공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6.25는 우리 민족의 심각한 교훈이며 국민 전체의 승공통일예의 촉진제이기도 하다.



(1) 북괴집단의 생리와 야욕

공산당의 기본적 생리가 파괴를 그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폭력이라는 방법을 유일한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주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파괴적인 폭력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감언이설과 기만적 선전술을 구사하는데 그 같은 내용을 천편일률적으로 무수히 되풀이함으로써 처음에는 그들의 선전내용을 믿지 않던 사람에게도 종당에는 믿게끔 만들려는데 그들의 선전목적 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전 원리는 러시아의 심리학자 파브로브의 조건반사설(條件反射說)에서 도입,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파브로브의 조건반사설의 내용을 간추려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개에게 종을 치고 밥을 주는 연습을 되풀이하면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울려도 밥을 주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전시켜 새로운 경험의 확대는 조건반사에 의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정신 상태를 생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전달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게 할 뿐 아니라, 일정한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데 이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흔적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신경계통에 남아 있는 기억이라는 흔적에 에너지만 가하면 인간일지



북괴내전에 대항하기
우리의 각오와 자세

김 유 혁
60년대 전임공산

라도 종소리만 듣고도 밥을 먹었을 때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개와 같아 동일한 행동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한 북괴공산당은 그들의 선전술을 20여년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해오으로써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괴수 김일성을 신주처럼 믿게 만들어 신격화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생지옥인 공산사회를 마치 지상의 낙원처럼 믿게 만들어 김일성의 명령과 당의 지시라면 불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구주노릇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있는 그들의 야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적화통일이라는 정치적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한다는 것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민주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며, 또한 민주제도는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유지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만약에 북괴공산당 그들이 이와 같은 민주방식에 의한 제도를 채택한다면 그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말할 수도 있으려니와 괴수 김일성의 명령에 맹종하는 주구의 집단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당은 인간을 이성적인 만물의 영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의 물질처럼 간주하여 공산주의의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그들은 특히 대인정책에 있어서 개성의 말살과 가족집단의 특성해체 등에 역점을 두고, 소위 천리마 작업반이니, 무슨 노력반이니 하고 능력별 노력집단을 강제 조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산주의 사상과 당성 및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결부시켜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것을 김일성 사상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묶어 놓으려는 것은 모든 북한 주민을 로버트화 하여 소위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전쟁도구로 구사하기 위한 저의에서인 것이다.

오늘날 북괴 공산당들이 서두르고 있는 김일성체제 형성은 곧 북한주민을 거대한 기계의 기능적인 조직처럼 엮어매어 놓고, 김일성은 마치 원자 기계의 조작자처럼 뒤에 앉아서 기계 조작 기술자가 필요한 스위치를 눌러 기계를 가동케 하는 것처럼 그의 자의적인 명령을 마음대로 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성을 잃었을 때보다 더 험난할 수 없고 또한 환경적인 생태속에서 그릇된 사념에 집착되었을 때처럼 만용을 발동할 때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을 괴수로 한 북괴의 공산주구집단은 분명히 조국과 민족

이라는 우리 조상 전래의 고유관념을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레닌 숭배 관념으로 대체 전환하고 있는 한 북괴공산도당은 이성을 잃은 자들의 집단이며, 공산주의라는 종교적 사념에 집착되어 있는 집단일진대, 그들은 험난한 행동과 만용적인 폭력을 행동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리적인 체질을 가진 공산도배는 휴전선 일대를 비롯한 해상침투를 통한 후방지역에 잠입하여 갖은 만행을 거듭하고서도 도리어 책임전가에 온갖 선전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항에서 그간의 북괴의 만행상과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그들의 광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이 비참하다는 것은 전향간첩이나 귀순자의 말을 들어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외신 보도가 전해주고 있는 사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2) 북괴의 만행과 전쟁준비

그들은 빈부의 격차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행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김일성 공산집단 때문인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전쟁무기 생산에만 광분하다 보니 민수산업을 소외하였고, 민수산업의 소외는 주민들의 일상용품을 공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입자금의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의 북괴 군수산업은 그 자본의 회임기간(懷妊期間)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빈곤생활을 계속 강요하게 됨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실태는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북한괴뢰는 그간 얼마만큼이나 군사력 증강에 주력해 왔는가는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북괴는 지상군과 공군력 증강에 주력하여 왔는데 그 병력의 증강비율은 625 남침 당시의 병력에 비하면 약 2.4배로 증강하였으며 휴전 당시 병력에 비하면 약 160% 증강하였다.

그 외에도 1백 20여만 명의 노동적위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장비에 있어서도 병력의 증강과 더불어 현대적인 최신 장비시설도 괄목할 만큼 증강시켜 오고 있는데 모든 장비 부분에서의 증강은

6.25 남침 당시에 비하면 거의 10배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유도탄 기지 및 미사일 기지의 대폭 신설은 그들의 재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의 이면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력의 준비 배경을 지니고 있는 북괴는 1960년대를 전쟁준비완료의 해로 설정하고 1970년대를 적화통일의 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1968년 초부터 전후방에 걸친 끊임없는 침략적 도발행위를 감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능력을 저울질하며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침투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 대표적인 실례만을 열거해 보면, 북괴 측의 휴전협정 위반사건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된 이래 1969년 4월 18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괴의 휴전협정위반 건수는 총 6천 8백 19건에 달하는데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4백 14건에 달하며 또한 월평균으로 보면 16년간 매일 31건으로서 매일 1건 이상의 협정 위반을 범해 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다시 1960년 이전과 그들이 전쟁준비 완료기간으로 설정한 1961년 이후에 있어서의 협정위반건수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면 1953-1960년에는 6백 28건에 불과했지만, 1961-1969년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6천 1백 91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느냐 하면 북괴는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군사력이 증강되면 될수록 더욱 도발적인 침략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은 해상에서의 어선납치를 계속하는 한편 다른 또 한편으로는 무장공비를 전후방 각 지역에 침투시켜 경제건설의 파괴와 민심동요 및 후방교란을 계속 시도해 오고 있는데 그 양상은 날이 갈수록 탈바꿈을 해가며 악랄해 가고 있다.

먼저 어선납치사건 만을 연도별로 보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그 납치 사건이 빈발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북괴공산당은 물론 우리의 방침과 힘의 불균형이 어디에 있는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한 현실적인 요청은 국민적인 방위태세의 강화를 강렬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무장공비의 노골적인 침략행위는 우리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 전쟁도발적인 영상을 띄고 계속 침투해 오고 있는가 하면 무고한 양민에게 무차별 살상을 감행하고 있는데, 1968년 한 해 동안

에만 침투를 기도하다가 아군의 반격으로 북방으로 도주한 무장공비까지 포함하여 무려 1천 2백 53명의 무장공비가 전후방에 걸쳐 침투해 있었다.

물론 후방에 침투하였던 공비는 전원사살 또는 생포하였던 것으로 이는 우리의 국민적인 반공사상과 군·관·민간의 기밀한 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략기도를 완전히 봉쇄·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자원으로서의 국민적인 힘의 과시를 더 한층 고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원천

현대전의 성격은 그 전쟁규모와 양상의 고도화로 말미암아 국민총력전의 형태로 바뀌었다. 비록 적과 직접 싸운다는 결전장은 전선에서 군인에 의한 전투작전으로만 보아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투능력은 국력의 일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협력과 정치·정치·사회·문화 등 국가의 각 기능분야의 역량이 총합된 단일 역량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우수한 체력을 지닌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운동기예를 지도하는 코치와 훈련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시설지원 및 육체적 능력 유지를 위한 영양의 공급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운동선수로서의 훌륭한 성과기록을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우위성을 유지 확보한다는 것이 국가 전반적인 기능분야에서 최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나아갈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즉,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가이익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서서 당리(黨利)와 사리(私利)를 초월한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론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국가의 지향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 정력을 단일방향으로 집중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가면서 계획된 예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정 기초 위에서 근대적인 복지사회 건설에 계속 역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에 있어서는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자주적인 전력자원의 공급능력을 보다 발전시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수호한다는 정신체제와 능력 요건을 겸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은 정치·경제·사회·국방 등 제분야는 각기 독립적인 영역에서만 발전하여 가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상호 연계적인 긴밀한 상관관계 하에서 통합적인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국론의 통일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며, 또 한 사회적인 안정기조가 동요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서는 분야별 국가기능의 통합 조정력의 약화로 결과적으로는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예측적인 판단은 우리 눈앞에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북괴 김일성 도당의 광태적인 전쟁도발 형태는 우리의 쓰라린 과거를 되새기게 할 뿐이다. 북괴 김일성 도배는 전기 제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병력의 증편과 아울러 전쟁무기 및 전략장비의 확대증강을 계속 거듭하면서 재남침의 결정적인 시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와 같은 북괴의 현실적인 침략위협 아래서 우리는 국력신장에 저해를 가져오는 장애요인이 우리 스스로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 목표가 조국근대화라는 높은 기치 아래 경제건설과, 자주국방 및 사회 안정이라는 우리의 지상과제를 국민 종합적인 단일 역량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껏 역주해 온 일사불란한 전진자세를 조금이라도 헤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일면 건설, 일면 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보다 공고한 단결력을 과시하여 안으로는 조국 근대화의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고 밖으로는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북괴 김일성 집단의 침략적인 야욕을 완전 분쇄하는 태세를 강화하여 가는데 더 한층 분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북괴는 제 2의 6·25를
희圖하고 있다

숙제문제연구소
김태서

올해 6·25는 21번째 맞는 날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6·25지만 올해의 그것은 더욱 우리의 심정을 뼈저리게 하며 보다 냉철한 환경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북괴의 대남 폭력 도발과정에서 그들의 적화야욕이 너무나 뚜렷하게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안이하게 생각하기 쉬운 국제정세의 흐름을 이용하여 가증스럽게도 위장평화공세를 앞세워 도발행위를 가리우려고 책동하기 때문이다.

68년 1·21사태와 울진·삼척 지구 대규모 무장공비 투입사건을 비롯해서 KAL기 납북과 현충문 폭파 미수사건 등 일련의 폭력전술이 이제 한국 국민의 대응태세 강화와 70년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이란 현실에 부딪쳐서 이것을 교묘히 역용하는 북괴는

전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북괴는 마치 대남폭력전술을 포기하여 도발을 안 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우리의 경계심을 이완시키려 들며 혹시 그들이 남파한 간첩이나 무장공비의 정체가 탄로되더라도 그것이 충격적 사태가 아닌 만성화 된 일로 인식되도록 규모를 적게 함으로써 북괴도발의 국제적 반응과 감각을 둔화시키려는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괴대남 도발책동은 국내외의 경계심을 약화시켜서 보다 가공할 사태로 몰고 갈 계기를 모색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냉철한 판단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북괴가 21년 전에 동족상잔의 침략전쟁을 도발할 때 바로 이러한 수법을 썼다는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실 북괴는 1949년 3월 소련 및 중공과 비밀군사조약을 체결하고 50년 3월에는 38선 5마일 이내 주민을 철수시키면서 괴뢰군을 진주케 했으며 또한 동년 6월에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사이 남북총선거를 실시토록 남북협의회를 열자고 제의하는 한편 남파되어 피체된 간첩이 주하와 김삼용을 조만식 선생과 교환하자는 평화공세를 펴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평화공세 막후에서 괴수 김일성은 초대 대사로 분장한 전 북괴 주둔 소련군 사령관 스티코프 소장과 6.25 남침 계획을 면밀히 작성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북괴는 당시 6.25침략전쟁을 계획함에 있어 대내외의 이목과 관심을 딛고 돌리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를 벌였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신생 대한민국이 이 같은 북괴의 남침준비와 침략 기도를 간파하고 우방에 무기원조를 요청했으나 실패했고 안이하게만 생각하던 미국을 비롯한 자유제국이 동란이 터진 다음에야 돕기 시작한 탓으로 민족적 수난과 파괴를 막지 못했으며 자유 민주통일을 눈앞에 두고도 휴전이란 서글픈 재난의 씨앗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권국가의 일의적(一義的)인 책임이 자신의 힘에 의한 방위에 있음을 절감케 되었으며 남의 힘으로 국토를 방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수난의 6.25를 회상할 때 악독한 공산도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는 물론 이에 못지않게 자조정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함을 재삼 다짐하게 된다.

(2)

이 같은 자조정신은 어디까지나 자립경제에 바탕을 둔 자주국방의 완성을 기한다는 자세와 노력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 자신의 능력과 투지로서 국토완정(完整)을 이룩하는 첩경으로 되는 것이다.

회고컨대 북괴는 6.25남침으로서도 적화야욕을 달성하지 못하자 재기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하는 양 추파를 던지면서 전후복구와 사회 통제 기능 강화 등 독재기반 조성에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들어 한국에서의 4.19와 5.16혁명 등 격동하는 사태를 직시하게 된 북괴는 중소대립의 격화에서 오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의 악랄한 정책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62. 12. 10. 노동당 4기 5차 중앙위에서 내건 전 인민 무장화, 전 지역 요새화, 군의 간부화 및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을

강행하기 위해 북괴는 경공업과 평화산업을 도외시키고 중공업 우선정책에 매어 달리는가 하면 GNP의 무려 24%를 군사비에 투입하는 등 하여 북한을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기에 광분했다.

그간 북괴는 14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과 훈련을 강화하면서 그의 중추세력인 대기업소와 공장 및 학교의 노동적위대원 약 30여만 명에게는 76.2mm 야포, 120mm 박격포, 37mm 고사포, 82mm 무반동포, T-34중형전차 등으로서 정규군과 동일한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70년말에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생 대원을 선발해서 붉은 청년 적위대를 조직하고 이들에게 포병, 탱크병, 낙하산병, 해병, 조종사, 무전수 등 각 군종(各軍種) 병과병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북괴는 66.10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의 전 인민무장의 최종단계를 지향하라는 김일성 지시에 따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인민에게 사격훈련을 강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괴수 김만성은 70.11. 5차 당 대회에서 전제인민이 모두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인민무장정책의 강행과 더불어 군지휘소, 유티적지소, 중요군수공장, 격납고 등의 지하화와 요충지대의 방호공사 등 전 지역 요새화 정책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MIG-21 C.D.F형을 비롯하여 Komar.CS A급 유도어뢰정, T-54 및 55형 탱크, 107-140mm 로켓포 등 주로 속공과 기습에 유리한 장비를 중점 도입하는 일방 방어훈련으로부터 각종 공격기동훈련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괴수 김일성은 지난 5차 당 대회에서 북괴군은 방어와 공격수단을 겸비한 막강한 군대로 자라났다고 뉘까리고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경제계획 수행에 일정한 차질은 초래했지만 군사공업기지가 다져져서 이제는 각종 무기와 전투 기술기재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괴는 76년까지의 6개년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전제조건을 전쟁과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물질적 준비를 하는데 선차성을 부여한다고 하고 따라서 평시부터 절약 증산하고 물자를 전쟁을 위해 재배치하며 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군수공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전시에라도 계속 생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괴뢰도당이 1950년대 후반에 숨을 돌리기 위해서 위장평화공세를 벌였던 일과는 달리 60년대 후반에 폭력수법 위주의 대남도발 강행사실을 관런시켜 볼 때 그들의 전쟁준비 강화는 이제

막까지 고비에 들어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3)

또한 북괴는 전쟁준비에 총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주객관 정세 추이에 영합한 새로운 군사 전략전술을 개발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침략전쟁도 발기회 포착에 부심하고 있다.

69. 1. 북괴군당 4기 4차 회의에서 괴수 김일성은 현대전쟁 위주를 주장하는 군벌들인 민보상 김창봉, 총참모장 최광 등 대장을 비롯해서 10여명의 고위 장성을 숙청하고 정규전과 비정규전 포함을 골자로 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북괴는 82mm 박격포 이하의 경화기로 무장하는 이른바 경보병 대대를 각 사단에 신편(新編)하여 습격 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과 아군 배후에서의 제2전선형성 등으로 대소부대 정규작전에서의 배후 교란 배합을 극히 중시하는 편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전선 후방주민을 모두 전투 요원화하고 내륙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유격지구를 설정하여 공격군을 인민전쟁 전술로서 약화 격퇴시키려 하며, 또한 이를 전방 주둔지의 효과적인 적극 방어체제와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격과 방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술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북괴군과 노동적위대에게 진지전, 야간전, 접근전을 비롯해서 이른바 비행기 및 탱크, 사냥꾼 훈련을 익히게 함으로써 제공권이 피탈당한 조건하에서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북괴군사 전략전술은 625동란과 월남 전쟁경험 및 한국의 지형지세를 감안해서 부단히 연구 보강되고 있으며 특히 주력은 군대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라고 하여 초인적 주력을 갖추도록 강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실들은 북괴가 이제 전쟁과 혁명을 그들 군사전략 및 정책에 철저히 반영시키고 있음을 반대하는 것이다.

(4)

이러한 북괴 군사전략의 변천은 본질적으로 대남적화 목적의 침략전쟁을 감행하는데 있어 국제적 반공군의 개입여건을 배제한 가운데 중소의 물적 지원을 얻으려는데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북괴는 상기 여건에 부합되도록 침략전쟁 개시의 계기를 남한 자체에서 일어난 내란 또는 게릴라전으로부터 찾으려 할 것이며 그 진전 상황에 따라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하여 남한을 병탄코자 하는 정책을 쓸 것이 분명해졌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게릴라 남파와 그 활동 강화를 사실상의 침략으로 단정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이것을 저지, 분쇄치 못하면 이른바 정규전과 비정규전 배합에 의한 전면침공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괴의 비정규전적 도발이 계속 분쇄되고 주변정세가 그들의 오판을 낳을 소지가 많을 때는 공격을 위한 방어의 완벽을 기하는 군사노선의 성과와 중소로부터의 지원을 방패삼고 일거에 전면 무력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우방국가의 일부 사람들은 북괴가 중공 또는 소련의 군사지원 없이는 남침이 불가능하며 중공과 소련은 북괴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대화의 시대, 또는 마소 평화공존 등을 고려한 안이한 생각이며 국제 긴장의 완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와는 반대로 한반도의 정세는 1970년대 후반까지 긴장이 격화될 것이란 점을 소홀히 다룬데 기인하는 것이다.

때문에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이 도처에서 침략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사실과 중공의 중간지대론을 중심한 이른바 인민해방 전쟁전략의 전개를 우리는 경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공과 소련이 공히 인민해방전쟁은 적극 지원한다고 수차 공언한 사실과 현재도 월남 전쟁에 있어 중소가 월맹지원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모든 상황으로 볼 때 북괴도당은 중소와 접경해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심분 활용하여 그의 침략근성을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군사적 다국화 추세를 눈여겨 지켜보면서 제2의 625를 꿈꾸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북괴가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속속 그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간첩과 무장공비를 줄곧 남파하는가 하면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형기 사건 등을 저질러 미국의 대응태도를 측정해 보려는 것도 모두 그 같은 북괴 저의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최근 북괴는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월미군 철수 및 주한 미군 감축 등 일련의 상황 그리고 중공의 핵무기 진전과 때를 같이한 쌍방 혈맹관계 부활을 그들께 유리한 정세발전이라고 여기는가 하면 극도로 우상화된 김일성이 명령만 내린다면 근위대, 결사대로서 나아가 싸울 것이라고 발광하는 판국이다.

괴수 김일성이 40대 미만에 동족상잔의 침략전쟁을 거침없이 저질러 625동란의

쓰러린 재난을 강요했거니와 최근 그가 입버릇처럼 떠드는 자기세대에 적화 통일달성이란 말을 분석해 볼 때 이제 환갑에 접어든 그의 광적 성격은 보다 조급해질 소지만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6·25의 피맺힌 원한과 가혹한 시련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북괴가 역사에 준엄한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전쟁수법에 매달리기 위해 제2의 6·25를 꿈꾸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는 이때 우리는 자주경제와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국민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괴뢰도당의 아시아적 민족해방 전쟁의 음흉한 기도를 간파하고 있으며 간접 침략과 직접침략은 정규전과 비정규전과 마찬가지로 표리 관계 내지 상관관계에 있음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군은 항상 간접침략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평상의 시기가 방위상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깨닫고 확고한 지휘체계 하에 교육과 훈련에 더욱 정진하여야 하겠다.

또한 휴전선과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침투는 우선 제1선 군대와 불침번이 접근근로를 완전 봉쇄함으로써 격퇴 섬멸할 수 있는 것이며 철조망과 장애물과 레이다는 철저한 감시와 화력과 신경이 뒤따르지 않는 한 효과적인 방책이 될 수 없다 함을 자각하고 근무에 임해야 하겠다.

다난한 70년대의 현시점에 선 우리 국군은 자손만대에 자유와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국토방위의 역군임을 자부하고 다 함께 용전분투하자.

<위인 일화>

불란서 루이11세는 여러 가지 불길한 예언을 퍼뜨려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예언자를 붙잡아서 사형에 처하려는 마당에서 그 사나이를 불러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운수팔자는 잘 아는 모양인데 네 자신의 운수는 알고 있는가? 대체 너는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느냐?”

“네, 실은 제 운수는 조금도 모릅시다만 폐하보다 사흘 전에 죽는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이11세는 그 사나이의 사형을 중지하였다.

★내가 겪은 6 · 25



패잔병의 수류탄

이 송 영

<서울대 대학원장.문학>

6월 27일, 서재에 앉아서 머지않아 출판이 될 원고를 교정하려니 포성이 울려 붓이 나가질 않았다. 그러자 야아크 전투기가 머리 위를 날며 배라를 뿌린다.

어찌 되는 형편인지 불안만 더해간다. 오후 늦게 안군(학도 대장)이 찾아와서 “남쪽으로 피하세요. 전세가 불리해서 미아리 방면은 철거 중입니다”

라고 함에 나는 원고를 놓은 채 류크삭을 지고 나섰다. 가족은 한 걸음 앞서 원효로 아우에게로 보낸 뒤다. 나는 전차를 타고 해가 질 무렵에 원효로에 닿았다. 그날 밤비가 퍼부었다. 새벽이다. 한강인 도교 폭파로 놀라 나는 공습인 줄 착각하고 가족을 방공호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28일, 밖을 나와 보니 국군이 후퇴다. 나는 남하를 결심하고 가족을 이끌고 마포강변으로 나서니 피난민으로 발 딛을 곳도 없다. 나는 뱃사공에게 돈을 주고 몇 차례로 나누어 여의도로 십여 명 가족을 다 옮기고 나니 오전 11시였다. 하늘이 도운 도강이지 십여명 가족을 고스란히 옮기다니 이 무슨 복이라, 영등포를 지나 안양길로 접어들니 제자, 지기(知己)들이 모여 30명의 부대가 되었다. 리어카를 끌고 온 패도 있어 짐을 실었다. 시흥의 빈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끓여 먹고 안양을 들어서니 해가 기울었다.

<특집 II : 6 · 25발발 21주년 그날의 분노를 기억하자!>

그러자 제자 하나가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기차가 떠난다고 하기에 우리는 달려가니 벌써 화물차에 사람이 오른다. 나는 허리와 무릎을 굽혀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소리쳤다. 그 기차는 29일 아침 대전까지 내려간 것이다.

나는 식구와 작별하고 7월 10일 유엔군의 연락병을 위해 발차하는 기동차를 탔다. 이것은 송대일 철도국장의 편의 제공의 덕이다. 지금도 생각하니, 역을 지날 때 역 주변에 기차를 타려고 아우성치는 피난민의 모양에 가슴이 다 탔다. 그 이튿날인 15일 대구에 도착해서 문충이 지정해 준 여관의 신세를 졌다. 전황이 걱정이 되면 정훈국장인 이선근 박사에게 가서 묻기도 했다. 나는 다시 8월 4일 부산으로 내려갔다. 여기가 피난의 막바지다. 전선이 낙동강 유역까지 다가선 것이니 불안하기만 했다.

날이 흐리면 걱정이 된다. 유엔군의 비행기가 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9월에 들어서니, 아침저녁 찬 바닷바람이 몸에 아프게 스며든다. 여름 셔츠로 내려왔으니 겨울을 어찌 지날 것인가 하면 우울하기만 했다. 그러자 평양 살 때의 제자 이군을 만났다. 그는 놀라며 “선생님 이렇게 거리에 떠다니시더니, 이리 오세요”

하며 안내한 곳이 개북여관이다. 여기는 이북 조민당간부가 모이는 곳이다. 그 뒤 나는 숨이불을 덮고 편히 지내게 되었다. 뒤이어 같은 평양제자 중군에 있는 안군이 와서 새로 서는 군기관을 맡으라는 것이다. 그 업무는 보급의 연구를 맡는 기관인데 후방전사를 엮는 것이다. 나는 망설였다. 감당할 수 없을 듯하기에 생각할 여유를 달라하고 확답을 늦추고 있었다. 이 얘기를 들은 교수들은 찾아와서 환호성을 올리며, 그 직책을 맡으라는 것이다. 가을바람에 군복이란 고맙기 한량없고, 그래도 봉급이 나오니 얼마나 좋은 직이냐고 야단이다. 그래서 내가 교수단을 편성하고 군에선 문관을 뽑아 20여 명의 부대가 편성된 것이다. 난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다. 그러자 10월, 즉 북상이 시작되어 우리는 군 트럭으로 대구로 옮겼다. 숙식은 군에 의지했음은 물론이다.

나는 대전근교에 남긴 가족의 생사가 궁금했다. 지프차에 카빈 든 호위병 한 명을 태우고 북상군 뒤를 따라 쫓아갔다. 길에 탱크가 쓰러지면 이를 일으키곤 하는 바람에 야간에 추풍령을 넘게 되어 옥천에 밤늦게 들어섰다. 바로 그때다. 냇가 길에서 패잔병의 수류탄에 맞았다. 그러나 불발로 살아나서, 가족을 만나보고 다시 대구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의 추억이다. 시골 촌락으로 지프를 타고 들어서니

<특집 II : 6 · 25발발 21주년 그날의 분노를 기억하자!>

논가에 선 아들애(국민학교 1학년생)가 뛰어 들어가며 “우리 아버지 군인이야”라고 떠드는데, 난 눈시울이 뜨겨워졌다. 가지고 간 레이슨 박스의 강통과, 돈 10만원을 주고 나선 것이다.

다시 나는 대구에서 대부대의 트럭 행진에 끼어 북상해서 마포로 입성했다. 그 길에 부수어진 적의 탱크도 적지 않았고 불에 탄 초가집, 폭탄에 무너진 건물들을 볼 때 감개무량이었다.

★내가 겪은 6 · 25



40여일의 숨바꼭질

류 홍 렬
<성대 대학원장·문박>

저 고약한 동족살상의 6·25 전란은 1950년에 일어났으므로 올해는 그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때 나는 39세의 젊은 대학교수였으나 이제는 이미 60세의 회갑을 치른 늙은이로서 그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니 감개무량한 바가 있다.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나는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한편 다른 대학에도 출강하고 있었다. 그리하며 6·25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인 6월 24일 토요일 아침에는 기차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농과대학에서 국사의 특별강의를 두 시간쯤 하고 그곳의 책방에 들러 몇 권의 책을 사가지고 저녁때의 기차 편으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실상 나는 처음으로 찾아가게 된 그곳의 거리도 구경하고

소양강가를 거닐면서 하룻밤을 묵고 올라올 생각이 없지는 않았으나 다음 날인 25일이 아버님의 육순 생신날이었으므로 고됨을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와 때마침 내리고 있던 소낙비를 맞으면서 아버님을 인의동(仁義洞)댁으로 찾아 뵙고 혜화동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버님 댁으로 다시 가서 육순잔치를 치르고 점심때 쯤에는 나의 한국문화사라는 새 책을 며칠 전에 출판하여 준 서울책사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뜻 밖에도 거리를 달리고 있던 군용 지프차로부터 “휴가를 나온 군인들은 곧 원대로 돌아가”라는 마이크 소리가 들려옴과 아울러 괴뢰군이 38선을 넘어 쳐내려고 있다는 방송이 들려 왔다. 이에 놀란 나는 곧 아버님 댁으로 달려가 라디오의 소리를 거둬 들음으로써 6.25전란이 그날 새벽에 일어났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나 “국군이 괴뢰군과 잘 싸우고 있으니 시민들은 안심하라”는 라디오 소리를 믿고 가족과 함께 혜화동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지새웠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안심이 되지 않아 26일 저녁 때에는 아내와 다섯 아이들을 먼저 아버님 댁으로 피신시키고 다음날 새벽에는 나도 그곳으로 가서 함께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리하여 26일 밤을 홀로 대포소리에 떨면서 지새운 나는 27일 이른 아침에 옷 보따리를 걸머지고 아버님 댁으로 가려고 집 문을 나서니 성북동 고갯길로부터 10여명의 국군이 달려와 왕십리 쪽으로 가는 길을 묻고 괴뢰군이 이미 서울에 쳐들어 왔음을 알리면서 사라졌다. 이에 놀란 나는 옷 보따리를 집에 던져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혜화동 로터리로 달려가 보니 과연 나뭇잎 등으로 머리를 위장한 괴뢰군들이 두 줄을 지어 찢름거리면서 창경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일부는 이미 파출소 대한청년단사무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나는 우리 정부와 함께 남쪽으로 옮겨갈 길을 잃고 서울에 남아 이 후 석 달 동안 공산주의자들에게 시달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은 대학을 차지하고 교수들의 성분을 가리어 우익교수들을 제명하는 한편 그 일부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는데 나도 제명된 교수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나는 신변에 위험을 느껴 7월 31일 새벽에는 아버님과 아들딸 하나씩과 더불어 서울을 떠나 고향인 장단(長湍)으로 내려가 형님댁에 몸을 숨기게 되었다. 나는 이곳에 보름동안 머물러 있다가 정세를 살피려고 8월 17일에는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와 숨어 살게 되었는데 그사이에 괴뢰군은

두 차례에 걸쳐 밤중에 나의 집을 살살이 뒤져 나를 잡아가려다가 허탕을 친 일이 있었다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듣고 나는 그 후 꼬박 집에 숨어 살면서 누가 찾아오면 7월말에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다고 말하게 하고 난 천장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러한 숨바꼭질 생활을 40여 일 동안 거둬하는 사이에 다행히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9월 28일에는 서울이 수복되게 되니 나는 곧 대학으로 돌아가 문리과대학 문학부장의 일을 맡아보면서 교육재건에 힘쓰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후퇴하게 됨에 따라 12월 25일에는 처가가 있는 대구로 가족과 함께 피난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살아남은 목숨을 나라에 바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그곳에 있던 공군본부를 찾아가 12월 31일에는 장교후보생으로 입대하고 훈련을 쌓은 끝에 이듬해 3월에는 소령의 계급장을 달고 정훈감의 일을 맡아보는 보람을 갖게 되었다.

★ 내가 겪은 6 · 25



나를 구해 준 청년

한 갑 수
<대한일보 전무·한글학회 이사>

6.25 당시 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겸 학생과장이었고, 중앙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교수였다. 학교를 사수한다는 의리 때문에 남하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래도 처음 며칠 동안은, 불과 열흘이 못 되어 국군이 권토중래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또 비록 한강 다리를 끊어졌지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건너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했기 때문에 초초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군의 패주가 너무나 빨랐다. 수원이 함락되고 대전이 함락되니 점점 희망이 흐려져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니 숨는 도리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됐다. 이층 서재에 책장 뒤에서 천장으로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집 짓는 목수도 알기 어려울 만큼 묘하게 돼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낮이면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중에 나와서 식구들과 함께 자곤 하였다.

햇빛을 보지 못해 얼굴은 창백하고 수염은 자라서 목을 가릴 정도가 되었다. 8월 중순 어느 날 먼동이 트기 전 아직 이층 서재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 왔는지 괴뢰군 세 명이 자는 내 얼굴에 총을 들이댔다.

“동무는 뭐하는 동무요?”하고 묻기에, “예, 학교 선생입니다.”했더니, “동무 옷 입고 우리하고 어디 좀 같이 가 줘야겠소. 어서 일어나오.” 한다. 끌려 간 곳은 효창 국민학교 대강당이였다. 의용군 결기 대회인지 뭔지를 하는데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만장일치로 의용군을 지원한 것이 되고 말았다. 판에 박힌 결기사가 있는 뒤에, 1,000여명의 제물(祭物)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반 편성으로 들어갔다. 나는 학교 2층 어느 교실로 끌려갔다. 이 불쌍한 목숨들은 끌려가기만 하면 10의 8 또는 9쯤은 죽고 못 돌아온다고 여기저기서 쭈군거린다. 너나 할 것 없이 도망갈 구멍만 찾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살벌하고 삼엄한 경계의 눈은 쥐새끼 하나도 놓칠세라 혈안이 되어 있다. 오줌을 누러 가는데도 무장한 감시원이 따라 다니고 있으니, 기적이 생기기 전에는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거기에는 나의 열째 처남이 나와 함께 잡혀 와 있었다(필자는 처남이 열두 명이나 있다). 처남은 인정 많고 예절 밝은 사람이어서 자기 걱정은 잊혀 놓고 내 걱정애 애가 타고 있다.

“매부, 나는 괜찮지만 매부는 이려고 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지.” “운순 걸 어떡하나? 어디 두고 보세.”

나도 체념적이었다. 그때였다. 눈이 반짝거리는 30세 가량의 청년 감시원이 내게 다가왔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묘한 질문을 한다.

“동무, 오줌 마렵지 않소?”
“예, 아직은 오줌 마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오줌 마려울 거요. 날 따라오오!”

세상에 이런 월권이 있을 수 있나, 기가 막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신세이고 보니 안 따라갈 도리가 없었다.

나는 근심하는 낯으로 지켜보는 열째 처남에게 눈짓으로 인사를 하고 그 감시원을 따라나섰다. 복도에 나서니 5m 정도로 늘어진 무장 감시원들이 일제히 노려본다.

“이 동무 소변보러 가는 길이요. 여보 동무 어서 따라 오!”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아래층에 내려서자 현관 쪽으로 간다. 나는 점점 수상하다고 느껴졌다. 그 청년이 딱 정지하더니 돌아서서 묻는다.

“동무, 동무는 한글학회 이사가 아뇨?”
“그렇습디마는 어떻게 아시는 거죠?”
“동무, 밤낮 국어 강좌 라디오로 하지 않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동무 같은 사람 올 데가 못 되오. 날 따라오오.”

하고 운동장을 지나 정문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만나는 괴뢰군 사병마다 모두 이 청년에게 경례를 한다. 정문엘 가니 완장을 패용하고 긴 장대를 가진 청년이 웃으며 인사를 하더니, 그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로 묻는다.

“선생님, 댁으로 가시려고요?”

그 청년이 날카로운 말로 문간 청년에게 하는 말이,
“이 동무 내보내 주오.”한다. 나는 너무도 뜻밖에 고마움을 당하고 보니, 어떻게 인사를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정문을 나서자 집으로 줄달음질을 쳤다.

나흘 만에 처남이 새가망게 탄 얼굴에 눈이 여산 칠십 리는 들어간 채 돌아왔다. 200명이 한강변에서 노역을 하다가 비행기의 습격을 받아 다 죽고 일곱 명이 산중에 자기가 끼었다는 얘기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청년은 97%의 사망률에서 나를 건져 준 셈이 된다. 그러나 생각하면 한글학회 이사라는 아무것도 아닌 타이틀이 나를 살려 준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그로부터 20여 년 아무도 위대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부럽다고 여기지도 않는 한글학회 이사라는 타이틀을 즐겨 쓰는 이유는 이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나를 구해 준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 ☆ ☆ ☆

★ 내가 겪은 6 · 25



사지(死地)에서 읽은 책

안 병 옥
<송전대 교수>

인간의 생명력은 무서운 적응력을 갖는다. 어려운 고비에 처하면 비상한 힘을 발휘하고 죽을 경지에 이르면 그 속에서 살아날 길을 찾는다. 범에 물려가도 제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속담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6.25를 겪은 사람은 누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남았을까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나도 그런 경험을 갖는다.

6월 26일 서울 거리에서 북한의 공산군과 많은 탱크를 보았을 때 나는 전신이 아찔하였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나처럼 이북의 지주의 출신으로 남한한 사람들은 붙들리면 그만이다. 게다가 나의 매부가 국군장교였다. 그 당시 나는 서울 고등학교 관사에 살고 있었다. 우선 이 집을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전농동에 고마운 할머니님이 한 분 계셨다. 나의 친척들이 그 댁에 하숙을 하곤 하였다. 나는 동경 유학시절에 서울에 들르면 으레 그곳에서 머물렀었다.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외로운 할머니였다. 나를 꽤 좋게 생각하였다. 나도 그 할머니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따랐다. 할머니님댁에 피신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네 살짜리와 두 살짜리 딸 둘을 데리고 그 할머니님댁을 찾아갔다.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할머니님은 반장 일을 보고 있었다. 공산당의 사정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반에서 의용군을 잡아가는 일 인민 위원회의 소위 반동분자의 숙청 등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댁의 안방에 숨어서 살았다.

검문이나, 가택 수색이 있을 때에는 미리 알고, 천정 밑의 골방에 들어가서 늘 숨곤 하였다.

그 할머니는 이 댁에는 남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가택수색 온 공산군을 잘 달래어서 보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단데없이 가택수색을 왔다. 나는 골방에 숨었다. 공산군 수색원이 방안에 들어와서 살피기 시작했다. “이 집에 남자가 있지” “없습니다.” 할머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누가 고자질을 한 모양이다.

어린 두 딸은 놀라서 잠이 깨었다. 나는 딸과 같이 자고 있었다. 나는 베개를 감추고 다락방의 짐을 많이 싸놓은 뒤에 가서 숨었다.

만일 내 딸 중의 하나가 “아빠”하고 나를 부르지만 하면 나는 꼼짝 못하고 잡히는 것이다. 나는 골방에 숨어서 숨소리를 죽이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기게 해 주십시오. 나의 딸이 아빠라고 나를 부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방안에는 아슬아슬한 긴장의 순간이 계속했다. 그 수색원은 방안을 휘둘러보고 내가 숨은 골방문을 열었다. 전지를 유심히 비치고 살폈다. 나는 짐 뒤에 빠져 누워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수색원은 나가 버렸다. 할머니가 내려오라고 했다. 나는 내려와서 내 두 딸을 보았다. 그들이 아빠하고 나를 불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붙잡혀 가지 않고 살아난 셈이다. 딸들이 고마웠다. 어린애들도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순간이 다가왔음을 육감으로 직감한 모양이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어린 딸들을 품에 안고 혼자 울었다.

나는 숨어서 석 달 동안 책만 읽었다.

그때처럼 책을 많이 읽은 일이 없다. 지금도 그 당시의 책을 읽고 기록한 메모를 보면 감개가 무량하다. 죽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내 이성과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게 견뎠는가를 시험하면서 나는 줄곧 책을 읽었다.

이것은 내가 겪은 6.25의 고난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 20여 년이 지나간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하면 위협과 고난과 불안이 가득 찼던 생활이 한낱 추억으로 남는다. 다시는 6.25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다.

흡연과 비행적성

■담배는 과연 해로운가?■



대 령 박 경 화

(1) 서 론

담배는 과연 유해한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 내지는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 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대답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유해 또는 무해 심지어는 유익론까지 나올 정도로 찬반이 구구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새삼스럽게 담배의 해독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이 글에서 시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현존하는 보유전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적이 흑시 시도하려 들지도 모르는 공중침투나 대대적인 도발이 있을 때 이를 단숨에 분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당면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는 그 핵심이 되는 사람 즉 장병 개개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병이 되어 성공적으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시간의 긴박성을 말할 때 분초를 다룬다는 말이 있으나 초현대항공기를 다루는 조종사에게 있어서는 분초가 아니라 몇 분의 1초가 왕왕 문제되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몸에 사소한 해독이나 불리한 영향이 미치는 일이라면 결단코 이를 허용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배가 공군 장병 그중에서도 특히 공중근무자들에게 건강 유지나 능력 발휘 면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나쁘다면 그 이유나 해독의 정도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전력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흡연과 비행적성>

(2) 담배의 성분 및 생리적 작용

담배는 *Nicotiana Tabacum* Linne라는 학명을 가진 가지 과에 속하는 1년생의 식물로서 본래는 남미가 원산지이나 현금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흔히 재배되고 있다.

건조한 담뱃잎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역시 Nicotine이라 하겠다.

또한 담배연기가 입이나 기관지 또는 폐로 흡입되었을 때 Nicotine과 더불어 체내에 흡수되는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가 있다.

니코틴의 함유량은 담배의 종류, 산지, 기후, 저장처리, 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상위하나 대략 2% 즉 1mg의 담배 가운데 20mg의 니코틴이 함유된다. 그러나 저질의 담배인 경우에는 2.5%까지도 함유된다(청자담배 한 개비에 2.7mg, 신탄진 한 개비에 2.83mg, 켄트 한 개비에 0.7mg, 일본의 호프 담배 한 개비에 니코틴 함유량은 1.5mg임).

간혹 어떤 사람은 담배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이 담배가 연소할 때 함께 타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에 있어 담배가 타 때 니코틴이 타는 것은 극히 적은 비율에 불과하다.

담배연기를 들며 마시는 사람에 있어서는 한 개비당 약 2.3mg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된다. 또 담배 연기를 완전히 들며 마시지 않고 입에 담았다가 내보낸다고 할 때 상기량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니코틴이 구강점막을 통하여 체내에 흡수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실험적으로 1-2mg의 니코틴을 정맥 내 주입하면 직각적으로 심계항진 혈압 상승 등 신체증상이 발현되는데 보통인의 경우 50mg의 니코틴은 치사량이라고 본다. 상기 니코틴량은 20개비의 담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양임을 생각할 때 새삼 흡연에 의한 Nicotine의 해독이 부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산화탄소는 여하 한가? 개략적으로 담배연기 용적의 2.5%에 해당하는 체적의 일산화탄소가 산출되는바 그 약 절반이 폐포(肺胞)에서 체내(혈액)로 흡수된다(20-25cc의 절반인 10-15cc의 CO가 흡수된다). 보통사람에 있어서 혈색소(Hemoglobin이라고도 함)의 가스결합능력은 약 1,000cc이므로 단 1개의 담배 흡연으로 이미 전혈색소의 1-1.5%가 일산화탄소에 의하여

<흡연과 비행적성>

결합되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일단 흡수되었던 일산화탄소는 그 후 다시 점차적으로 체외로 배출되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20-3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혈액소의 4-8%는 언제나 일산화탄소에 의하여 묶여 있는 셈이다.

실험적으로도 Barach의 보고에 의하면 수 시간동안 심심치 않게 담배를 피운(피험자) 자의 경우 혈액소의 5-10%가 일산화탄소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심한 두통과 같은 뚜렷한 증상은 혈액소 내 일산화탄소가 약 20%에 달해야만 시작되지만 야간 시력, 근조절(筋調節) 특히 고공환경에 대한 인력(忍力)은 비교적 소량에서도 이미 명백하게 나타난다.

(3) 담배와 생리적 고도

인체는 부단히 호흡운동을 계속하는바 그 유일의 목적은 외계의 산소를 체내로 섭취 흡수하고 노폐물로서의 CO₂ 를 체외로 배출하는데 있다. 그런데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은 적혈구 내에 있는 혈액소라는 물질에 의존한다. 한 가지 문제는 일산화탄소는 혈액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210배나 강력하기 때문에 소량의 일산화탄소가 존재하는 한 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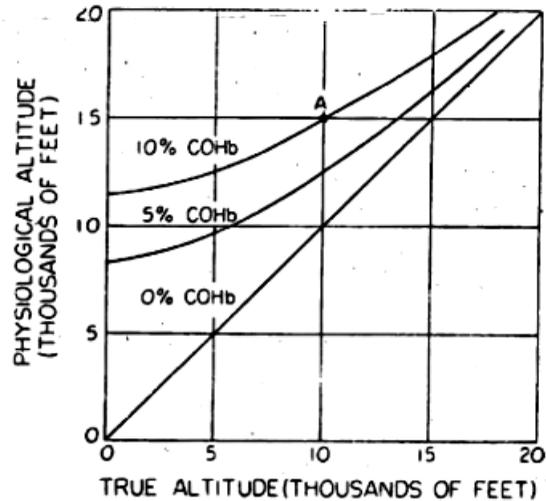


그림1

<흡연과 비행적성>

소의 산소 운반능력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저하를 면치 못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체 각 조직 또는 장기(臟器)에서는 산소 부족증을 약기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조종사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항공생리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한 흡연으로 인하여 혈액소 중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각 5%, 10%의 경우 항공기의 실제 비행고도에 비하여 생리적(인체) 고도는 약 4,000피트 내지는 5,000피트 정도 높은 고공환경에 처해 있는 것과 꼭 같은 상태에 폭로된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생리적으로 무리한 상태를 빚어내는 원인으로서는 일산화탄소의 배설은 6시간을 경과한 다음에야 겨우 시초의 양보다 약 절반으로 감소한다. 그러므로 심한 Smoker에서는 흡연 후 24시간 이후에도 상당량의 CO가 혈중에 잔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다음으로 Mcfarland에 의한 실험 보고에 의하면 3개비의 담배를 약 30분간에만 개비의 비율로 피웠을 때 눈의 광도에 대한 감수성 저하가 현저한바 이것을 고도로 환산 표시할 때 약 8,000피트 고도에서의 감수성 저하와 비교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비 흡연시마다 혈중 CO 포화도는 15% 정도씩 상승하여 야간시력에 관한 한 고도로 환산할 때 약 2,500-3,000피트 상승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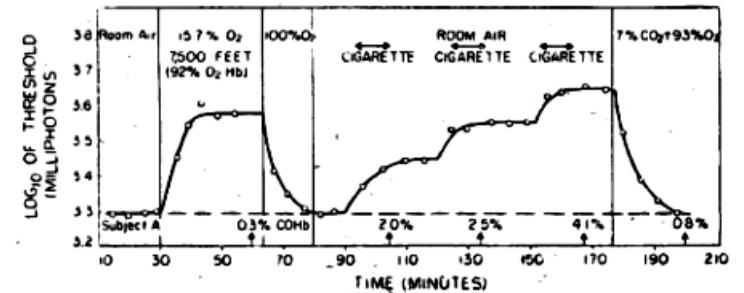


그림2

<흡연과 비행적성>

한편 Euhl 및 Lin 등에 의하면 저압공 비행 시 담배를 아침부터 금연한 날에는 고도인력(高度耐力)이 20,000-21,000피트에 달하나 아침부터 자유로이 흡연한 다음 저압공 비행을 한 경우에는 불과 16,000피트의 고도인력밖에 갖지 못하였다 한다.

(4) 담배와 순환기(循環器) 질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매분 10-20회 만큼의 맥박 수 증가를 나타낸다. 이 숫자는 50년 동안을 흡연한다고 치면 근 5억 회의 잉여부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맥박수의 증가 이외에도 혈압이 상승한다. 그 이유는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인바 수축기 혈압이 사람에 따라서는 10-20mmHg 정도나 상승할 수 있다.

미국 보건성(U.S Public Health Service)에 의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심장병(CHD)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흡연자에 있어서는 심장의 관상동맥경화증(冠狀動脈硬化症)이 많이 발견되고 "RISK FACTOR"가 70%-200%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말초혈관 특히 피부혈관의 수축으로 말미암은 피부온도의 저하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중근무자는 입무 상 왕왕 한냉한 기온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에 Nicotine에 의한 체표온도(體表溫度)의 저하를 촉진함으로써 동상 기타 신체적 장애를 가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5) 담배와 호흡기 질환

후두염 기관지염 등은 흡연자에 있어서 비흡연자보다 월등 이병율(罹病率)이 많은바 이것은 장기간 계속되는 호흡기 계통 점막에 대한 자극에 기인함은 물론 세균감염에 대하여서도 저항력이 약화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어떤 연구에 의하면 폐 수술 후에 병발한 합병증에 있어서 흡연자에 있어서는 남자가 9%, 여자가 17%, 비흡연자에 있어서는 남자가 1.5% 여자가 3%였다고 함).

최근 미국에서는 담배갑 표면에 다음과 같은 경구를 명기하도록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즉 『각연(喫煙)은 건강에 해로우며, 폐암이나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음.(Caution Cigarette Smoking is Dangerous to your Health and may Cause lung Cancer or Other Disease.)』이라는 어구이다.

담배가 연소할 때 불가피하게 타르가 생성되는데 켄트(Kent)의 경우 타르 함유량이 13mg,

<흡연과 비행적성>

호프는 18mg, 청자가 33.1mg, 신탄진이 33.3mg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타르가 구강점막, 혀, 후두, 기관지 및 폐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어 왕왕 악성종양(惡性腫瘍), 암(癌)을 유발하는 수가 있다.

영국의 Doll 및 Hill이 700명의 환자(폐암)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병에 걸릴 위험성은 일일 호흡량에 정비례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1일에 25개 비 또는 그 이상을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50배의 위험성(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6) 담배와 소화기 질환

담배가 소화기계통에 어떤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108명의 위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궤양발생 후 계속 흡연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전체의 53%, 흡연을 즉각 중단한 경우 12%, 지금까지 단 1회의 흡연도 하지 않았다면 18%가 재발하였다 한다.

혹자는 체중조절의 목적으로 담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니코틴이 식욕을 다소 감퇴시키는 점과 또 공복감이 심할 때 담배가 위의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소의 이점은 상술한 제유해점과 상호 비교검토 되어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타 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7) 결론(담배와 신체적 적성)

비행 안전 또는 최대의 비행능률을 얻기 위하여 항공기의 정비, 항공규정의 운영 면에 있어 나사못 하나하나 규정 어구 한 자 한 자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주의와 관찰을 하는 반면에 사람의 최량조건 유지를 위하여는 솔직히 말해서 시정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담배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담배로 인한 신체적 적성 내지는 비행능력에 미치는 저해요인 및 그 범위는 이제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금연 내지는 절제를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있다.

후자는 반론할지도 모른다. 즉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꼭 이로운 것만 골라가면서 할 수 있느냐고…… 때로는 뻔히 나쁜 줄 알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인생의 멋일수도 있다고 한다.

<흡연과 비행적성>

공중근무자라고 만인이 즐기는 취미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매우 참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담배는 유익은 없으면서 특히 곤란한 것은 습관성이 있어 일단 인이 백이면 참기 어렵다는 심리적 문제까지도 겹쳐서 가일층 공중근무에 방해가 된다.

Armstrong의 보고에 의하면 미 공군에서 17,000피트 고공에서 무모하게도 산소마스크를 벗고 2개비의 담배를 피운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추락 사고를 낸 사고 예가 있다. 이 조종사는 17,000피트 고공에서 공교롭게도 항공기의 Cabin Pressurization System이 고장난 것을 인지 못 한 채 고성능 단좌전투기로 고공 비행 중에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운다는 것과 같은 보통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이다. 그만큼 담배에 대한 욕구가 컸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일까? 본인도 모르는 동안에 담배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즙을 먹어서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병강군을 이룩하는 요체는 우선 장병 각 개인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장 우수한 전쟁준비태세로 완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Mcfarland, Ross; Human Factors in Air Transportation
2. Barach, A.L etal; Modification of resistance to anoxia with especial reference to high altitude flying. Am . J. Med. Sc, 202;336
3. Ruhl, A., Lin, P.; Zur Frage der Kohlen Oxydintoxication bei Starcken Rauchern. Deutsche Med. Wchnschr, 62:493
4.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ublic Health Service; The Consequences of Smoking
5. Armstrong, Harry; Aero-Space Medicine.

◀연 제▶

소련의 군사전략.....⑨



중 령 이 중 학 편역

가) 전략 미사일에 의한 핵공격

이것은 근대전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것이다. 적의 전략적 핵무기, 경제, 행정 및 군사의 중추기관에 대한 대량의 핵공격과 이와 동시에 행하는 전장에서의 적 군대의 격멸에 의해 종래의 전쟁보다는 정치적인 전쟁 목적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경우, 우리 군대는 이러한 전략작전의 형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서방 진영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 전쟁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 영토에 대한 핵공격에 의하여 도시, 공업지대, 그 지대 내의 목표, 통신연락망의 전면적 파괴와 일반 민중의 대량학살을 실시할 것이다. 그 주요한 목적은 경제와 전쟁을 위한 무기를 파괴하고, 정치 중추를 분쇄하여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켜 항쟁의지와 능력을 타도하는데 있을 것이다.

커다란 파괴력의 무기—핵무기와 기타 대량 파괴무기—를 사용하여 제국주의 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조직을, 그리고 사회주의 국내에 사는 전 인류를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계획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소련의 군사전략>

에컨대 키신저는 그의 저서 핵무기와 외교정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전쟁의 승리가 적의 공업을 파괴하고 국민의 사기를 좌절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영국의 기본적인 주의가 되었고, 미국의 전략사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국방성 속에는 전략 핵무기의 공격목표를 계획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다. 이 부서는 사회주의의 여러 국가 속에서 핵 공격을 가지고 전멸시키려는 모든 중요목표를 선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계속 감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기 위하여 전략 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판명한 모든 목표는 전략항공부대, 항공부대, 전술 항공부대의 탑승원, 미사일 기지와 미사일 장비, 잠수함의 승무원에게 각각 할당되어 있다. 미사일 발사기지와 핵폭탄을 장비한 지상 및 공중에 대기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임전태세에 있고, 통신과 경보 등의 조직이 작성되었다. 이상이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가 제국주의 진영의 군사와 경제기지, 정치와 군사의 통제 기관과 군대에 대해서 대량 전략적 보복공격(Massive Strategic Retaliatory Strikes)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들의 전략은 이것이 전략작전의 주요한 형태라고 생각하며, 침략자에 의해서 개시될지 모르는 미래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형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에 의해서, 제국주의 연합의 경제 전쟁기지, 그들의 전략 핵무기(즉 전략 항공부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술 폭격기와 해군부대의 배치된 곳, 핵탄두, 전쟁물자의 비축지, 부대의 집결지, 군 주력의 주둔지, 전략 예비, 정치와 군사상의 중추기관이 있는 적국의 주요한 지역을 황폐화할 수 있다.

이 군사작전의 기본적 형태의 목적은 적의 핵무기를 파괴하여, 제국주의 연합의 군사능력을 저하시켜, 적의 경제 전쟁기지(Economic War base), 정치와 군사상의 중추기관을 파괴하여 적의 군사적 정치적 잠재력을 파괴하는데 있다. 강력한 열원자핵과 핵탄두를 실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장비된 전략 로켓공과, 핵탄두를 붙인 미사일을 장비한 원거리 항공부대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한 무기이다.

공격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는 전략 항공기지일 것이다. 전략 공군의 기지는 대단히 상하기 쉽다. 비행장은 광대한

<소련의 군사전략>

지역을 점하고, 또 그러한 내용의 전부가 잘 알려져 있다. 전략 공군으로부터 비행장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오늘날 미사일 기지와 발사진지도 대단히 상하기 쉽다. 1943년과 44년 초에 영국이 독일의 대부분의 V-1 미사일기지를 보통의 폭탄을 사용한 항공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데 성공하였다면 핵탄두를 붙인 미사일을 사용하여 미사일 발사진지를 파괴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폴라리스-미사일을 장비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외국의 신문은 크게 선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 잠수함이 미사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손해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무기도 상하기 쉽다. 잠수함이나 수상함정에서 발사되는 자기유도 미사일은 미사일 장비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유효한 무기이다.

미사일을 운반하는 항공기도 핵 잠수함의 약점, 특히 미사일 발사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이용하여 이것을 공격할 수 있다. 더욱이 로켓트군에 의한 공격으로 잠수함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물론 적의 핵무기를 전멸하는 임무는 확실히 실행되어야 한다. 미리 적의 항공기지, 미사일 발사진지, 핵무기의 저장과 보급의 기지, 연료 저장소와 지휘 중추를 확실히 정찰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

적의 군사경제 잠재력의 파괴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열쇠는 적의 경제파괴에 결정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이다. 거기에 최초의 대량 핵미사일 공격이 전쟁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 진영의 군사경제기지는 핵미사일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전쟁 수행을 위한 주요 경제기지는 미국 내에 있다. 제국주의 진영의 기본적 생산시설(즉 핵무기, 미사일, 항공기, 전차, 선박, 무기, 기타의 무기)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은 군사작전의 군수품의 기지가 되어있다. 제2의 제국주의 진영의 경제 전쟁의 기지는 서독이며, 그 국가는 중요한 공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어느 정도 커다란 공업력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의 인적 자원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제국주의 진영의 경제의 몰약점 속에는 적은 지역에 고도의 공업이 집중되어 있고, 수입에 의존하며, 보급선이 상하기 쉽다는 것이다.

<소련의 군사전략>

미국은 원자원료와 비철 금속과 희금속을 수입에 의존하고, 영국은 철광석, 석유, 원자원료, 식량, 비철 금속과 희금속 등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

나) 육상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이 작전은 원거리 핵무기(Long-Range Nuclear Weapons)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전쟁에 있어서 넓은 범위에 걸칠 것이다. 적 부대의 최종적 격멸, 영토 점령, 적절한 질서의 확립, 모든 전후 문제의 평화적 조정은 지상군의 작전 결과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서방측은 작전 전구(Military Theaters)에서 침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대한 지상부대, 전술공군, 전술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부대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경에 연하여 중심 1,000킬로에 걸쳐 공격의 태세로 전개될 것이리라.

육상 전장에서의 군사작전의 주요한 목적은 적군의 결정적 격파, 중요한 지역 목표의 탈취, 적 영토의 점령과 적 지상부대의 사회주의 국가에의 침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장래의 세계전쟁에 있어서 지상 전장의 기본적 무기는 핵무기이며, 주로 작전 및 전술 미사일과 제1선의 항공부대(폭격기, 전투폭격기, 전투기)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전략 로켓군과 원거리 항공부대는 일선전대의 중요 목표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하게 된다. 공정작전(Airborne Operation)은 널리 실시될 것이다. 중전과 마찬가지로 전차부대는 야전 전장에서 널리 사용될 것이다. 차량화 보병(Motorized infantry) 이미 전투의 여왕은 아니지만, 전투상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 핵무기의 화력이 야전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무기는 적을 결정적으로 격파하기 위해 핵공격의 전과를 사용할 것이다.

전장에서의 전투의 주요 목표는 적의 핵무기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오늘날 전장에 공세를 하든, 수세를 하든, 어떠한 군사작전의 실시도 성공하지 못한다. 동시에 적의 전차 공정부대, 기계화 사단의 격멸도 여전히 중요한 임무이다.

장래 지상 전장에서의 군사작전의 특징은 일련으로 연속된 전선에 전개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작전은 동시에 제1선에 연한 넓은 지역에 중심에 걸쳐 발전할 것이다. 어느 정도 군사작전이 개개로 분리하여 실시될 것이다.

전장에서 전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부대 이동을 위해 대기동이 실시될 것이다.

<소련의 군사전략>

그리하여 자동차, 헬리콥터, 항공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이다. 화력과 핵공격의 이동도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전투는 대단히 치열하게 실시될 것이며, 군대의 대량 격멸, 방대한 손해, 고도의 방사능에 의한 광대한 오염지대가 생길 것이다.

지상 전장에서의 양군은 주로 공세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세가 공세에 비길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면, 장래의 전쟁에 있어서 공세는 한층 더 우세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세에 대항하는 전투수단으로서의 수세는 전장에서 살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세와 수세의 한계선은 2차 대전 때처럼 확실치가 않을 것이다.

(다) 공세작전

이 작전은 지상 전장에 있어서 전투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작전은 여러 병과의 연합군과 전차군에 의하여 실시될 것이다. 작전 및 전술 미사일 부대, 핵탄두를 장비한 제1선 항공대는 전투 임무 실시를 위한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전차, 차량화 보병, 공수부대도 사용될 것이다. 2차 대전 중, 공세는 일반적으로 준비된 진지전의 방어진지에서, 그리고 가장 완강한 지대는 보병, 보병화기, 대전차포, 대포와 박격포를 배치한 전술 지대가 있는 곳에서 실시되었다. 최초의 임무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많은 부대—포병, 전차, 보병—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었다. 대량의 공중공격도 지향되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돌파구에는 주로 전차부대로 구성된 기동부대가 투입되었다.

미래의 세계전쟁, 특히 그 초기에 있어서 교전국은 지상 전장에서 주로 공세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근대의 핵무기, 전차, 차량화 보병, 공수부대 등의 대 기동력을 고려한다면 공세작전은 고립된 전투와 조우전(Meeting Engagement)의 복합된 것이 되어, 이것이 때때로 발생하는 특징이 예상된다. 장래의 공세에 있어서도 수세에 의하여 저지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수세의 성공은 원자포병, 미사일,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술 항공기, 대전차 무기(대전차 유도 미사일) 및 대공 미사일의 화력에 의한 것이다. 보병사단과 전차사단은 그 주력을 후방에 전개하여 전선에는 음호부대만 배치할 것이다. 방어지대는 100킬로미터의 중심에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방어의 제1선 진지의 돌파는 제2차

<소련의 군사전략>

세계대전 때와 같이 복잡한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심 깊게 공세를 진행하는 것은 공격 부대가 적 부대와 핵의 강력한 반격을 맞게 되어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될 것이다. 공격부대의 주 임무는 원자, 포병, 미사일, 전개 전 지역에 걸친 전술 항공부대의 파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있는 지역은 작전 및 전술 미사일, 제1선 항공기의 유효거리 이내에 있어서 미리 이것을 정확하게 탐지해 두면 빨리 핵공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 핵 공격 직후에 공수부대가 착륙하고, 전차부대가 신속한 공격을 개시하고, 전략 미사일 부대의 공격지역까지 신속히 돌진해서 작전의 최종 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다. 적의 보병사단과 전차사단은 핵공격과 전차 및 차량화 부대의 신속한 작전에 의하여 무력화 내지 격멸해야 한다. 그러나 후방진지에 대한 공격은 제2차 대전 때보다 더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방어의 주요 무기, 즉 핵무기가 방어의 광대한 지역 전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세를 위한 부대의 편성, 공격의 방향, 공격지대의 넓이, 작전의 깊이와 공세의 속도의 문제는 2차 대전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공격부대는 제1선에서 상당한 거리의 떨어진 후방에 집결된다. 작전부대 편성의 골간은 핵 부대, 전차군과 여러 병과의 연합 부대로 구성된다. 전차군은 주요방면에서 제1제단으로서 작전을 한다. 이 전차군의 기본적 목적은 훨씬 깊숙한 곳까지, 즉 작전의 최종 목적달성에까지 신속하고 지체함이 없이 돌파 진격하는 것이다. 각 병과의 연합 부대도 적부대의 격멸을 완성하기 위해 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공세는 대항하는 적 부대를 분단하여 축차 전멸하기 위해 목적을 정해서 여러 방향에서 지향한다. 그러나 공격부대의 주력은 주 결전 지역에 집중되어야 한다. 중점 지향의 지대는 주로 핵공격이 지향되는 지역과 주력이 전진하는 방향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부대의 공격지대는 확대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의 지도자는 보병의 1개 사단이 10-20킬로의 정면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유효한 정면은 12킬로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1개 야전군의 공격 담당 정면은 100-160킬로 생각하고, 공세는 각 방향에 대해 그 사이에 넓은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적 부대는 미사일 부대와 항공부대에 의한 핵공격에 의해 파괴한다.

<소련의 군사전략>

야전 전장은 비교적 공백이 될 것이다. 부대는 넓게 분산되어 넓게 기동하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미래전의 공세작전은 대단히 급속도로 실시될 것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부대는 연습의 경우, 하루 60-70킬로의 속도로 공세를 실시하고 있다. 아군의 전차와 차량화 부대는 더 높은 진격속도를 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의 핵무기에 대해 연속적으로 전투를 실시하며, 그 저항 중추 공격부대가 적과 접촉할 때까지와 적의 반격부대에 핵공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 진격 부대는 계속적으로 항공기, 기술 및 화학무기 등에 의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공세는 주로 전차, 장갑부대 및 헬리콥터로 실시한다. 도보공격(徒步攻撃)을 사용하는 것은 드물다. 기동 병력의 화력과 기동력은 지금 야전 전장을 지배한다. 적 전투부대의 중간에 돌파구와 틈을 찾는데 노력하며, 적의 측면과 배후에 공격을 지향하며, 적을 분단, 포위, 그리고 신속히 적 부대를 파괴하거나 포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의 저항 중추(Centers of Resistance)를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 저항 중추는 핵공격에 의하여, 혹은 아마도 차폐진지(Defilade Position)로부터의 미사일, 포병, 화력, 또는 전차화력의 집중으로 파괴하게 된다.

작전 중, 전술 및 작전 공정부대의 강하가 널리 사용된다. 공정부대의 강하는 핵의 대량공격의 효과를 즉시 이용한다든가, 적의 핵무기, 중요한 목표, 도하점, 건설 구역, 산의 고개, 애로(隘路)가 있는 지역을 점령한다든가, 다른 수단으로 처리 못하는 전략 목표를 파괴하는 등의 임무에 사용된다. 헬리콥터는 주로 전술적 낙하산 강하를 위해 사용한다. 전술상의 강하라면, 수송기가 사용된다. 중심 깊이 규모가 큰 공정부대의 강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차 반격, 항공기 그리고 미사일의 공격에 의해 적의 방공화력을 무력화 할 필요가 있다.

근대전의 대단히 복잡한 문제는 방사능의 질은 지대를 통과하는 일이다. 장애의 적은 우리 부대가 공세를 취하려는 지역에 지상의 핵폭발을 실시하여 장애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핵공격에 의한 방사능의 오염도 피할 수 없다. 부대는 방사능의 질은 지대를 우회해야 한다. 이러한 지대를 우회할 수 없을 경우, 부대는 전차 혹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 밀폐된 차량이나 또는 헬리콥터나 항공기로 통과해야 한다. 특별한 지역은 방사능의 정도가 약해진 후에 부대가 통과하며, 다음에 핵과 화학의 오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련의 군사전략>

부대는 작전 중 적의 핵공격에 의한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단 이하의 각 부대 전부가 작전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작전의 진전 속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아군의 높은 전투 능력, 그 무기와 장비, 특히 미사일과 전차, 전차와 차량화 부대의 기계력은 미래의 전쟁에서 결정적 목적을 가지는 공세의 실시가 성공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 수세 작전

수세 작전도 역시 미래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은 공세작전 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간, 특정한 지역에서 그리고 특정한 전장에서 실시 수세에 설 상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수세작전을 완전히 실시하는 방법을 습득해야만 한다. 소련의 군사전략이 전략적 수세와 수세전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전 및 전술상의 방어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어는 여전히 명백하게 중요하다. 전쟁 중 우수한 적부대의 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작전상의 수세는 화력, 유리한 지형, 인공 장애물 등을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아직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방어의 조직과 그 실시 방법에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두어야 하겠다.

근대전에 있어서 지상 작전장에서의 수세는 시간을 벌고, 병력을 절약하고, 전과(戰果)를 통합하고, 많은 경우 우세한 적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군사작전은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수세라는 것은 상황을 공세에 의하여 유리하게 바꾸지 못할 경우에만 취해야 한다.

2차 대전 중, 수세는 연속하는 전선에 연하여 조직되었고, 그 속에는 제일선에 편행하여 많은 진지나 지대가 있었다. 방어부대의 주력은 전술적 전선 지대 내에 전개되었다. 주된 지역 속에 부대가 많이 집결하고, 포병, 대전차화기가 배치되고 대전차와 대보병 장애물이 설치되었다. 참호와 교통호는 진지와 방어지대 내의 기본적인 축성(築城)이었다. 미래전에서는 이러한 방어의 지할 수 없다. 그것은 적의 공격에 대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격부대는 그와 같은 방어지대 내에 핵공격에 의하여 커다란 틈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오늘날의 상황 하에서, 방어는 미사일과 핵무기가 사용되며, 지상부대가 기동을 실시한다는데 기초를 두어야 한다. 부대나 무기를 두텁게 전개한 방어진지나 지대를 연속시킬 필요는 없다.

<소련의 군사전략>

부대는 주요한 지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지구나 위치에 분리한 진지를 점하며, 전선에 연하여 분산하고, 특히 중심배치를 취해야 한다. 그와 같은 지역의 틈에는 미사일 부대의 화력, 항공부대의 작전과 장애물로 메워야 한다. 방어부대의 주력은 방어지역의 후방에 위치하고, 종래와 같이 제1선에 가까이 배치하지 않는다.

방어는 첫째, 핵 대책을 필요로 한다. 즉 핵공격의 파괴력에 대해 인원, 장비를 최대한도로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부대나 장비가 있는 장소에는 대 핵 보호의 시설을 한 음호부(개인호, 참호보다 더 저항력이 있는 구축물)를 갖출 필요가 있다.

방어를 조직함에 있어서 대미사일과 대공(對空)의 양쪽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방어에 입하는 부대, 미사일부대의 발사 위치, 비행장, 지휘 본부, 후방의 목표는 대공화기나 대미사일 방어화기에 의해 확실히 보호되어야 한다.

최후로, 현 상황 하에서 방어상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전차공격을 견디는 힘, 즉 대전차 방어의 완전을 기하는데 있다. 이것을 위해 대전차 무기, 특히 적 전차 파괴를 위한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대전차 무기의 커다란 효력에 의하여 적 전차의 공격을 실패시키는 많은 기회의 획득이 가능하다.

공세작전 실시의 성공은 가능한 한 적이 준비한 공세를 분쇄하거나 또는 크게 약화하기 위한 결전을 실시함으로써 획득된다. 이를 위해 핵공격과 더불어 적이 부대를 전개하고 최초의 진지에 배치되었을 때, 적을 파괴하기 위해 재래의 탄약을 사용하는 공중공격이 필요하다. 적의 공격준비태세가 갖추어진 순간, 대량의 미사일 핵과 공중공격에 의해 적의 주력과 주요 무기를 적의 전술 항공기의 비행장,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적 원자포병의 발사진지, 적의 전차와 보병사단, 적의 지휘본부를 공격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 현대의 파괴화기는 준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경우, 적의 준비한 공세를 완전히 분쇄할 만한 결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적 부대의 공격은 방어부대의 화기에 의한 적의 파괴와 적 부대에 대한 결정적 반격에 의해서도 격퇴할 수 있다. 적의 공정부대 및 아군 방어진지 내에 계형(楔形)으로 친입해 오는 적 부대는 화기에 의한 공격, 역습, 후방부대의 반격에 의하여 격멸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방어 전투실시의 방법은 공격의 방법에 접근하는 것이다.

미국의 신문, 잡지는 지역과 선의 결전방어를 실시하는 것은

<소련의 군사전략>

특책이 아니라고 때때로 말한다. 그 대신 지연작전과 기동방어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소련의 전법은 현대에 있어서 방어의 기본을 가장 중요한 지구나 선의 결전 방어나 기동방어에 의한 작전을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전쟁 중 개개의 지구의 상황은 부대가 획득한 지역의 파괴. 즉 일시의 후퇴라는 희생을 지불함으로써만이 부대를 적에 의한 파괴로부터 구출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대는 수세작전의 실패 때문에, 또는 개개의 부대에 의한 지원의 효과가 없는 공세 때문에 후퇴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후퇴는 부대가 그 후의 작전에 가장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 있도록 때로는 신중히 행해질 것이다.

모든 군은 후퇴를 언제나 소홀히 하였다. 역사는 조직적 후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군대는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한 부대는 때때로 격파당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어서 러시아군은 분명히 손해의 대부분을 후퇴 중에 입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격하는 것만 배우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후퇴를 모르는 자가 후퇴하면… 싸움에서 패한다. 연속된 승리의 공격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어 종결된 일은 아직도 없었고 또 그 예외도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는 상급 지휘관의 명령 하에 질서정연하고 당황하지 않는 가운데 실시되어야 한다. 후퇴의 요결(要訣)은 전투를 속행하면서 갑자기 주력을 적으로부터 이탈시켜 강력한 후위(後衛)의 음호 하에 전장을 떠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 후퇴는 넓은 정면에 걸친 역습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핵공격을 가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후퇴는 연속된 선에 의해서 조직적 저항을 하면서 행하거나, 적의 공중 강하부대와 우리의 후퇴부대의 종대에 평행해서 전진하고, 우리의 종대에 돌입해오는 적 부대를 신속히 격파 하는 수단을 취함과 동시에 적의 핵무기를 격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 적의 핵공격에 대한 소련의 후방지역과 군의 방위

이 목적은 국가의 중요한 활동을 계속하고, 경제와 운수의 계속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소련군의 전투능력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주로 적의 핵무기를 그 기지에서 파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전쟁의 발발시, 적이 기습공격을 가했을 경우, 중요한 항공 및 미사일부대를 기지에서 파괴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

<소련의 군사전략>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목표에 대한 적의 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적의 공중공격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군사작전의 실시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주요한 후방과 정치의 중심, 중요한 공업목표와 지구, 전략자재의 예비, 교통중추, 정부와 군의 중추, 전략 미사일의 발사기지, 원거리 항공기와 수송기의 비행장, 해군기지, 예비군의 동원과 훈련의 중추, 그리고 부대 등에 대하여 확실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적의 핵공격에 대해 이상의 목표를 보호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대량의 손해를 방지한다는 또 하나의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적의 공중공격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을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방향에서 침공해 온다든가, 하나의 좁은 지구나 여러 방향에서 넓은 지역에 걸쳐 우리의 방공부대의 방어망을 돌파한다든가, 극단으로 높은 고도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든가,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레이더 대책을 취하든가, 양동작전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적의 작전의 모든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융통성이 많은 방공(防空)만이 효과적인 것이다. 근대의 대공무기—대공 미사일, 전투기, 전자 장치—는 우리들이 음호하고 있는 목표에, 접근하는 도중에서 적의 항공기와 항공기에서의 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실패시켜, 그 항공부대의 주력과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방어의 성공은 모든 이 부대와 무기의 교묘한 사용과 전투 잠재력에 달려 있다.

제2차 대전의 경험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한 전투는 모든 대공부대와 무기의 통합사용에 의해서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증명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의 독일의 V-1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 속에는 레이더와 시각 탐지 조직 그리고 전투기가 작전하는 외부의 제1 방어선, 고사포를 배치한 제2방어선, 기구(氣球)를 사용한 제3 방어선이 있었다. 그 후 대공방어는 크게 진보를 거두었다. 근대의 대공 미사일, 요격 전투기, 신형의 레이더, 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비행 중의 탄도 미사일을 파괴한다는 것은 가장 복잡한 문제이다. 제2차 대전 중, 영국은 독일의 V-2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당시의 기술로서는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소련의 군사전략>

소련의 내륙과 군대는 국토 방공군의 대공작전(對空作戰)에 의해 적의 공습에서 보호된다. 개전 초기, 적의 기습 공중공격을 완전히 실패시키는 최초의 방공작전은 전쟁 수행의 성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방공작전을 실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격해 오는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전자무기에 의해 탐지한다.
- ② 공중목표에 적극적·소극적 방해로 가한다.
- ③ 국경으로 오는 접근로에서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 전투기로 저지한다.
- ④ 적 항공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들 항공기를 파괴한다.
- ⑤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이 우리 측의 가장 중요한 지구나 목표에 접근하는 도중, 전투기와 협동하여 원거리 대공 미사일로 이것을 파괴한다.
- ⑥ 우리와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는 항공기와 미사일의 주력을 저지하고 파괴하기 위해 요격 전투기를 집중한다.
- ⑦ 우리의 엄호 목표에 돌과 접근해오는 모든 고도의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대공 미사일, 전투기, 대미사일, 미사일로 완전히 격멸한다.
- ⑧ 전투기로 귀환하는 적기를 추격하여 완전히 격멸한다.

방공작전의 실시의 성공은 모든 대공대미사일 방어무기의 활동과 기동력, 공격해 오는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의 주력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무기를 주요한 지역에 신속히 집중하는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나 대공과 대미사일 방위조직이 아무리 유효하다 해도, 민간 반공부대가 신속히 핵공격에 의한 결과를 제거하고 핵공격을 받을 만한 지역에서 주민들을 철수시키고, 긴급 의료반을 편성, 소화(消火), 질서의 회복 기타 긴급사항을 수행하는 준비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한다. 특별 민간방위 그룹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민 전체가 적의 핵공격의 경우에 생기는 상황에 대처할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군사 목적으로 우주를 사용하는 문제

1958년 미국 국방성 내에 고등연구기획국(AEPA)이라는 특별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군사목적에 대해 우주정복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시켰다. 그 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설립되었다. 미국의 신문, 잡지는 공연하게 보도하기를,

<소련의 군사전략>

“우주는 내일의 전략의 장”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미국은 우주비행체를 주로 한 정찰과 스파이를 위해 사용하며, 이미 실용의 수준까지 위성(衛星)에 의한 정찰법을 확립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전쟁은 만약 제국주의가 그것을 시작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핵전쟁이 되며, 인류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제2차 대전을 포함한 과거의 전쟁과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핵무기와 군사 경제기지를 파괴하고, 정치와 군사상의 조직을 분쇄하며, 서방측의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 보복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은 전략 로켓군과 원거리 항공부대에 의한 적 연합의 가장 주요한 국가와 적의 군사경제력의 기초를 이루는 지역과 목표에 대량 핵공격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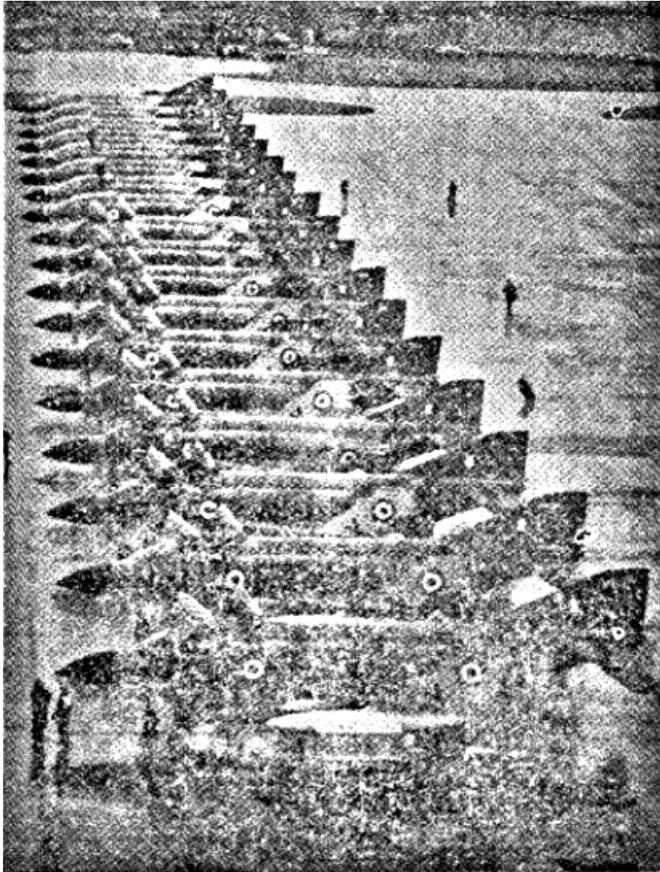
근대전쟁의 승리는 모든 군사작전의 통합과 사회주의국의 전 군대의 완전한 중앙통제에 의해서 달성된다. 모든 작전은 최고 통수부의 통일·계획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미래전을 실시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을 잘 습득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군대를 전투상비의 태세에 둔다는 것은 근대전쟁에 있어서 적에 대한 승리를 보장한다.

<다음호에 이음>

<박 대통령 문언록>

◇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도전 속에서 인간이 그들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 전쟁 이 아니라 평화를, 압제가 아니라 자유를, 그리고 무지가 아니라 지성을 추구하여 피어린 승리를 거둔 도정이다.

◇ 공산주의자들은 과학을 모독하고 있으며 인간 정신에 도전하고 있다. 신도 그들의 흉악스러운 발톱이 더 이상 우주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치 않을 것이다.



세계의 공군력<구라파 편>

25년간의 평화

제1차 대전의 결론을 지은 벨사유 조약이 1919년 6월에 조인되었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프랑스 휘슈 원수는 “이것은 오로지 20년간의 평화조약이 되었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한다.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이와 같은 예언은 그 후 정확하게 적중 그 후 20년—1939년 9월 1일, 독일군은 폴란드로 밀고 들어가, 구라파와 또다시 대전란을 벌렸다.

여기서 오늘날, 구라파에서는 NATO와 왈사와 조약기구의 반목이 있었으며 전후 이미 25년간의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 평화가, 역시 제2차 대전 전의 “휴전기간”과 꼭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인지는 문제가 되겠으나 오늘날의 세계정세에는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전반에 걸쳐 그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로카르노조약과 오늘의 독소 조약, 당시의 제네바, 런던의 군축회의와 현재의 군축회의, 미국의 경제적 귀결 등도 그 유사한 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아폴로의 달 착륙, 지난날의 린더바그의 대서양횡단 성공(1927)에 당시의 사람들이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낸 것이 기억에 생생한 것을 회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이 제2차 대전에 돌진한 그 근본 이유에는 벨사유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과연 현재의 독일인이 나라의 반을 소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지금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서독은 년 14% 이상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편, 소련은 8% 정도의 성장률밖에 없으며 군사력의 차는 다소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의 동구라파의 지배는 날이 감에 따라 원주민중(元地民衆)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 예상되며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할 경우, 독설이나 동구의 현상이 고정화하여 평화가 계속된다고 만은 볼 수 없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는 구라파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현재의 구라파의 군사체제, 군비의 상황을 알아둔다는 것은 장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여기서는 중요한 공군력의 현황만을 살피기로 한다.

NATO의 제국

구라파를 동서로 양분하여 서로 반목하고 있는 두개의 집단안전보장, 즉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왈사와 조약기구는 세계 최대의 군사기구이다.

NATO에는 미국,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태리,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희랍,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의 15개국이가 입하고 있다.

한편, 왈사와 조약기구에는 소련, 폴란드, 체코,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7개국이다.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국민총생산 1,000억 불 이상의 즉 “경제대국”중 이 2개의 군사기구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1967년 7월 1일 「구라파의 위협은 가졌다. 핵전략의 사용권이 미국대통령의 속으로 들어가 군의 지휘권이 초국가적으로 통합된 군사 기구에서는 착실하게 국가를 방위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군사기구에서 탈피하였으나, 의연 NATO의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에 대표를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바치(자동방공경계관제 조직)의 NATO관인 NADGE에 가담하여, NATO 공군기에 상공비행허가를 1년 갱신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제법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즉“유사주류(有事駐留)”의 선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NATO는 「구라파 또는 북미에 있어서 조약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전 조약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피 침략국을 원조한다」하기로 돼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NATO의 병력을 볼 것 같으면, 전 미군도 NATO의 병력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나, 여기서는 그보다 상식적으로 NATO의 구라파지역 방위를 위한 훈련, 장비된 병력을 주로 고찰하기로 한다.

NATO에는 벨기에의 카스트에 사령부를 둔 구라파연합군, 미국의 버지니아 주 노퍽에 사령부를 둔 대서양연합군, 영국의 노스윌트에 사령부를 둔 해협연합군의 3개로 나누어져, NATO의 전술공군병력은 대부분이 구라파연합군에 소속돼 있으며, 그 병력은 육군 58개사단, 항공기 약 3,100기 비행장 150개소를 지휘하여 두고 있다.

시 구라파 연합군 산하에 있는 ① 독일 정면에서 벨기에, 화란방면에 걸친 방위를 담당하는 중부구라파연합군(사령부, 화란의 부른숨, 육군 21개 사단, 1,800기) ② 노르웨이, 덴마크, 발틱해에서 대서양의 출구(出口)의 경비에 임하는 북부구라파 연합군(사령부, 노르웨이의 콜사스), ③ 이태리, 희랍, 터키, 지중해의 방위를 담당하는 남부구라파 연합군(사령 부나포르리)의 3개의 사령부가 있다.

다음은 NATO제국의 항공 병력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공군병력 113,000, 전투용 항공기 720기, 공격 군단(Strike Command), 항공 지원군단(Air Support Command), 훈련군단(Training Command), 유지군단(Maintenance Command)의 4군단과 독일, 근동, 펠샤만, 극동의 4제외(在外) 공군으로 나누어진다. 공격군단은 이전의 폭격, 전투기군단이 통합하고 또한 연안군단이 해체 흡수되었으며, 부르스틸 공대지 미사일을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탑재할 수 있는 발칸폭격기 50기, 해상공격용의 발카니아 35기, 방공용의 라이트닝 100기, F4 팬텀 160기(총수) 삭클론 초계기 45기, 님롯트 초계기 6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지원군단은 수송기 110여 기와 헬리콥터, 그에 지상공격의 헬리아, 팬텀을 장비하고 있다.

재독 영공군은 정찰, 공격용에 칸베라정폭격기 64기, 한라정찰기 18기, 라이트닝 요격기 30기, 팬텀과 헬리아의 2개 비행대로 편성된다.

근동공군은 키푸로스, 마루타에 기지를 두고 발칸 20기, 라이트닝 1개 비행대, 칸베라 정찰기 2개 비행대, 삭클론 1개 비행단 등이 있다.

또한 해군은 정규항공모함 아크로알(43,340톤), 이글 (44,100톤)의 2척, 팬텀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아크로알 뿐이며 전투기로서는 그 외의 시비쿠센이 사용되고, 공격기는 박카니아를 쓰고 있다.

또한 플라리스 A3 16기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 2척이 취역하고 있으며, 근간 3척째가 취역할 예정이다.

서독……공군병력 104,000, 전투용항공기 980기, F-104G 장비의 요격비행대 4, F-104G 및 G91 장비의 전투폭격비행대 18, RF-104G의 중정찰비행대 4, G-91 장비의 정찰 비행대 4, 나이키-허큐리스 6대대, 호크 미사일 9대대, 핵 운반 수단으로서 파싱, 미사일 3대대를 가지고 있으며, F-104G의 전투폭격부대도 1메가톤 수폭을 운반하게끔 되어있으나, 핵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서독에서는 F-104G의 1비행대는 18기이며, 2개 비행대가 1항공단을 편성, 1항공단은 예비기를 포함하여 52기를 보유하고 있다.

서독공군은 F-104G 700기를 취득하였으나, 70년 10월말까지였으며, 이중 125기를 사고로서 잃었고, 50기를 추가 발주하고 있다.

또한 EF-4E 팬텀 정찰기 88기는 1971년에서부터 배비된다.

또한 서독해군도 6,000명의 항공부대를 가지고 있으며, F-104G를 100기, 아트란틱 초계기 20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태리……공군병력 73,000, 전투용 항공기 425기, F-104G 요격기 2개 비행대, F-104S 요격기 1개 비행대, F-104S 요격기 1개 비행대, F-104G 전투폭격기 2개 비행대 G91Y 전투폭격기 1개 비행대, G91 전투폭격기 6개 비행대, F-84F 전투폭격기 2개 비행대, F-86K 요격기 2개 비행대, EF-84F 정찰기 2개 비행대가 주이다. 이태리의 1비행대는 요격기이며 16기 전투폭격기가 26기이다.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북이탈리아에는 나이키·아작스와 나이키·허큐리스가 각 1개 대대이며, 또한 육군이 호크 4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화란……공군병력 21,250 전투용항공기 135기, F-104G 전투폭격기 2개 비행대 F-84F 전투폭격기 2개 비행대, F-104G 요격기 2개 비행대, RF-104G 정찰기 1개 비행대 F-84F는 NF-5A로 전환할 예정이며, NF-5A 75RL와 NF-5B 30기를 발주하고 있으며, 30기는 이미 인도함. 나이키 허큐리스중대 8, 호크중대 11이 있다.

덴마크……공군병력 15,000, 전투용항공기 112기 F-100D 및 F장비의 전투폭격기 비행대 3(그중 1 비행대는 F-35토라첸호로 전환 중이며, 23기를 발주), F-104G 요격기 3개 비행대, 하탄요격기 1개 비행대, RF-54F정찰기 1개 비행대 등 나이키 허큐리스—호크 각 개 중대.

노르웨이……공군병력 9,000, 전투용항공기 114기, F-5A 전투폭격기 4개 비행대(각 16기), F-104G 요격기 1개 비행대(20기) RF-5A 사진 정찰기 1개 비행대(16기) 등 오스로주변에 나이키기지 4개소, 저공용 SAM이다.

터키……공군병력 50,000, 전투용항공기 310기, F-104G 전투폭격기 2개 비행대, F-5A 전투폭격기 3개 비행대, F-100C 전투폭격기 3개 비행대, F-100C 전투폭격기 1개 비행대, F-5A요격기 3개 비행대, F-86D, E, K, 요격기, 계 5개 비행대, F-102 요격기 1개 비행대, RF-54F, RF-84Q 정찰기 3개 비행대 등, 나이키·허큐리스 2개 대대.

희랍……공군병력 23,300, 전투용항공기 200기, F-104G 전투폭격기 2개 비행대, F-84F 전투폭격기 4개 비행대, F-5A요격기 4대 비행대, RF-84F 정찰기 1개 비행대(각 비행대 18기 편성), 나이키 대대 1, 육군에 호크대대 1.

포르투갈……공군병력 17,500인, 전투용 항공기 150기, B-26, PV-2의 경폭 2개 비행대, F-84G 전투폭격기 1개 비행대 G91 경공격기 1개 비행대, F-86F 요격기 1개 비행대, 이외에 미 공군은 총병력 81만, 전투용 항공기 6,500기 중, 구라파에는 재구 미 항공군단 하에 제3항공군(영국) 제16항공군(스페인), 제17항공군(서독)을 보내고 있으며, 병원은 5만, 전술전투기 21개 비행대, 전술정찰기 6개 비행대 등 700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술전투기 4개 비행대가 미 본토에 대기하고 있으며 구라파에 지원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나갈 수 있는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

이 중 주력의 전술전투기 375기 대부분이 F-4C, D 또는 E는 서독, 벨기에, 화란 방면의 방위를 담당하는 중부 구라파 연합군의 지원과, 서독, 화란 방면의 방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국방군의 항공 병력은 병원 41,000, 전투용기 280기이지만, 이중 CF-104 전투폭격기 2개 비행대, 동 정찰 비행대 1을 서독에 보내고 있다.

그 외에 CF-101 요격전투기나 보야크 SAM는 NORAD의 지휘 하에 들어가고 있으며, 독자 운용을 하는 것은 기동군단의 CF-5 전투기 2개 비행대, 헬리콥터 2개 비행대와 공수병력, 거기에 DHC3 직협기(直協機)이다.

프랑스는 일단 NATO의 군사기지에서 탈퇴하였으며, 인연만은 맺고 있으나 그 공군병력은 106,000, 전투용 항공기는 500기, 전략항공군단, 방공군단, 전술항공군단, 공수항공군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략항공군단은 밀라쥬 IV A 폭격기 12기와 KC-135 4기의 3항공군단으로 편성돼 있다.

이 폭격기는 60KT 원폭을 탑재하고 저공침입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거리 탄도탄 18기를 가지고 있는 지하 사리로 기지를 건설 중이며, 9기는 1971년 중에 실전 배비한다.

방공군은 간접적인 형식으로 NADGE에 가담하여 자동지휘조직 STRIDA II가 8, 비행대의 요격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을 통제하고 있다.

주간요격기 슈펠미스텔 3개 비행대, 미라쥬 III C 3개 비행대, 보틀전천후요격기 2개 비행대, 미스텔 IV A의 2개 비행대가 소속되고 있다.

전술항공군단은 미라쥬 III E 전투폭격기의 9개 비행대 F-100D의 3개 비행대 미스텔 IV A의 2개 비행대, 미라쥬 III R, III RD 전술정찰기의 3개 비행대로 되어 있다.

알샤와 제국

알샤와 조약기구의 통일군사령부는 모스크에 있으며, 체약국(締約國)의 공군은 전쟁의 경우에 미 지휘 하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알샤와 조약기구는 요격기, 대공미사일 레이더를 조합하여 방공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령부도 모스크에 있으며, 소련방공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소련……병원 48만인, 전투용 항공기 12,000기, 장거리항공군단(전략항공군단에 해당된다), 전술항공군단, 방공군단 중의 항공부대, 해군항공대 항공수송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군단의 5개로 나누어진다.

장거리항공군단은 대륙간폭격기로서 M 바이슨 90기, TU배아 10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약 50기는 공중급유기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폭격기로서는 총수가 140기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는 캥가루 ASM (사정추정 400NM)를 싣고 있으나, 2기종 모두가 구식화 되고 있으며, 기수도 미국의 B-52, B-58의 총수의 3분의 1 정도이다.

중거리 폭격기로서는 최고속도 M1.6의 TU-22 브라인다 175기, TU-16 바자약 550기를 보유하고 있다.

부라인다는 깃칭, 바자는 켈트 ASM을 탑재하고 있다.

전술항공군단은 보유기수 4,000기, 전투기로는 MIG-21, YAK-28 화이버(전천후), 지상공격기로서 SU-7, YAK-28을 장비하고 있으나, MIG-17, 19 등 구식기도 포함되어 있다.

방공군단은 소련에서는 전략로켓군, 육, 해, 공군과 더불어 하나의 독립한 군대로서 레이더 조기경계망, 대공미사일, 고사포, 요격기를 통일적으로 운용하여 방공을 행한다.

방공군단 소속의 전투기는 3,300기로 추정되며, MIG-19, MIG-21, SU-9, YAK-28P 외에, 전장 27m의 장거리요격기 휘드라도 사용되고 있다.

속도 M2.3~2.5 이상으로 보이는 SU11 후라곤도 취역, 속도 M2.8~3의 MIG 23 획스밧도도 가까운 장래에 취역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항공대는 바자 약 400기가 있으며, 이 일부는 초음속의 부라인라에 전환 중, 베아 50기가 해상준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IL-28 비글 50기도 소속하고 있다.

또한 Be-6, Be-12 비행정 약 60기가 대잠용으로 사용되며 헬리콥터 500기, 수송기 200기도 소속되고 있다.

소련해군에는 공격함모는 없으며, 18,000톤의 헬리콥터 항공모함 모스크 레닝 그라드의 2척이 Ka-25 대잠 헬리콥터를 최고 20기까지 실을 수가 있다.

대공미사일은 SAM-2(가이드라인)이 가장 많으며, 약 8,000기, 이외에 저공용의 SAM-3(고아) 야전용의 SAM(가네후) 등이 있다.

동독.....공군병력 21,000, 전투용항공기 275기, MIG-21의 요격비행대 11, MIG-17과 19의 비행대 7(동독의 1개 비행대는 16기 편성), SAM-2를 200기 이상 장비하고 있다.

폴란드..... 공군은 병력 25,000, 전투용 항공기 750기, IL-28 경폭 6개 비행대,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MIG-17, SU-7의 지상공격기 12개 비행대, MIG-17, -19, -21, 요격 비행대 45등, 폴란드의 1개 비행대는 8~12기.

체코..... 공군은 병력 18,000, 전투용 항공기 620기, 지상공격기로서 SU-7이 150기, IL-28이 60기, MIG-17이 40기 MIG-15가 80기, 요격기는 MIG-21이 150기, MIG-19가 100기, MIG-17이 40기가 있다.

헝가리.....공군은 병력 10,000, 전투용 항공기 150기, IL-28의 경폭 1개 비행대, MIG-19, MIG-21 외 요격 비행대 10.

루마니아.....공군은 병력 12,000, 전투용 항공기 250기, MIG-19, MIG-21 장비의 요격비행대 18 등.

불가리아.....공군병력 12,000, 전투용 항공기 290기, MIG-17의 지상공격비행대 6, MIG-21의 요격비행대 2, MIG-17의 요격비행대 5등 불가리아에서는 1개 비행대는 12기

과연 그 실력은

NATO 측은 숫자가 달리는 바와 같이 수에 있어서는 적다. 우선 제1로 증원의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전술항공군단의 1,000기는 본토에 있으나 이것은 사태가 급박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에 파견되는 병력이다.

또한 프랑스 공군의 500기도 프랑스가 어느 만큼 중립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서방측의 한 나라이었던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현재 NATO의 이사회에 대표를 내놓고, 군사적으로도 뚜렷하지 않은 형식으로 각종의 체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사시에는 서방측에 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군, 특히 항공모함의 전력도 계산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공격 항공모함 16척을 가지고 있으며 1척당 70-100기의 전투기, 공격기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 2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으며 함재기 600-700기를 1지점으로 집결하여 사용하는 것도 곤란하지는 않다.

제2에는 비행기와 탑승원의 분리 문제이다.

NATO측의 주력은 F-104G와 F4이나 폭격탑재량으로 F-104G가 최대 1,950Kg, F4C가 동 4,950Kg임에 대하여 활사와 조약기구 측의 주력 전투기 MIG-21은 이미 모두가 요격을 사용하게끔 설계된 경전투기이며, 속력이야말로 외부병장(外部兵裝)이 없으면 마하 2까지 올라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가지만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면 16까지 떨어져 폭탄을 달고 저공으로 침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지상공격용의 SU-7만 하더라도 폭탄탑재량은 최대 15,000Kg, 쌍발경폭의 YAK-28(블류아)도 1,000kg 밖에 되지 않는다.

제트기로서 수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구라파에서는 일본이나 미 본토와 같은 방공은 더욱 무리하며, 상호가 상대측의 기지를 타격하는 전투가 될 공산(公算)이 극히 큼으로 폭탄탑재량의 차는 큰 문제가 된다.

물론 핵을 사용하면 탑재량 등 문제가 안 될지 모르나, 그렇게 되면 즉각 에스카레트하여 전면 핵전쟁이 될 것이므로 항공 병력의 비교 등은 무의미하게 된다.

항속거리도 NATO측의 항공기들이 길며, 전투행동반경은 MIG-21이 200-350NM, SU-7이 210-550NM임에 비하여 F-104G가 200-450NM, F-4C로서는 350-700NM에 달한다.

항공기의 가동률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련제 엔진의 TBO 오버홀을 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 영국 등의 엔진보다 아주 짧으며, 그만큼 날을 수 있는 비행기의 수는 적어진다.

또한 NATO제국은 미국, 영국, 서독, 이탈리아, 화란, 거기에 근본적으로는 의연 NATO에 속하는 프랑스와 항공공업의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줄지어 있는 것에 대하여, 왈샤와조약국 측에서는 소련을 제쳐 놓으면 체코가 있을 정도로 국산능력을 갖고 폴란드가 희소한 항공공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기반의 차는 유지, 보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조종사의 질의 점에 있어서는 서독공군에 의하면 NATO측의 조종사의 월간 비행훈련 시간은 왈샤와조약기구 측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스에즈운하 상공에서 소련인 같은 조종사와 교전했다는 인상에서는 그다지 훈련도가 높지 않다고 하나 이스라엘 공군은 너무나도 우수한 조종사가 많다고 한다.

한편 서독 공군도 조종사의 훈련도가 저하 여기에서 오는 사고에 고미하고 있으며, 경험이 많은 조종사가 민간으로 나가므로 두통거리라고 한다.

일부 보도에는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의 조종교관이 그다지 없는 것 같으나 항공자위대의 F-104J의 조종사의 평균 비행시간이 약 2,000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서독도 그다지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않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잊어서 안 될 것은 정신적 요소이다.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이것은 수량적, 객관적으로 속단은 할 수 없으나 무시하며 달려들 것도 못된다.

기타 제국

NATO와 왈샤와 조약기구의 대치상태에 있는 구라파에서도, 이 권(圈)외로 서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

서전, 서서, 서반아,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필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이다.

이러한 중립국 중에서도 무용의 전통이 있는 나라로서, 그 대부분은 군비를 정리하고 있다.

서전은 17세기에~18세기 초에 걸쳐서는 구라파 최강의 나라였으며, 서서도 오스트리아제국에서의 독립을 향하여 거의 200년간(1315-1499)을 전쟁하여 결국은 승리하였다.

스페인의 게릴라전이 나폴레옹을 괴롭힌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제2차 대전시에 핀란드의 대(對)소련 게릴라전과 유고슬로비아의 독일에 대한 과감한 게릴라전은 더욱 기억이 새롭다.

다음은 이와 같은 나라들의 공군력 현황을 살펴기로 한다.

서전……유사시의 동원을 위해서 국민 개병제 때문에, 공군의 정규 병력은 5,700, 징병훈련중인 자 9,700과 소수의 예비역 장병들이 항공공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투용 항공기 650기와 서구에서는 서독, 영국 다음가는 프랑스를 상회하는 대병력을 가지고 있다.

항공기의 대부분은 국산이며, 사브 37비전, 동 35트라젠, 동 32란센 등 제1급의 전투기를 국산화하여, 사격 관제장치나 미사일도 대부분은 자국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에는 미국제의 전자장치나 미사일도 채용하고 있다.

지하격납고나 도로를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한 배려 등 나라사정에 합당한 공군을 만들어 방공경계 관제조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트해(海) 건너서의 침입에 대비하여, 대함선 공격에 열을 기울이고 있으며, E6304 공대함미사일 등을 자국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하게 생각되는 이면에는 제1차, 제2차 대전에서 무장중립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것 같으나, 인구 802만, GNP 271억불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초음속전투기에서 신형 전차, 고성능 잠수함까지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은 역시 무리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비겐은 800기의 생산이 예정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발주는 연습기형을 포함하여 100기로서, 최종적으로는 400기 정도로 끝일 것 같이 보인다.

편성은 란센 공격비행대 10, 토라겐 전천후요격비행대 21, 란센정찰 주간전투비행대 2, 트라겐 정찰 주간전투 비행대 3, 브랏트하운드 지대공 미사일 중대 등이다.

서사..... 정규의 공군 및 방공부대의 병원은 2,000에 불과하나 징병훈련 중의 병력 6,000, 유사시에는 45,000의 예비역을 동원할 수 있다.

전투용항공기는 약 315기로서, 미라쥬 III S 요격 비행대 2, 한타 F-58 요격 비행대 5, 베놈 FB-50 지상공격비행대 13, 브랏트 하운드 대공미사일대대 2.

유고슬로비아.....공군은 병력 20,000, 전투용항공기 340기, MIG-21C 및 D60기, F-86D 100기, F-84G 90기 등, 마소 양국의 비행기가 공존, 국산의 야스트렘, 제트경공격기 30기, 가레브 연습기 150기, SAM2(가이드라인)중대 8.

서반아.....공군병력 32,600, 전투용항공기 202기, 밀라쥬 II C 전투폭격기 10기, F-5 전투폭격기 20기, F-104G 21기, F-86F 65기, HA200 사캐타 지상공격기 50기 등.

핀란드.....공군병력 4,000, 전투용항공기 45기, MIG-21이 20기, 나트 F-1이 9기, 마지스텔 무장연습기 16기 등.

오스트리아.....공군병력 4,000, 전투용항공기 13기, 사브 105 지상공격기 3기, 동 J29F 10기 등.

알바니아.....공군병력 2,500, 전투용항공기 70기, MIG-15, -17, -19 장비의 전투 폭격 비행대 6.

NATO 제국

영국.....[공군]폭격기:발칸(50), 박카니아 (35), 칸베라(154), 급유기 : 비크타(20), 정찰기 : 칸베라(97), 비크타(10), 요격기 : 라이트닝 (169), 전투폭격기 : 팬텀(140), 하리아(77), 한타(200), 전투정찰기: 한타(45), 초계기 : 삭클톤(64), 니므롯트(6), 수송기 : C-130K (65), 등
[해 군] 전투기 : 시비크빈(50), 팬텀(28), 공격기 : 박카니아(104).

서독.....[공군] 전투기 ; 공격기 : F-104G(400), G91(305), 정찰기 : RF-104G(100). 수송기 노트라(179), 트란살 C 160(90) 등,
[해군] 정찰 공격기 : F-104G(100) 대잠기 : 아트란틱 (20)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이태리.....[공 군] 전투기 : F-104G(105), F-104S(165), F-86K (70), 공격기 : G91(205) F-84F(50), 정찰기 : EF-84G,
[해군]대잠기 S-2A (40)

화란.....[공 군] 전투 공격기 : F-104G (72), NF-5A (30), F-84G (36), 정찰기 : EF-104G(20)
[해 군] 대잠초계기 : S-2(43), P-2H(15), 아트란틱(9)

벨기에.....전투 공격기 : F-104G(9) F-84F(50), 정찰기 : EF-84F(20)

노르웨이.....전투 공격기 : F-104G(29), F-5A (64), 정찰기 : RF-5A(16), 대잠초계기 : P-3B(6), HU-16(8)

덴마크.....전투 공격기 : F-104G(24), F-100D(42), F-100F(6), 트라겐(23)기 발주, 한타(16), 정찰기 : EF-84F(16)

터키.....전투 공격기 : F-104G(38) F-5A(140), F-102A(25), F-100C(26), F86D, E, K(약 100), 정찰기 : EF-84F F-84Q(30)

희랍.....전투 공격기 : F-104G(35), F-84F(100), F-5A(75), F102(18) 정찰기 : EF-84F

포르투갈.....폭격기 : B-26(20), 전투공격기 : G91(36), F-86F(45), F-84G(30), 대잠초계기 : P-2E(12), COIN기 : PV-2, T-6(200)

캐나다.....[제구라파] 전투기 : CF-104(54) 등, [전국방군] 전투기 : CF-101B(54), CF-104(150), CF-5A(89), 대잠초계기 : CL-28(30), S2F(30)

미국.....[NATO 편입 중인 것] 전투공격기 : F-4C, D, E, (약 375) 정찰기 : EF-4C(약90)

프랑스.....[공군]폭격기 : 미라쥬 IV A(62), 보톨 II B(30), 급유기 : KL-135F(12), 전투기 : 미라쥬 III C (100), 슈펠비스텔 B2(110), 보트웰 II N (50), 전투폭격기 : 미라쥬 II E(180), F-100D(60), 정찰기 : 미라쥬 II E(70), 수송기 : 노라트라 (165) 등.

[해군]전투공격기 : F-8E(38), 메달 IV M, P(67), 대잠초계기 : 애리제(60), P-2H(24), 아트란틱(39)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알사와 조약 기구 국

소련.....[장거리 공군] 폭격기 : M-4(110), TU-95(20), TU-22(200), TU-16(550)
[전선공군(戰線空軍)] 전투 공격기 4,000기 : MIG-21, MIG-19, MIG-17, SU-7, 후라
곤 B, YAK-28, YAK-28P [방공군(防空軍)] 전투기 3,300 : MIG-21, MIG-19, MIG-17,
YAK-28P, TU-28SU-11[해군항공부대] 폭격 초계기 : TU-95(50) TU-16(300), Be-6(30
+), Be-12(20+), IL-28(50)

폴란드.....폭격기 : IL-28(6 비행대), 지상공격기 : MIG-21, MIG-19, MIG-17(45비
행대), 정찰기 : MIG-17 MIG-15(80)

동독.....전투기 : MIG-21(200+), MIG-19, 지상공격기 : SU-7 MIG-17

헝가리.....전투기 : MIG-21(50) MIG-17, 지상공격기 : SU-7, MIG -17, 폭격정찰
기 : IL-28

불가리아.....전투기 : MIG-21(20), 전투 지상공격기 : MIG-19(100), MIG 17(100) 전
투 지상공격기 : MIG-21, MIG-19, MIG -17, MIG -15(계280)

중립국

서전.....전투 공격기 : 사부35(550), 사부 32(450), 한타(45), 사부 S7(83).

서서.....전투 공격기 : 밀라쥬 III S (36) 한타(90), 베놈(200), 정찰기 : 밀라쥬
III E (18)

유고슬로비아.....전투기 : MIG-21(60), F-86D, E, 세이버2/4(계약100), 지상공격기 :
F-84G(90), 야스토렙 (30), 정찰기 : EF-86F, RT-33A(계 30)

서만아.....전투 공격기 : 밀라쥬 III E(26), F-104G(18), SF-5A(36), HA 200D(55),
F-86F(100), COIN기 : T-6D(25)

<세계의 공군력 : 구라파 편>

핀란드.....전투 공격기 : MIG-21(38), 낫트 (9), 무장연습기 : 마지스텔

알바니아.....전투 공격기 : MIG-19(12), MIG-17(35), MIG-15(30)

오지리.....전투 공격기 : 사부 29(18) 사부 105(3 발주 40기).

※ 상기한 표는 거의 「인터내셔널·에어·아워스 앤드 밀타리 에어 크래프트·디
렉트리」를 중심으로 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주로 영국 전략연구소의 「밀타리
발런스1970-71」을 참고로 한 본문과 경우에 따라서는 기수 등에 있어서 정도
차가 있음을 부연하며 지면관계로 거의 전투용 항공기에 한하여 언급하였음
을 부기한다.

<외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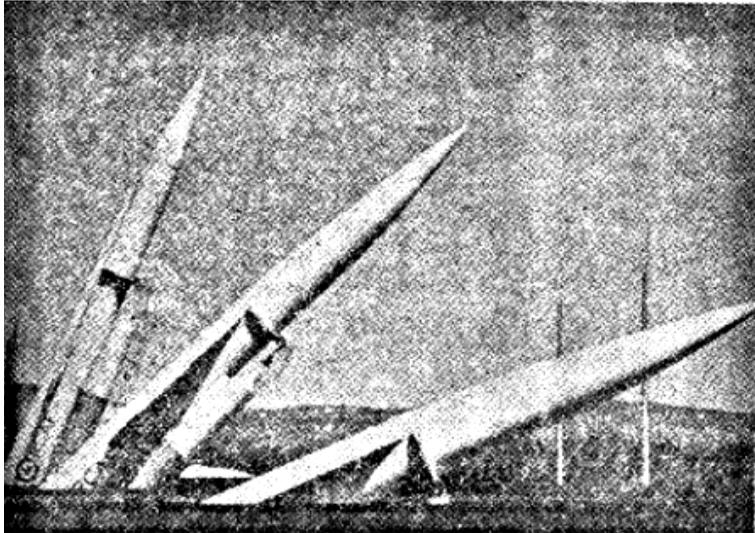
<위인일화>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초대와 2대를 걸쳐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공로를 남기고 물러나가는 워싱턴에 대한 감사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백발
이 성성한 워싱턴은 이 결의 에 답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랐다. 그러나 지
난날의 갖은 신고를 겪은 독립전쟁과 그 후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
던 동안의 가지가지의 회상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이제 오
래간만에 고향에 돌아간다는 무량한 감회에 흥분된 얼굴로 그저 서 있기
만 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장을 감돌았다. 이윽고 한 의원이 이 침묵의
공기를 뚫고 별떡 일어섰다.

“각하!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마십시오, 각하! 이것만으로서 우리들의 가슴
은 터질 것 같습니다. 각하!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내가 떠나갈 듯한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일
어났다.

워싱턴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박수 소리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조용히 연
단에서 내려 왔다.

미·소의 핵전략 태세와 공군



1. 미·소의 전략미사일 공격력과 ABM의 현상

「소련의 핵 전략적 공격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일은 중대한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소련과의 전략적 균형이 미묘하며, 중공이 핵 국가로서 등장한 현급에 있어서 미국의 국방계획상의 여유는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레이어드 미 국방장관이 70년 2월 의회에 제출한 1971년도 국방계획 예산보고서 서두에서 인명하였다.

이것은 소련의 ICBM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1967년부터 ICBM 1054, SLBM 656으로 고정하는데 비하여, 소련은 67년부터 70년에 걸쳐 ICBM이 460에서 1,400(영국 전략연구소의 자료는 1,300으로 되어 있으나 레이어드 미 국방장관은 1,400기(基)라고 발표함)으로, SLBM이 130에서 280으로 비약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더욱이 증가분의 거의가, 신형의 SS-9

<미·소의 핵전략 태세와 공군>

및 SS-11이라고 한다.

SS-9 스카프는 현재 240기. 직경 10피트, 전장 120피트로, 10,000파운드의 페이로드를 쏘아 올릴 수 있으며, 그때의 사정은 약 7,000NM. 탄두위력은 20-25MT 이라고 하며, 5MT의 경우는 3발, 200KT의 경우는 20-30발의 다탄두(多彈頭)를 탑재할 수가 있다고 한다. MRV(무유도복수탄두—無誘導複數彈頭)의 발사시험이 거듭되어, 이미 배비(配備)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초대형 미사일을 위시하여, 미니트먼 I급의 SS-7(800기) SS-7사드러, SS-8사신 등은, 어느 것이나 액체연료 로켓임에 대하여 1968년에 취역한 SS-13서베지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소형의 미사일이다.

소련의 고체연료 미사일개발의 의욕도, 중거리 탄두미사일도,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IRBM, MEAM은 SS-5스킨, SS-4산덜 약 700기이지만, 고체연료 미사일 스칸프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점차 이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지상기지미사일은 미니트먼 I형 490기, 동 II형 500도 모두 고체연료이며, 또한 I형은 장래 MK12의 세탄두시스템을 장비한 강력한 미니트먼 III형으로 바뀌어질 계획이다.

이 외에 액체연료 ICBM 타이탄, II형 54기가 있다.

전략미사일의 분야에서 소련에 대하여 미국이 우위를 보지하고 있는 것은 미사일의 다탄두화이다.

MRV가 산탄형으로 투사(投射)되는데 대하여, MIEV는 각 탄두가 각기 단독 유도되며, 각각 목표를 겨냥할 수 있어 그 위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소련의 SS-9도 MRV에서 MIRV로 장비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는 이미 10개의 MIEV를 갖는 포세이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끔 원자력 잠수함 8척이 개장중(改裝中)이다.

미 해군은 원자력 잠수함 4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라리스 미사일을 각 16기 장비하고 있다.

이 중 31척이 포세이든, 장비의 잠수함이 될 예정이다.

이들 원자력 잠수함은 북극해—북대서양—지중해 수역에 20척, 태평양에 5척이 상시 움직이고 있다. 특히 포세이든을 장비한 전략미사일의 파괴력, 또는 억지력은 소련 ICBM의 대미 양적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소련도 물론 통상형 약 290, 원자력추진 약 80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으며, 약 50척이 탄두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다.

미사일은 수중발사기능의 사브 SS-N6

과 폴라리스만큼 큰 것이나 사정은 짧다.

이와는 달리 49척의 잠수함은 최대사정거리 300마일의 함선공격용 순항미사일을 4 내지 8기를 장비하고 있다.

중동전쟁에서 아랍연합이 소련에서 원조 받은 이 미사일로서 성공한 것으로 보아 미국도 SSM 개발에 중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공격력에 대하여 미국과 소련은 상호간 어떠한 방어체제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미국은 소련의 제1격에서 지상의 보복 전력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한 가벼운 ABM 세후가드계획을 발표했다.

그 제1단계는 노스 타고다와 몬타나에 있는 2개의 미니트먼기지에, 지역방위 미사일 스팔탄과 지점방위 미사일 스프린트를 배비, 제2단계는 1970-1971회계연도에서, 화이만기지에 같은 방위미사일을 배비하는 등 점차 확충하여 12개 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다단식 미사일 가로슈를 모스크바 주변에 67기 배비하고 있다. 가로슈는 사정거리 200마일 이상에서 메카톤급의 핵탄두를 장비하여, 미니트먼이나 폴라리스 공격에서 정부의 중추를 한정적으로 방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가로슈 개량형으로 생각되는 미사일 실험도 탐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까운 장래 운용태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방성에서는 소련의 신형 ABM의 연구 개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하나로서 아스팔트의 구름이라고 하는 발사실전 테스트를 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이것은 침입하는 탄두에 아스팔트입자가 대기권 재돌입 시에 발화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것이나 소련의 SS-11에 3개의 탄두를 단 처음의 실험이 태평양서 행해진 것이 1970년 8월 26일이며, 미국이 스팔탄의 처음 요격실험을 똑같은 태평양에서 행한 것이 동 8월 31일이었다.

이와 같이 미·소의 ABM은 초기의 실험을 마치고, 제2단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나, 이 들은 지역방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한다고 하지만, 전략적인 공격미사일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ABM망의 개발에는 방대한 예산이 들며, 공격미사일과 방어미사일의 개발경쟁은 미·소의 군확경쟁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 미·소 쌍방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의식이 SALT(전략병기 제한교섭)을 촉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통틀어 말하면 전략 미사일공격력, 제1격에 대한 보복력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소련이 ICBM기수(基數)에 있어서는 1970년에 미국을 능가하여, 장래 더욱 차가 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전술한 레어드 미 국방장관의 언명뿐만 아니라, Stars & Strips(1970.3. 10.)에서도 볼 수 있었다.

SS-9, 미니트먼 미사일, B-52 및 재래형 잠수함에 적재되는 소련 미사일을 대략 계산해보면, 장래의 핵전력의 균형은 어떤가 하면 미국의 650기의 포세이든 및 폴라리스 미사일에 대하여, 소련은 950기의 동종의 미사일, 1,300기의 SS-11 및 구식의 ICBM 2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즉 장래 소련 2,400기, 미국 650기의 미사일 보유상태가 되며, 4대 1이 된다. 그러나 SS-9 및 SS-11의 전개는 매년 계속적으로 뒤져 1975년경에는 5대 1 정도의 불리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핵에 대한 대소(對蘇) 우위는 미 국방성 수뇌들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미 국방성 총예산이 1968년도의 800억불에서 1971년에는 712억불로 삭감, 핵병기 개발부문은 삭감하지 않고, 통상병기를 약 3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보아, 미국의 대비태세를 짐작할 수 있다.

ICBM의 기수는 뒤져도 포세이든, 미니트먼Ⅲ 등 질적면에서 전략미사일의 대소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헬싱키→원→헬싱키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미·소의 SALT이다. 워싱턴에서는 미 측에서 ① 전략공격 병기(ICBM, SLBM, 전략 공격기)의 총규제(總規制)

② SS-9와 같은 거대한 미사일의 규제, ③ ABM의 수량제한 외 3항목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①③에 대해서는 대략 의논은 없으나, SS-9와 같은 병기의 양적 규제에는 간단히 응하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소련은 주독(駐獨) 미군의 전술 핵미사일의 규제도 주장할 것 같으며, 교섭은 난항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2. 전략폭격부대 및 항공 모함기동부대의 공격력

미국의 전략항공군단(SAC)은 장거리 폭격기 B-52를 약 505기, 초음속가변익기 FB-111 약 35기, 계약 540기의 폭격기를 가지고 있다. B-52 CF형의 최대항속거리는 18,400Km, 신형의 G형, H형은 20,000Km이다. G형, H형은 AGM28B 하운드독 공대지 미사일(사정거리700마일, 핵장비를 싣고 있다.

<미·소의 핵전략 태세와 공군>

C형, F형의 B-52 14개 중대 중 3개 중대는 동남아시아에 배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련이 보유하는 대륙간 폭격기는 140기로 추정된다. 그 내역은 MYA-4마이슨 약 90기, TU-20베아 약 100기이지만, 이중 약 50기는 공중급유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중거리 폭격기로 TU-16바자 약 550기, TU-22브라인다 175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장거리기의 75%는 구라파, 소련에, 나머지 태반은 극동에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략폭격기는 미국이 소련의 약 3배를 가지고 있으며, 소련이 과거(수년래, 대륙간 전략공격 전력을 증강할 동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방성에선 보고 있다.

소련의 전략항공군은 구아대륙(歐亞大陸)에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미 본토에의 제1격 계획은 ICBM에 돌려, 폭격기에 의존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또한 미국은 1970년대에 B-52 적재용의 MIEV라고도 할 수 있는 SCAD(Subsonic Armed Desoy)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정 500-600마일의 소형무인기이며, B-52, 1기에 25-35발을 싣고, ABM 망을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탁상공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미 국방성은 신형의 대륙간 폭격기 B-1은 개발을 실현시킬 것이다.

한편 항모부대(航母部隊)에 의한 공격력은 미국이 76,000톤의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를 위시하여, 16척의 공격형 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련은 아직 항모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에, 전력비교는 되지 않는다.

특히 핵장비를 하고 있는 미국의 공격모함도 이제까지 제1차적인 전략핵공격의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공격모함 엔터프라이즈 외에 헬레스탈 급 8척, 밋트웨이급 3척, 항코크 급 3척, 대잠항모의 전용 1척이다. 또한 소련해군에는 항모는 없으나 18,000톤의 헬리콥터 모함 2척이 취역하고 있다.

3. 양국공군 및 해군항공대의 기본적인 편성과 세력

미 공군의 총 병력은 81만, 전투용항공기는 약 6,500기이며,

소련 공군병력은 48만, 항공기는 10,200기이다.

이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미 공군은 병력 5만 9천명, 기수면에서 약 500기가 줄고 있다. 또한 소련은 병력에서 2만 5천명이 줄었으나 기수에서는 반대로 400기가 늘고 있다.

<미·소의 핵전략 태세와 공군>

주력기종별의 보유기수의 비교는(별표 : 영국전략연군소의 군사력 비교 내기 1970-1971년) 와 같으나, 핵 운반수단이기도 한 폭격기에서는 미국 측이 장거리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거리기는 소련이 단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의 경우는 군용기의 기지는 거의가 소련 영내에 있다. 양국공군의 비교는 병력, 기수의 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나 기동력 등도 더불어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단지 구라파만을 예로 들어보면 소련 공군이 재구(在歐) 미군보다는 훨씬 위위에 있다. 이것은 와르샤와조약군, NATO군의 비교도 되나, 미·소공군을 빼놓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재구 소련공군(동독, 체코 등을 중심으로 북, 중구): IL-28, YAK28 등 경폭격기 222기, SU-7 등 전폭기 820기, MIG-21 등 요격기 885기, 정찰기 220기.

재구 미 공군(서독주류) : F-4E 75기, F-4C, D 300기, RF-4C 90기. 전 세계로는 방세전략을 취하는 소련공군이 구라파 정면에서만은 공세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다.

여기서 양국 공군의 편성이지만 미국은 전략항공군단(전술한 것), 방위항공군단(후술한 것) 외에, 일반목적전력으로서, 전술항공군단, 태평양항공군단, 공수군단으로 편성돼 있다.

전술항공군단(TAC)은 F-4=19개 비행대, F-100=3개 비행대, F-105=3개 비행대 외 정찰기, 수송기 등 병력 11만 5천명에 1,000기를 보유, 미국 내에 기지를 두고 있다.

재 구라파항공군단(USAFE), 태평양항공군단(PACAF)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한다.

공수군단(MAC)은 C-133 가고마스타 약 45기, C-141스타리프타 270기 등 대형수송기 18개 비행대와 기상정찰의 C-130 등 25개 비행대를 갖고 있으며, 병력은 9만.

또한 1970년 여름이래, 극동에도 비대한 바 있는 카라쿠시는 1개 비행대를 편성 중이다. 또한 미 해군은 약 8,500기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

공격항모에는 F-4팬텀, F-8쿨세다 등의 전투기, A-4스카이호크, A-6인톨타, A-7콜세아 등의 공격기가 있는 외에 RA-5C 비지란티, RF-8G 콜세이다 정찰기도 가지고 있다. 또한 조기경계기 E-2A 호크아이, 공중급유기 KA-3B스카이오리아도 있다.

대잠항모에는 장거리 초계기 S-2E 트럭커, SH-3 시킹 대잠 헬리콥터가 있다.

별 표.

미·소 주력기 보유기수 비교

| 기 종 | 미 국 | | 소 련 | |
|----------------|-----------------------------------|-------|-----------------------------------|-------|
| | 형 식 | 기 수 | 형 식 | 기 수 |
| 장거리 폭격기 | B-52 C-F | 250 | MYA-4 | 40 |
| | B-52G/H | 255 | TU-20 | 100 |
| 중거리 폭격기 | FB-111 | 35 | TU-16 | 500 |
| 공 격 기 (육상기) | F-105D F-4 F-111A/D A-7D | 1,000 | TU-22 YAK-28 SU-7 MIG-23 | 1,000 |
| | A-4, A-6A A-7A RA-5C | | 900 | |

미·소 미사일 보유현황

| 연 도 | 미 국 | | 소 련 | |
|-------|-------|------|-------|------|
| | ICBM | SLBM | ICBM | SLBM |
| 1965년 | 854 | 496 | 270 | 120 |
| 1966 | 904 | 592 | 300 | 125 |
| 1967 | 1,054 | 656 | 460 | 130 |
| 1968 | 1,054 | 656 | 800 | 130 |
| 1969 | 1,054 | 656 | 1,050 | 160 |
| 1970 | 1,054 | 656 | 1,300 | |

해병대는 전투용과 지원용 항공기 약 1,200기로 편성된 3개 항공사단을 가지고 있다.

기종은 F4팬텀, A6인톨타, RF-4B팬텀, C-130 허큐리즈 외에 CH-53A, CH-46A의 대 중형 헬리콥터가 있다.

한편 소련공군은 장거리항공군단(전술한 것), 방공군단 중의 항공부대(후술한 것)외에 전선(戰線)항공군단, 해군항공대, 항공수송군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선항공군단은 4,000기 이상. 과거 9년간 약 4,000기이지만, 1년 전보다 다소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요격 전투기 MIG-21 윗수베트, 이것을 개조한 신형정찰기, 대지공격기 SU-7윗타, 초음속경폭격기 YAK-28 부류와, YAK-28P 화이아바 등의 고성능기이다.

Su-7 윗타는 전술용 ASM를 장비하고 있다. 또한 초음속공격기 MIG-23 휠스파트가 이미 실전 배비되고 있다는 설도 있으며, 수직 이착륙기(VTOL)의 취역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소련해군항공대는 폭격기 약 500기, 기타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500기로 편성되었으며, 폭격기의 대부분은 소련 북서연안과 흑해연안에 기지를 가지고 있다.

ASM 장비의 TU-16바자 300기, 해상 정찰용 TU-20베아 50기, 어뢰탑재의 TL-28 비글 50기 등의 세력은 지금과 하등 변화가 없다.

항공수송군단은 약 1,700기의 수송기를 가지고 있다.

단, 중거리 수송기에는 IL-14 크레트, AN-24코쿠와, 작년보다 약 800기가 늘어난 4발의 AN-12카브, IL-18쿠트가 있다.

대형수송기 AN-22콕크도 약 5기가 취역하였다. 이 외에 아에로후르트에 속하는 미군사 여객기가 있으며, 일부는 전시에 군사용으로서 전용가능하며, 헬리콥터는 총수 약 1,500기이다.

4. 외국 파견부대의 개요

소련의 공군은 와르샤와조약군으로서, 동구 각국에 주류하고 있는 외에 해외엔 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동구 주류국은 동독이 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에도 있으나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와르샤와 조약지역을 경계하는 방공, 경계체계의 중추는 모스크에 있으며, 소련 방공군단의 최고사령관이 지휘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소련 내에 있는 MRBM이나 기타의 전략병기, 중거리 폭격기 등이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소련공군은 비록 해외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련제의 군용기는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G-21을 중심으로 MIG-17 등을 북괴와 월맹에 공여하고 있다.

소련은 이런 종류의 비행기를 인도와 파키스탄 아랍연합 등에도 싼값으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제의 팬텀전투기 등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의 싼값으로 수출하고 있다 하며 그런 이유는 분쟁 중에 있는 또는 분쟁요인을 갖고 있는 후진국에는, 싼값으로 준다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매력으로 되어 있어, 이런 호기심을 정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에는 이런 MIG전투기를 수출한다든가, 팬텀을 증강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아랍연합에 공여, 수출하는 등 정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에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소련이 아시아, 구라파, 중근동 등의 분쟁지점에 접근한 자국 영내에 공군기지망을 펼치고 있는(원거리 항공부대는 극동, 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중부의 3개 지역에 전개하고 있다.)것에 대하여, 미국은 이에 대항하여 포위하는 것과 같이 자유제국에 공군기지를 가지고 있다.

제구라파 항공군단은, 병력 약 5만 명이며, 영국에 있는 제3 항공군, 스페인에 있는 제16항공군, 서독에 있는 제17 항공군, 터키에 있는 보급부대를 통할하고 있다.

전투기는 F-100, F-4C, F-4D, F-4ES 등 21개 비행대, 약 375기, 정찰기는 RF-4C 등 6개 비행대 약 90기, 수송기는 C-130 2개 비행대이다. F-4E 4개 비행대는 방공용으로서 서독과 화란에 주류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 주목되고 있는 태평양 항공군단은 15만 5,000명 약 80개 비행대이며 하와이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이 통할 하에 있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 한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제5공군, 비올빈, 대만, 태국 등에 전개하고 있는 제13 항공군, 월남에 있는 군사원조군의 공군부대인 제7 항공군이다.

제 5항공군은 F-4 외에 F-102, F-105, EF-4C, C-130의 각 비행대를 전개하고 있으며, 제13 항공군도 타국에 있는 약 160기의 F-4 외에 같은 기종이 있다. 제7 항공군은 F-100, F-4C, A-37 각 전투폭격기 280기, EF-4 정찰기 40기, A-1E, AC-47, AC-119, AC-130, C-123대 게릴라전투기 150기, 기타 다수의 관측연락기나 헬리콥터 등으로 편성 돼 있으며, 병력 총수는 약 5만 9천이라고 한다.

제7 항공군 월남공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13 항공군의 F-4, F-105 등은 필요에 의하여 제7 항공군을 지원한다.

물론 동남아시아에는 SAC 지휘하의 B-52가 약 45기, 공중급유기 KC-135가 약 100기 전개하고 있으며, 커다란 억제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낙슨 대통령의 광독트린에 의하여 이들 아시아 각국에 주류하고 있는 미 공군세력은 차차로 삭감돼 가는 방향에 있으며, 어느 것은 미 본토에, 또한 어느 것은 괌, 하와이 등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관주된다.

태평양 항공군단의 세력은 1년 전에 비교하여 볼 때, 이미 점감됨을 나타내고 있다. 광독트린에 의한 지상군이나 공군의 감축 후에는 미 본토의 ICBM이나 괌, 태국 등에 주류하고 있는 B-52, C-5A 가라쿠시에 의한 대량수송력, 포세이돈 잠수함 등이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대 공산권 억지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본토 방위력

ICBM 시대, 특히 SS-9이나 포세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화, 정도향상(精度向上)이 다루어지고 있는 금후에 있어서는 미·소가 다 같이 본토 방위의 결정적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말한 ABM은 그 연유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것이 본토방위의 만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양대국이 주지하고 있다.

또한 장래는 우주에서의 위성공격, 그에 대한 방어체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아스팔트의 구름이나 레이저 광선 등 방어 병기의 개발경쟁은 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차치하고, 미·소의 본토방위력의 현상은 어떤지 살펴본다.

우선 미국 측에는 캐나다와의 합동조직인 북미방공사령부(NOEAD)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다.

NORAD 산하의 미군병력은 8만 5천명이며, 항공우주방위사령부(ADC)와 육군방공사령부(ARADCOM)에 속해 있다.

ADC는 요격기 15개 비행대로 편성돼 있으며, F-106A 델타다트 11개 비행대, F-101B부드 3개 비행대, F-102 델타다가 1개 비행대(기지 아이슬란드)가 있다.

후비 전력으로서 주 항공대의 F-101과 F-102의 17개 비행대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군을 포함한 NORAD 소속의 요격기 총수는 약 7,000기이다.

지대공미산일은 나이키 허큐리즈 13개 대대, 호크 2개 대대가 ADC의 육군부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또한 사정 440마일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보마크 B형은 약 170기, 5개 중대에 편성되어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에 배치되고 있다.

이들 정규부대를 38기의 나이키를 갖는 주병(州兵)이 보강되고 있다.

또한 방위레이더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알라스카, 그린란드, 영국에 기지를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조직(BMEWS)

② 다른 여하한 지상레이더보다 광범위하게 ICBM의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지평선레이더 체계(OHT)

③ 33원거리 조기경계(DEW) 라인의 레이더.

④ 조기경계기(AEW) EC 121 등

NOEAD에 대응하는 소련의 조직은 방공군단(PVO)이며, 총 병력 약 50만(이 중 지상요원이 반임). 고사포부대와 지대공 미사일부대로 편성돼 있다.

지대공 미사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가이드라인, 고아가 많은 것 같다.

① SA, 가이드라인=고체연료 2단추진식이며, 사정 약 25마일, 고도 3,000내지 18,000피트, 추경 8,000기 배비. ② SA3고아=가이드라인을 보강하는 저공용 미사일이며, 사정은 약 15마일. ③ SA4가네후=기동부대용의 이동식 미사일로 서 고체연료추진. ④ SA6 게인홀=가네후를 보강하는 저공용미사일, 신형으로서 근간 배비개시, ⑤ SA5구리환=2단추진식이며 장거리의 대 항공기용 등. 방공군단에 속하는 요격전투기는 약 3,300기로 추정된다.

그 대부분은 MIG-19 휘마, MIG-21 횡슈베트, SU-9횡슈붓트이나, 구식의 MIG-17도 소수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YAK-28 화이버, TU-28휘드라(시속 900마일, 고도 5만 피트)로, SU-11) 후라곤 A (마하 2.3)은 이미 취역, MIG-23 횡스밋트(마하3)가 가까운 장래에 배비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기경계기로서 개량형의 TU-114 크리드를 약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소가 지대공 미사일, 요격기, 레이더망을 배비하고, 더욱 SAM나 요격기의 A AM의 성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소련의 기습공격에 대하여 보복력을 가지고, 그 관제 지휘를 공중에서 하기 위해 미국에서 AWACS(공중경계관제조직)의 개선이 논해지고 있다.

또한 저공에서 침입하는 폭격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OTH 레이더사이트의 충실, AAM를 가지고 신형요격기의 개발을 요망하는 소리도 미 공군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역시 소련 측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외지에서>

전개되어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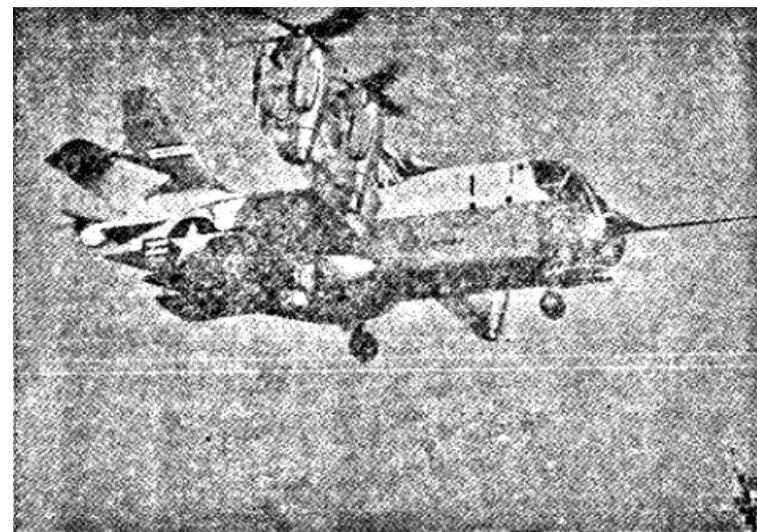
VTOL의 세계

—수직 상승 비행기—



VTOL기의 발자취

20세기가 시작되는 무렵의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 성공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비행기는 2분의 1세기를 지난 1950년대에 이르러, 콘베아 KFY-1, 록히드 XFV-1이라고 하는 2종의 테일싯타형의 수직 상승전투



LTV XC-142A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기의 시작완성(試作完成)에 의하여, 점차 비행장이 필요 없는 비행기, 즉 VTOL 기의 완성을 향하여 그 제일보를 내딛었다.

물론, 이보다 10년 이상이나 전부터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실전에 나가 활약하였던 것으로 활주를 하지 않고도 발착되는 기체를 의미하는 VTOL기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1950년 초두가, VTOL 기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수평비행 시는 보통의 비행기와 같이 고정익(固定翼)의 양력에 의하여 기체를 지지하고, 이착륙 시에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또한 착지(着地)하는 속도 범위가 넓은 이상적인 VTOL기가 그 일보를 내딛던 시점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이며, 지금까지 고정익과 회전익기(回轉翼機)라고 하는 2개의 대계(大系)로 나누어져 있던 것에 대하여, 제3의 계통으로서, 상기 2개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스타트를 한 점으로 보아,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옛날 인류가 소박하게 새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으면 하고 공상하던 때는 수천 미터식의 활주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하늘로 쭉 올라갔다, 살짝 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며, 이 이상을 실현한 것이 바로 VTOL 기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속도면이나, 경제적인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가장 합목적적(合目的)인가, VTOL 기에 부여된 커다란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한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고사하고, VTOL이라는 말(처음에는 VTO라고 했다.)이 항공용어에 삽입되고 나서부터는 어언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그동안에 적지 않은 수의 VTOL시작기가 만들어지고는 살아졌다.

그리고 한편, 그 중에서 간신히 HS 헬리아와 같은 실용형의 기체도 소수이지만 부대에 배속될 정도까지 되었으며, 그 독특한 기능을 인정하여, 새로운 전술 체계를 형성하려고 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도심 간을 연락하는 단거리용의 VSTOL 수송기의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VTOL기 존재의 의의

이와 같이해서 VTOL기의 세계가 간신히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으로, 그간에 있어서 「VTOL기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하는 논의도 또한 가끔 반복되었다.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먼저 언급한 것과 같이 인류가 꿈에 그리던 공중비행 기계(?)의 본래의 자체는 VTOL기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비행장에 부자유한 것이 없을 정도로 비행장의 정비가 진행되어, 한편 미개의 황지(荒地) 또는 최전선의 협소지, 또는 도심지에서의 연락교통기관으로서 헬리콥터가 절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거리의 비행은 수평 속도가 크며, 또한 항속성능이 우수한 고정익기에 일임하고, 활주로가 확보되지 않는 단거리의 협소지에는 헬리콥터로 연락한다는 각기의 특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분담하고 있는 비행체계는 바야흐로 확립된 견해이며, 과연 현재와 같은 고정익 VTOL기가 시비(是非)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비단 VTOL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옛날 비행기가 겨우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을 때, 혹은 아직 획케-아하겔 리스나 시콜스키의 헬리콥터가 간신히 헬리콥터 독자의 나르는 방법으로 성공하였을 때는, 역시 똑같이 교통기관 또는 병기로서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론자로부터 의문을 안은 채 실용화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VTOL기도 또한 이와 같은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비판이 타당하나, 나아가서는 VTOL기가 인류에 있어서 사실 유용한 것이냐의 결론은 금후의 VTOL기의 발전도가 그 실체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S 하리아와 같이 전선의 넓지 않은 공지를 기지로 하여 이음속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전술공격기가 출현하였다고 하면, 국지 전투의 양상은 당연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이와 같은 전술상의 변화는 무장 헬리콥터의 출현에 의하여 제법 크게 표면에 나타나고 있으나, 또다시 VTOL공격기인 경우에는 헬리콥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속성능을 갖고 행동반경도 확대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극히 크며, 무장 헬리콥터는 공수부대 진출 시의 주변제압이 고작이었던 것이 다시 후방의 보급경로까지 되었으며, 응전태세가 갖추어 질 때까지의 시간도 극히 짧아지므로 지금과 같은 대공방비태세에서는 보급노선이 위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이한 신출귀몰의 기동력과 이곳저곳으로 기지를 이동할 수 있는 은밀성은 VTOL기에 의하여 처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으며, 이것은 헬리콥터가 처음 비행기나 자동차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인원구출이나 연락 등의 용도에 의하여 독자의 분야를 개척한 것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군사적인 용도에 있어서는 이용가치의 여하가 가끔 경제성에 우선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결코 경제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VTOL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실용에 의하여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어 종합적으로 미루어보아 도리어는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용의 수송기로서 훌륭하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군용면으로서 생각되는 것은 해상에서의 사용이다.

이미 하리아에 의하여 해상의 함선에서의 발착시험이 행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헬리콥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함선 상에서의 행동이 기동력이 큰 VTOL기로 바뀌어 졌을 경우, 해상함정은 항공모함의 응원 없이 광범위한 자위력을 갖출 수 있으며, 적의 항공기에 의한 공격을 원지점에서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함정에 대한 공격력도 대단히 강화되게 된다.

이미 함정의 공격병기는 대포로부터 미사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으나 탑재 VTOL기에 의하여 경계정찰 영역이 확대하면 미사일의 효과도 보다 확대되며 그 위력은 보다 강화되게 될 것이다.

더욱 VTOL기의 규모가 보다 대형으로 되었으며, 핵병기에 의한 본격적인 공격력이 구비 되었다면 이와 같은 VTOL 공격기를 탑재한 비교적 소형 함정의 확산분포에 의하여 적에게 주는 위압은 강대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재언을 불요한다.

더욱이 항공모함을 기간으로 하는 기동부대와 비교하여 함정의 건조비, 운용 유지 등이 대단히 저렴하며, 비록 상당한 고액의 개발비가 VTOL공격기 때문에 들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본다면 경제적인 것만 명백하다. 이제까지는 군사용면에 치우친 것 같지만, 민간용의 VTOL기의 장래가 암담하나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확실히 충분한 활주가 필요한 기체와 VTOL기의 경제성을 비교하면, VTOL기는 수직의 발착에 요하는 과잉한 파워와, 기체중량의 제한에 의하여 불리하다.

또한 수송용의 대형 헬리콥터와 비교해도 복잡한 기구 때문에 현상(現狀)에서는 제작비의 면에서도, 유지비의 면에서도 결코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상향(上向)의 추력을 프로펠러, 후안,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제트 등에서 얻는 형식의 VTOL기의 소음은 헬리콥터의 로터와 비교하여 아무래도 높아지며, 소음공해(騒音公害)의 점에서 볼 때도 불리하다.

그러나 교통기관으로서의 최대의 조건인 고성능의 점에서는 헬리콥터에 대하여 절대 유리하며, 또한 보통의 비행기들은 흉내를 낼 수 없는 좁은 지역에서 발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수단만 갖추면 민간기로서도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항공로에 취항하는 수송기가 대형 고속화됨에 따라 필요한 활주로의 길리는 점점 커지며, 이에 따라서 국제선용의 공항은 점차 도심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때문에 국제선 공항과 도심에 있는 연락용 교통기관으로서 제2의 연락용 수송기가 필요하며, 각국들이 이 수송기로서 적당한 기체의 연구개발을 행하고 있으나 그 일환으로서 도심의 빌딩옥상에서 발착이 될 수 있는 VTOL 수송기의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단지 이런 때에는 전술한 바도 있지만 소음의 해결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있으므로 군용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실용화하기에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행기의 발달의 역사를 보아서도 명백한 것과 같이 양항비(揚抗比)가 큰 고정익기는 항속성능과 경제성이 있다는 면에서 회전익기와 비교하여 절대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정익 VTOL기와 장래에 있어서 수송에 관한 한 헬리콥터를 밀어제치고 주류의 위치에 서게 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한다.

고정익 VTOL기의 현황

고정익이 양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기의 흐름이 익면에 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상승하강할 경우에 기체를 받치는 상향(上向)의 힘은 로터, 프로펠러, 후안, 제트 등의 추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방법으로서 어떠한 형식이 가장 유리한가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식의 VTOL실험기의 시작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그 양식을 대별하면,

1. 이착륙 시에는 추진기의 축(軸)을 상향하여 수평비행 시에는 이것을 수평방향으로 90° 회전하는 형식이며, 여기에는 고정익 전체를 방향변환(方向變換)하는 테일트-우잉 형식(예 : LTV XC-142, 캐나다 CL-84다이나바트)과 추진기를 방향 변환하는 형식(예 : 놀 500, 벨 X-22A)이 포함된다.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2. 추진기는 움직이지 않고 분류의 방향만을 변환시키는 벡 타드 슬라스트형식의 것(예 : HS.하리아,홀리랜드, VAK-191B).

3. 수직 상승용의 상향의 동력과 수평비행 추진용이 동력을 별도로 장비하는 형식(예 : 도루니에 D631, 닷소발삭크)이며, 콘파운드 헬리콥터 중에도 이 형식이 가장 많다.

4. 동일한 동력으로 상향의 추진기와 수평 비행용의 추진기와의 두 개를 가동하여, 비행상태에 응하여 쌍방의 추진 기구에의 파워의 배분을 조절하는 형식(예 : 라이안 XV-5B)로서 록히드 AH-56사이안, 콘파운드 헬리콥터도 같은 동력형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로 4개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이 형식 중 어느 형식이 가장 VTOL에 적합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그 최대의 이유는 VTOL기 전용의 엔진으로서의 결정적인 우수한 것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베크다트-슬라스트 엔진 B553페카사스가 겨우 완성될 지음에 있는 것과 로스로이스사가 같은 베크다트-슬라스트-엔진EB 193(추력 4,500kg)과, 리프트, 제트, 리프트, 후안 등의 1련의 추력/중비중의 커다란 경량소형 터빈-엔진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어찌서 이와 같이 엔진이 적으나 하면 수요공급의 문제로서, VTOL로서는 실용 양산되는 기체가 적으면 당연히 엔진의 생산수량도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채산이 맞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이다.

반대로 VTOL의 엔진생산자들이 채산을 고려하지 않고서 VTOL용의 좋은 엔진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결정적인 실용 VTOL기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서는 HS. 하리아와 같은 양산기(量産機)도 완성,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VTOL기는 현재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VTOL기의 현황

VTOL기의 역사도 어언 20년에 가깝고, 그간에 상당한 수의 시작기(試作機)가 개발되었다가 사라졌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체나 비행시험을 행한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기체 등, 현존하는 VTOL기 군을 살펴본다.

캐나다 CL-84 다이아 바트(캐나다)

테이루트-윙형식의 VTOL연구기로서 캐나다 국방생산성과 캐나다아사의 협력에 의하여 개발된 기체로서 계획의 개시는 1956년이라고 하며, 제1호기는 1964년 12월 9일에 시작, 기체는 대직경 프로펠러를 장착한 타보 후롭쌍발기이며, 1966년 1월 17일에 겨우 전환비행에 성공하여 그 후 영공군, NASA, 미국 등 3군에 의하여 평가시험도 행하여졌으나, 그 제1호기는 1967년 9월 12일에 프로펠러의 고장으로 추락하여 손실되고 말았다.

그러나 캐나다 공군에서는 본기의 실적을 보아 새로 3기의 개량형을 CX-84라고 해서 발주하여 그 1호기가 1969년 3월 31일 롤 아웃, 계속하여 나머지 2기도 69년내에 완성하였다.

연구기(研究機)라고는 하지만 동체 내부에 12석분의 카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며, VTOL 상태에서 1,050kg의 페이로트를 실을 수가 있다고 하는 실용기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실용시험으로서 내구력의 시험, 외부의 무장장착시험도 행해지고 있으며, 의외로 보다 빠르게 실용기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STOL 상태에서는 페이로드를 1,910kg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며, 캐나다와 같은 미 개발지역의 많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넓은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이카밍 T53, 1,500shp 타보샤후트-엔진 2기(基)를 장착하며, 전폭 10.2m, 전장 14.4m, 자중 3,725kg, 총중량 5,720kg(VTOL시), 순항속도 230kt의 상당히 큰 기체로서 동체후 하방에는 대형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이 있으며, 최초부터 범일 반용을 노린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동체의 끝부분에는 핏치자세제어 용의 작은 프로펠러를 장비하고 있는 점은 LTV의 XC-142A와 비슷하며 승무원 2명이다.

노오루 500(프랑스)

기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변향식(變向式) 타그멧트-프로펠러를 동체 양측에 장착한 마치 프랑스제 비슷한 이색적인 외향을 한 소형단좌(小型單座)의 VTOL 연구기이며, 동체후부에 병렬(並列)로 장착한 아리손 250 C18(T63A-5의 민간형) 타보샤후트-엔진 2기에 의하여 타그멧트-프로펠러를 돌린다.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노오루 500

고정익부분은 동체양측에 약간 있을 뿐, 날개라고 하기 보다는 타그멧트·프로펠러의 파이론의 감이 있으며, 주익이나 미익에도 타면(舵兩)은 전연 없으며, 타그멧트·프로펠러의 후부에 후류변향판이 있어 이 변향판의 조작과 프로펠러의 피치·콘트롤에 의하여 수평비행시에 기체의 자세제어를 행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수직 상승하강 시에는 프로펠러의 피치 변경이 방향타의 역할을 하며, 후류변경판(後流變更版)이 승강타와 엘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

타그멧트·프로펠러를 장착한 VTOL기는 미국의 도그 X-16(VZ-4)를 비롯해 VTOL연구기 X-22A를 만들고 있으나 이 형식은 로오타보다는 결과가 좋았으며, 더욱이 단순한 프로펠러보다도 정지추력이 훨씬 커다란 이점이 있으므로 소형중속(小型中速)의 VTOL기에 있어서 두드러진 형식이라고 보며, 노오루 사에서도 이 이점에 착안하여 본기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작기는 2기가 제작되어 제1호기는 1967년 4월에서 지상운전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비행 시험용의 2호기가 1967년 같이 비행시험을 시험하고 있으나 자유비행은 아직까지 실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전폭 6.14m, 전장 6.6m, 전비중량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1,250kg의 적은 기체이며, 완전한 실험연구기이지만 노오루사에서는 본기에 의하여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T-55 타보·샤후트·엔진 쌍발의 6-7인승의 실용형 VTOL기 노오루 501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토루니에 Do 13(서독)

세계 최초의 VTOL제트수송기로서의 첨단을 걷고자 개발. 비행시험이 행해지고 있는 기체로서 토루니에사가 자체개발기로서 1959년부터 계획을 진행하여 이것을 독일 국방성이 원조하여 시험용기로서 2기를 제작한 후에 Do 31E1E3의 3기의 실험기가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E2는 구조강도 시험용의 기체이다.)

이 비행기는 고속전술용 VSTOL 수송기를 목표로 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기체의 크기도 구라만 C-2에 거의 필적하는 것으로서 동체후부에는 로팅, 램프 겸용의 대형화물문이 설치되고 있다.

BS 베카스, 베그다트, 슬라스트·엔진(7,000kg) 2기 외에 양주익당에 RR·RB-162 리프트·제트(2,000kg) 4기를 장착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기체중량도 VTOL 상태에서 22,500kg가 된다.

비행시험용의 Do31-E1은 리프트·제트를 장비하지 않는 통상 비행시험용의 기체로 1965년 11월 30일에 일단 정지하였다가 종종 지상시험을 한 후 1967년 2월 10일에 초비행에 성공, 계속하여 성공한 리프트·제트 장착의 Do 31E3은 1967년 12월 16일에 최초로 전환비행에 성공하여 이어 12월 21일에 완전한 수평비행을 포함한 VTOL 비행에 성공하였다.

E3은 그 후 1968년 중에 23회의 VTOL비행을 포함한 실용시험단계로 진행하여 동년 6월에 파리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하여 관중의 면전에서 그 비행 모습을 보였다.

그 후 서독정부의 국방예산 긴축정책에 따라 본기에 대한 독일국방성의 원조가 단절되고, 또한 본기에 따른 본격적인 대형 VSTOL수송기 Do 231의 계획이 본격화하므로 본기의 실험은 1970년에 종결되었다.

최초부터 고속 전술수송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된 기체였으며, 순항속도 350-400kt, 해면상승율 1,150m/min, 실용상승한도 10,700m라고 하는 훌륭히 세간에 통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

VFW VAK-191B(서독)

영·독·이 3개국의 협동개발에 의하여 휘아트 G91 공격/정찰기의 후계로서

계획되었다.

VTOL공격/정찰기로서 1963년부터 개발이 계속되어, 1970년 4월 24일 겨우 시작되어 1971년에는 자유비행에 접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개발도중에 이태리가 손을 빼고, 또한 서독정부 내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실용화와 양산의 계획은 파산됨으로써 단순한 실험기로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기체로 하락되고 말았다.

기체는 동체의 중앙부에 이 기체를 위해 영·독 공동개발을 행한 톨스로이스 EB.193(추력 4,600kg) 베그다트·슬라스트·엔진 (BS. 베칸사스와 같은 형식의 것)을 1기 장착하여 그 전후에 리프트·제트·엔진, R. R. RB162(추력2,530kg)를 각 1기 장착한 동력배치로서 마치 HS-헤리아의 동체를 보다 길게 하여 리프트·제트를 추가 장비한 것과 같은 형을 하고 있으며, 장착장치도 또한 양익간에 보조차륜을 가진 자전차 형식의 것이다.

기체의 크기는 전폭 6.16m, 전장 16.3m, 전비중량 7,500kg이며, 전반적으로 HS-헤리아와 비슷하며, 성능면에서도 천 음속정도로서 그다지 새로운 감은 없다. 시작기는 전부가 3기를 제작하기로 되었으며, 2호기도 이미 완성하여 하노바의 에어쇼에 등장되었었다.

호카 시드레 · 하리아(영국)

현재 세계 중 유일하게 양산되고 있는 실용형 V/STOL기이며, 개발의 역사도 깊어 항공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간에 알려진 비행기이다.

하리아의 원형 호카 P1127이 세계 최초의 전술용 VTOL기를 목표로 하여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57년이며, 이것은 그보다 약 1년 전에 부리스톨사에서 VTOL기 전용 베그다트·슬라스트, 엔진베가사스의 개발에 착수 이것을 탑재하는 기체로 계획한 것이다.

이 부리스톨 BS53엔진이 1959년 9월 1일에 시운전에 성공하여 1960년에는 영국정부에서 정식으로 호카사에 대하여 P1127의 원형 2기, 개발형 4기를 발주했으며, 그때 이미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던 원형 1호기는 60년 10월 21일에 줄에 묶이운체 호바링에 성공, 이어 11월 19일에는 자유 상태에서 호바링 비행에 성공하여 또 다시 익 1961년 3월 13일에는 통상 비행상태에서 초비행을 실시하는 등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개개의 비행 상태에 있어서

비행자료를 수립하는 한편, 완전 전환비행용의 2호기가 1961년 7월에 완성하여 9월 12일에는 완전 VTOL비행에 성공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완성한 4기의 개발형기를 합한 비행시험은 야간 VTOL비행, 초음속비행, 항공모함에서의 이착함에서의 고도의 실용시험단계로 진행되었으나 결코 그 실험은 평탄한 것이 아니며 이 중 4기가 사고로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동안 1961년에는 영·미·서독 3개국 공동에 의한 작전능력 평가시험이 계획되어 이 때문에 새로 9기의 실용시험기가 발주되었다.

이들의 기체는 게스트텔이라고 불리워져 엔진을 베가사스(추력 6,900kg)로 강화한 것으로서, 이 실용시험기의 완성을 기다려 1964년 10월에는 3국 협동평가시험비행대가 편성되어 65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광범한 실용 평가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험의 종료 후 9기의 게스트텔은 미국으로 보내져 XV-6A의 이름으로 미 공군과 NASA의 평가시험을 받고, 이것이 오늘의 헤아리 미군채용의 요인이었다.

이들의 실용시험을 하면서 한편 1965년에는 겨우 6기의 생산전기형(生産前期型)의 발주가 행해져 1966년 8월 31일에 그 제1호기가 초비행에 성공하였으며, 67년 7월에는 6기 전의 인도가 완료하였다.

이들의 기체는 엔진이 베카사스 6(추력 8,600kg)로 강화되어 명칭도 헤리아로 고쳐지는 한편, 기체 각부에 철저하게 개량이 가해졌고, 실용전투공격기로서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실용기체로서 거의 완성한 헤리아는 정식으로 영 공군의 실전부대에 배속되게 됐고, 전투공격기 GR.1로서 77기가 발주되어 그 제1호기가 1967년 12월 28일에 초비행에 성공, 67년 4월에는 부대편성이 개시되어 연내에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태세를 완료하였다.

또한 영 공군에 이어 미 해병대에서도 AV-8A의 호칭으로 이 비행기를 지원 공격기로서 채용하게 되었으며, 1970년 회계년도에서 12기를, 이어 1971년 회계년도에서는 18기를 구입하기로 돼있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약 100기를 정비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전술기와 병행하여 복좌의 연습기형 T.2의 개발이 진행되어 제1호기는 1969년 4월 24일에 초비행에 성공 현재 영 공군에서 13기의 발주를 받고 있다.

영 공군에서는 헤리아의 승원을 양성하기 위해 우선 요원에 12시간의 헬리콥터 훈련을 시키고, 그 후 T.2에 의한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40-50시간의 훈련을 행한 후에 실용훈련으로 이행(移行)시키는 과정을 정하고 있으며, T2는 각 비행대에 수기식이 배속하게 돼 있다.

헤리아는 동체의 양측에 2개식의 제트 분기공(噴氣孔)을 가지고 있으며, 베그다트·스라스트방식에 의하여 통상의 이착륙에서 수직 이착륙이 된다.

모든 이륙방법의 가능한 V/STOL기이며, 주익 하면에 좌우 각 2개소, 동체 하면에 3개소의 무장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동체 하면에는 정찰용 카메라와 또는 30mm기관포가, 2개 장착되며, 또한 날개 하면에는 기름 탱크, 탄약로켓탄, 사이드와인더-AAM 등 각종의 병기를 장착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체의 크기는 전폭이 7.7m, 전장이 13.9m, 익면적 18.7㎡, 자중 7,260kg 비행 성능은 수평 최대속도 마하 1.25, 상용 최대속도 마하 0.9와 동급의 지원공격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현상(現狀)으로서는 VTOL의 경우, 무장탑재량이 적기는 하나 STOL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3,630kg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베키사스엔진의 보다 강력한 형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장래는 보다 강력한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해서 실전부대에 배속이 된 헤리아가 어디까지 유효한 작전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결론은 또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용병연구가 진행되어 적절한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헤리아는 세계 각국에서 전선부대 지원기로서 운용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는 다음 세대의 VTOL기 변형의 기초가 될 것이다.

OLTVXC-142A<미국>

미 육해공 3군 공용의 V/STOL 수송기로서 링·템코·보트사, 히라사, 라이안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기체로서 출력 3,080Shp의 T64-GE-1 타보호롭브·엔진 4기를 장착한 테일트·우잉 형식의 기체로서는 세계 최대의 위용을 과시하는 본격적인 수송기이며, 동체후부에는 로딩·랩프 겸용의 대형화물문이 달려 있다.

개발은 미 공군이 담당하여 원형기 5기가 발주되어 제1호기는 1964년 6월 17일에 시험, 65년 1월 11일에 초 전환비행에 성공하였다.

그 후 시험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작기 5기의 완성을 기다려 실용평가 시험에 들어가 66년 5월에는 항공모함에서의 VTOL 발착함(發着艦)시험에도 성공 또한 중량물 투하, 재난구조작업 등

<전개되어 가는 VTOL의 세계>

에도 제법 좋은 성정을 보였으며, 실용성이 높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 평가시험 중 조종사의 실수에 의하여 2기가 파손하였으며, 또다시 1967년에 일기가 추락 손실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이 종류의 기체는 불경제라는 판단이 내려져 군의 실용 실험은 중단되었고, 현재는 NASA의 손에의 하여 비행시험이 계속되고 있으나 수송기로서의 VTOL기의 전도는 허다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코프레드 후리한드(소련)

1967년 토모테토보 공항에서 개최된 에어쇼에 돌연 출현, 서구 측의 주목을 끌었다. 근대적인 형체로서 제트 V/STOL기이며, 지원공격기를 목표로 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비행기는 기수하면에 터보 제트·엔진 2기를 병렬(並列)로 장착하여 그 분류를 중심 위치 부근의 동체하면의 변향 노즐에서 분사하여 제트의 방향을 바꾸는 베구다트·스라스트형식의 VTOL기이며, 헤리아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

VTOL기용 엔진에 관하여

VTOL기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최대의 조건은 엔진의 중량에 비하여 출력이 훨씬 많은, 즉 경량으로 강 출력의 엔진이라야 한다.

즉 100kg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의 무게가 100kg인 경우에는 이 엔진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힘은 영(零)이며, 출력과 중량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직으로 물건을 올리는 힘이 커진다.

VTOL기의 동력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추력/중량비의 크기가 문제된다.

그리고 추력/중량비의 커다란 엔진이 만들어진다면 실용형의 VTOL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내일의 성공을 위하여

이상 VTOL기의 현상에 대하여 나열하였으나 현재의 VTOL기 처해 있는 위치가 전술한 바도 있지만 그다지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엔진의 진보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와 VTOL 비행시험의 집적에 의하여 내일의 VTOL기는 보다 실용적이며, 경제적 교통기관으로서 발전해 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지에서>

육 · 해 · 공 — 3차원 시대의 체계분석

—FORTUNE지에서—

중령 김진화 <역>

「체계분석(Systems analysis)이라는 새로운 수법이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는 그 실례들이 대개 기밀의 울타리 안에 굳게 갇혀 있기 때문에 팬 타곤 이외의 세계에서는 이를 실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효과는 대단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실은 내용은 공중 및 해상수송 능력에 미친 체계분석의 효과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한 가지 사례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리바트S 맥나마라씨가 미합중국 국방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천명한 몇 가지 사항 중 공수능력의 시급한 증강은 그가 특히 역점을 둔 과제였다. 그는 체계분석담당 차관보였던 엘레인·앤토벤의 체계분석 팀을 불러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 국방성에서 앞으로 신규 발주해야 할 수송기는 몇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 당시 생산 중에 있던 최신 기종의 수송기로는 록히드사의 C-130E와 보잉의 C-135뿐이었다. C-130 E는 단거리 활주로 상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트럭에 실은 짐을 기체에 옮겨 싣기가 용이하며 공중투하 보급용으로도 쓸 수 있으나 비교적 적재량이 적은 터보프로프 수송기로서 항속거리가 종전보다는 좀 더 길어진 것이 그 특색이었다. 한편 보잉 C-135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대형의 기체를 가진 제트수송기로서 현대화된 활주로 시설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육 · 해 · 공, 3차원 시대의 체계분석>

내린 결론은 FY1962년도 예산편성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49대의 C-130E, 그리고 30대의 C-135를 더 사들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그들이 적용한 분석방법은 오늘날의 기준 하에서 평가할 때 속도적이고 영성한 것이었다. 맥나마라장관의 그다음 질문은 이 두 가지 기종의 후계자가 될 록히드 C-141에 관한 질문이었다.

C-141은 항속거리와 속도면에서 이 두 기종을 능가하며 5,000파운드 이상의 짐을 운반할 수 있고, 5,000피트의 활주로 상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수송기로서 현대 공수분야의 기술진이 개가를 올릴 만큼 획기적 성능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 이상의 수송기도 바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맥나마라장관은 그 수송기가 담당하게 될 임무에 어느 정도로 적합하겠는가, 즉 그 수송기의 적합성에 관해서 또다시 질문을 재개하였다. 장관실에서는 질문이 속출되었고 이에 응답하는 동안 분석관들은 C-141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토해 놓았다. 그중 한 가지 문제는 덩치가 큰 짐(Outsize cargo)을 C-141이 감당 못 한다는 난점이었는데 그 기체의 구조(Configuration)상 다글라스 C-133과 같은 타 기종이라면 쉽게 실을 수 있는 짐을 못 싣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대형장비는 경무장 공정사단이라면 없어도 되는 장비이지만 미국의 제한 전쟁에 대한 맥나마라장관의 견해에 따른다면 중무장 보병사단에는 필수장비로 되어 있었다. 여하간에 맥나마라장관은 1961년 후반기 초에 와서야 보병사단장비의 3분지 1가량이 C-141에 맞지 않아 적재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적재 중량과 체적과의 상호배치현상(Mis match)을 발견했는데 다시 말해서 군용장비와 물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해서 실어 보았을 때 원래의 설계적재량(중량)이 채 되기도 전에 짐이 꼭 차 버리는 일이 많았다. 맥나마라장관은 이와 같은 불균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한다면 이로 인해서 C-141수송기 개발계획이 얼마나 지연되었는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이는 너무 무리한 지연이었다.)은 지연될 것이며, 위의 단점은 시정하다 보면 항공기의 성능에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도 지적이 되었다. 맥나마라는 C-141의 설계개발에 착수할 것을 동의했고, 1963년 12월달에는 시험비행이 실시되었다. 1965년 봄부터 운용단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며 동년 5월말까지는 모두 29대가 이미 취역되고 있었다. 1961년 말에 이르렀을 무렵

신속한 부대 전개(Rapid deployment)의 과제는 지속적인 분석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C-130E와 C-135E수송기가 계속 증강되고 이어서 C-141이 새로 등장함에 따라 체계분석 담당관들은 최대효과의 전력을 조성할 수 있는 기종 혼합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제는 한편 이 세 가지 기종의 수송기가 맡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임무에 대한 연구에 분석담당관들을 몰두케 하였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좀 더 효율이 좋은 항공기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항공기 이외에 무슨 대안이 없겠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주로 두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가령 「타일랜드」와 같은 해외기지에 장비를 사전 배치해 두는 방안과 대형선박들을 이용해서 해외에 사전 배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었다. 육지에 물자를 비축하여 두는 방안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공수문제와의 상호관계를 놓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육상에 물자를 사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이 C-141의 문제로부터 싹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담당관들 머리에 떠올랐던 아이디어는 비행기로 나르지 못할 만큼 부피가 큰 여러 가지 물자는 비교적 저가격품목들로서 유지가 용이하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해외기지에다 저장해 두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어느 품목이 설사 적시 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고 마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많은 품목을 모두 제때에 제자리에 비행기로 날라 주려고 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생각해 본다면 다소의 희생을 무릅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었다. 장비와 물자를 해외에 사전 비축하는데 선박을 이용해 보자는 방안은 이보다는 좀 더 새로운 착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방안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팬타곤의 현직분석관들이 아니라 기획연구단(Planning Research Cap)이라고 하는 외부의 경영진단(상담) 전문가들이었다. 이 방안의 구체적 내용인즉, 해외의 전략적 요소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복구선박 비토리호 등에 각종 장비를 적재해 둔다는 안이었다. 맥나마라 장관은 소위 이동식 전방해 상창의 역할을 하게 될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으며 현재 3척의 선박이 비올빈의 수빅 만주위에 정박 취역중에 있다.

이와 같이 물자의 사전 배치 방안이 점차 관심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군당국이 새로운 대형수송기 개발안을 맥나마라 장관에게 설득시키지 못한 한 가지 이유였다고 한다. 1963년 봄에는 육군의 현역 장비 중 가장 부피가 큰 품목만을 주로 수송해 온 C-133(이 기종은 원래 애틀러스나 타이탄미사일을 운반토록 설계된 것임)수송기에 심각한 정비지원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맥나마라 장관은 금후에 새로 개발된 여하한 수송기라 할지라도 덩치 큰 화물을 운반하는데 그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공군당국에 대해서 자기는 새로운 수송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수송기는 물자 사전배치 안에 비해서 비용 대 효과면(Cost-effectiveness, basis)에서 충분히 경쟁상대가 되는 것이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공군당국과 엔토벤의 체계분석담당관들은 실로 우수한 경쟁대상이 될 수 있는 수송기—즉 여하한 육군사단병력과 장비라도 이를 모두 싣고 전투지역 내의 최전방에까지 날라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송기에 대해서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수송기에 대한 설계검토 작업이 공군당국을 주축으로 보잉, 다글라스 및 록히드사에 의해서 급진전되었고, 1963년 가을에는 이 작업 결과가 획기적인 새로운 설계제안서(Design proposal)로 굳혀지게 되었다. 이 제안서 내용은 사뭇 흥분까지 자아낼 정도의 것이었다. 이 수송기가 취약하게 되면 C-141보다도 3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전체 운영비는 불과 C-141의 50% 정도밖에 더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C-141에 비해서 적재중량과 스페이스 활용을 위한 양자의 균형이 월등히 향상되었고 그 당시에는 경량급 쌍발항공기에 밖에 적합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 착륙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수송기를 제작하는데(물론 거액의 개발비가 들기는 하겠으나) 특별히 과학의 신분야 개척(Scientific breakthrough)을 요하지 않는 현 과학수준의 항공기(State-of-the-art plane)라는 점이 특색이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수송기의 비용 대 효과는 간단한 질문에 그치는 의문점이었다. 즉 그 수송기가 과연 제시된 작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만큼 거액의 개발비를 들일만한 가치 있는 수송기란 말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질문은 그 해답을 구하려 드니 역시 여기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생겨 나왔다.

소기의 공수 능력이 그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강화(증가)된 것이 아닐바에야

그만큼 개발비를 투자할 가치는 확실히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강화되는 것이어야 하겠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봉착했던 것이다.

엔트벤 차관보실의 신속전개 담당분석관들로 구성된 팀(존 켈라씨가 주도적)이 내린 결론은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을 2,000톤의 추가공수능력으로 본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이만한 중량의 짐을 30일 이내에 세계 어느 곳이나 공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요로 할 때 비로소 그 운용 효율이 그 수송기의 수명기한 내에, 투자한 개발비에 맞먹는 감가상각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쉽게 말해서 본전을 찾게 된다)는 말이다. 켈라의 연구조는 이처럼 공수소요가 상당한 증가를 보여 주는 좋은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963년 가을에 그들은 그들이 계산한 숫자를 맥나마라 앞에 제시해 놓았으며 그가 이 신기종을 아무 의의 없이 승인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맥나마라 장관은 이 공수소요가 사실상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표시했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채택할 가망이 짙은 전략적 방안들이 과연 이처럼 획기적으로 증속(增速)된 부대전개를 정말 요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환언하면 어느 일정한 수준의 투자비 한도 내에서는 오히려 반응 속도를 조금 더 줄이는 편이 타당치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맥나마라는 제시된 새로운 능력(증강)에 대한 금액(dollar value)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issue)에 관해서 켈라씨는 최근에 이와 같이 논평하고 있다. 물론 일정한 정가(price)를 붙여 놓았을 때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빠르고 더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기종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얻고자 하는 이익(소득)은 그 이상의 증가를 보이지 않고 돈만 더 들게 되어 마지막에는 술한 돈을 허무하게 써버리게 될 것이다.

신속반응을 위한 부대전개에 대한 추가적인 값을 일정선에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맥나마라 장관은 합동참모본부(JCS)에 분석을 의뢰했다. 합참은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이 제시하는 군사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그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1962년도에 조직된 군사체계분석 전문기구의 한 개 팀이었던 특수연구조(Special Studies Group)에게 이 문제를 던져주었다. 연구 조에게 의뢰한 문제는 한국, 동남아세아 및 이란의 3개 지역을 지정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이한 전략(가능성 있는 방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 어떠한

부대전개소요가 나올 것인가, 즉 그 3개 지역에 대한 신속 반응과 그에 따른 전개소요(Rapid-deployment requirements)를 검토하는 과제였다. 가능성 있는 전략으로서 (1), 불과 2-3일 내에 완전무장한 전투 병력을 전투지역 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에 역점을 두는 전초(前哨)전략(Forward strategy) (2), 우선 발붙일 수 있는 임시 거점 확보 이상의 능력은 당장은 필요치 않고 거점 확보 후에 서서히 병력을 증강하면서 1개월 내외의 기간을 두고 격전을 치루게 되리라는 가정 하에 설정한 방어전략(Defensive strategy), 그리고 (3), 이 두 가지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양극단의 능력에 속하지 않고 그 중간의 어느 부분을 차지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서 설정한 중간(절충식) 전략(Intermediate strategy)을 각각 제시해 주었다.

20억불로 낙착된 흥정

1964년 7월에 상정된 이 연구조의 보고서는 오늘날까지 펜타곤에서 체계분석의 획기적 업적(landmark)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만을 제시하면 완전무장한 전투 병력을 신속히 전개하는 방안은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코스트와 전쟁을 조속히 종결 지우는데 요하는 경제적 부담—가령 예비역 동원에 투입되는 코스트 등을 상호 비교해서 그 상대적 비중을 따진 것이며 결론적으로 사상지수와 전비를 따져 볼 때 가장 큰 부담은 전쟁을 오래 끌게 됨으로써 현저히 나타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이 전초 전략이 가장 경제성이 큰 율등한 방안이었다. 만약 이 세 가지 전략이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경우 방어전략을 위한 상한선은 100억불 이상으로 예측되었고 양 개방안을 절충하는 어느 중간치를 택하더라도 그 상한선은 상당한 거액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속반응전략을 위한 부대전개안은 타 안에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은 흥정거리(Exceedingly good buy)라고 할 수 있었고, 대량으로 이를 사들일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한편 공군당국과 제작회사는 최초의 설계도를 재검토한 결과 비용대 효과가 현저히 향상된 항공기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맥나마라 장관 앞에 내놓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의 즉각 착수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그 당시까지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수송기는 72만 5천 파운드의 이륙중량(CU1은 31만 6천 파운드)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운영비(적어도 C-141보다는 40퍼센트나

덜 드는)로 작전 가능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널리 알려진 C-5A수송기이며, 1970년대 초까지는 적절한 규모의 운영전력(Modest force)으로써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20억불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팬타곤의 계획이었다고 한다. 또 한편 해군 측에서는 신속반응 부대전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해군에서 연구 검토한 몇 가지 과제의 최종 결과가 완성되어 현재 FDL(에프.디.엘)이라고 불리는 신속반응 전개용 후방지원선(Fast deployment logistics ships)으로써 전초해상보급창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이 연구는 해군 내의 체계 분석팀이 자진해서 담당했고 맥나마라 장관의 요청으로 별도 추진되어 왔다.) 이 FDL은 대략 24루트 정도의 고속선으로서 항공기용 개스터빈 엔진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이 선박의 특징이다. 항만에서는 5천 톤의 육군용 장비를 신속히 싣고 또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수륙양용차량을 이용해서 적재하물을 상륙연안에 실어 나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선박에 관해서 무엇보다 가장 흥미 있는 사실은 전초해상보급창으로써 공해상에서 자유로이 항해하며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어느 항구에서도 함정에 빠질 만한 일은 거의 없고 또한 국제분쟁의 불을 지르는 일 없이 잠재적 위기조성지역(Potential trouble zone)을 향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선박이 약 80척 정도 취역될 것이라고 한다.

미 공군이나 해군이나 공히 이 신속반응전략에 따르는 부대전개에 대해서는 최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박대통령 문언록>

발전과 변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와 난관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이며, 따라서 지금 우리는 민족의 자립과 통일을 향한 우리들의 노력의 과정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과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더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노력을 다 해야 할 엄숙한 시점에 놓여 있다.

새 시대의 성(性)윤리문제



성(性)의 비 신화화

군목 · 이 영 렬

- 시대는 항상 새로워진다. 「항상 새로워진다」란 말은 「변」한다.
- 는 말이다. 그렇다면 「성」에 대한 견해는 지금 어떻게 되었으며,
- 거기 대한 「윤리규제」는 「변」할 수 없는 것인가? 변한다면
- 어디까지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1. 성 윤리의 문제성

이혼한 55세의 한 여자가 동 연배의 남자와 더불어 재혼하려고 할 때 그 남자의 성 기능을 살펴본 후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시험해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품행이 방정하고 사회에 명망이 있는 어떤 중년여성은 자기가 너무 늙기 전에 성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자기의 친구 남편과, 수년간 몰래 관계해 왔는데 마음에 하등 가책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 미국에서 결혼하는 젊은 여성의 반은 처녀가 아닌 것이 상식인데 그 결혼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가 다 같이 처녀성이나 동정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있다.

오늘날과 같이 피임에 대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도 펄벅 여사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는 연간 35만 명이나 되는 사생아가 생기고 있다는 말도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경우만이 아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이미 중소 도시의 여관이나 여인숙은 물론, 시골의 으스스한 장소에 서는 벌써 이런 성 교제가 성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김상모씨가 조사한 복수 사회인의 성 모럴과 실제 문제를 보면 군대에 들어온 군인 422명 중, 결혼 전에 성경험을 갖은 자가 399명(94.3)이나 된다고 하며 그 가운데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경험을 갖은 자만도 102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덕의 문제가 피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떨어진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윤리규제가 그 권위를 상실한 증거이며, 소위 윤리적 무정부 상태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성 윤리는 이대로 가다가 그 용어마저 없어져 버릴 것인가? 혁명의 물결은 모든 분야에서 막 덮치고 있는데 윤리분야만은 의연히 이 물결을 물리쳐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있어서 잡아야 할 윤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오늘에 당면한 실제 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도덕의 법칙은 변치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에서 보면 새 윤리 수립이란 용어는 그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친구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든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기본적 도덕관념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시대, 한 사회에 적합한 도덕이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도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도덕은 인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전하고 문화의 향상을 촉진하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개인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그 존재의미인 것이다. 또한 윤리가 접착하게 되는 사회는 경제, 정치, 교육 등 그 사정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아니하며, 비록 같은 사회일지라도 시대를 따라 늘 변동하는 것이 원칙일 뿐 아니라 시대나 지역이 변함에 따라서 그 사회가 당면하는 실적 문제들의 성질도 달라짐이 사실이라고 볼 때 어찌 획일적 불변의 윤리도덕이 아무데나 적용될 수 있겠는가!

경제, 정치, 종교, 예술이 그렇듯이 윤리도 그 구체상에 있어서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도덕이라는 현상이 단독적인 발전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현상들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경제, 정치, 기타 모든 사회현상이 역사적인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도덕만 홀로 한결같은 모습을 지킬 수도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구체적 행동규범은 그 시대의 특수성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김태길씨의 말은 타당하다.

지금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수박통 같은 유방이 화면에서 출렁대고 있는 시대에 처해 있다. 최음적(催淫的) 광고판이 밀림을 이루고, 알몸을 들어낸 도색잡지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다. 칼칼한 목청으로 성욕을 충동하는 여가수의 노래가 트랜지스터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과연 청교도적이고, 유교적 윤리관이 어떤 그대로 권위 있게 인종될 리가 없다. 더구나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언제 어디서 영별할지도 모를 젊은 남녀가 청교도적 윤리관에



서 청춘을 순화(殉華)시킬 수 있겠는가! 사랑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단지 부부라는 면허 아래서 성적 자극과 쾌감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로서 정사라도 할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런 젊은 남녀에게 그어놓은 넘지 못할 선의 도덕율은 과연 얼마나 먹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임신이나 성병의 공포가 피임약과 항생제에 의하여 이미 신화화된 오늘에 있어서 끓어오르는 젊음의 정욕을 과거의 도덕율이 과연 냉각시킬 수 있겠는가! 새 시대의 개척자요 기수요, 영웅이라고 자처하는 히피족에게서 볼 때 과거의 도덕율은 젊은이들의 적이요, 자기들은 위대한 해방을 위한 생전의 투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풍조에 대하여 과연, 낡은 도덕율은 얼마만큼이나 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새 시대에 처한 새 윤리는 필연적으로 그 요청이 불가피한 것이다.

2. 성과 사랑의 질서



원시 농경시대의 성은 생식수단에 그 가치를 두었으며 성은 주로 음성적으로 다루어졌다. 현대에 와서는 성은 일종의 상업수단에 크게 이용되고 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양성화돼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의 가치가 생식이나 영리에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성은 자신의 쾌락에 참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곧 성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다. 이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성 본능은 원시인이나, 앞으로 날게 될 후손들이나, 그리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연령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다고는 하지만 모두 똑같이 느끼는 것이며 그 감정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윤리란 것은 이런 변치 않는 성의 본능에 기초해서 수립한, 인위적인 제도이며, 그것은 본능 뒤에서 따라 생긴 부차적인 질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성 자체와 성 윤리는 그 자리를 완전히 전도해서 윤리가 마치 군주나 된 것처럼 치자(治者)의 위치

에서 성 자체를 죄악시하고 심판하고 있다. 더러운 오물이나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수치심을 조장시켜서 성 자체를 경멸한다. 그리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은 그 근거를 자기 생리나 경험에서 찾지 않고 멀리 아담의 신화에서까지 소급해서 거기서 꾸며 낸다. 플라톤은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고, 공자는 어떻고, 예수는 어떻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정직하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몇 마디의 말을 인용해서 현재의 원리로 삼는다. 이것은 한국 속담에 얽은 얘기 삼 년 찾는다는 격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성의 비밀과 가치를 고전 문헌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성은 쾌락에서 가치를 찾아야 정직하다. 미의 기원을 성적 기관의 쾌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정복 승리하는 것을 쾌의 극치라고 주장하는 미학상의 향락주의를 따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성의 본질이 쾌감에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쾌락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다. 오직 향락만을 지고(至高)의 목적으로 하는 향락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면에서 기독교가 정죄(定罪)하지만, 신 아래에서의 쾌락은 일종의 천국모형이기도 한 것이다. 남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써 느끼는 쾌감, 장엄한 산수를 관광하고 느끼는 쾌감, 안마를 받을 때의 몸의 쾌감,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고백받았을 때의 쾌감, 사랑하는 이와 키스를 하거나 성행위를 가졌을 때의 쾌감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유쾌한 것이고 기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쾌락 가운데서 특별히 성적 쾌락만을 가려내서 그것을 죄악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혹 그런 행위가 책임과 질서면에서 유해하다고 단정해서 그렇게 미리 정죄한다면 그런 유해 가능성은 유독 성행위에서만 있다는 말인가?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심지어 믿는 것까지를 모두 자기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누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도리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행위는 드러내 놓고



공정한다. 그러면서도 하필이면 왜 성만은 야반의 도둑처럼 스스로가 숨어야 하고, 드러나면 부끄러워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야 하는가, 더구나 그렇게도 소중하게, 신비하게 가꾸고 보호하던 성이, 단지 결혼예식이란 형식을 치룬 뒤에는 부부간 싸움이 있든지 미워하든지, 학대가 있든지 간에 그냥 상대방의 소유물로 취급되어도 아무말 못하는 윤리규제는 어딘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여튼 성이 먹는 것과 동일한 본능에 속해 있으면서도 항상 서자취급을 받거나 마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릇된 관념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칼발트가 성을 비 악마화하라고 지적한 말은 적절한 견해이며 성을 무슨 야비한 것이나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하르나크의 말은 타당하다. 동시에 성적 정력은 생의 정력이고 또 창조적 생(生)을 이루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한 김은우씨의 말은 정당하다.

일과 후 도시의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어떤 시기로운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제 나름의 성 능력을 갖추고서, 많은 남녀들과 더불어 유통하지만 밤에 이르러 취하는 잠자리는 결혼여부에 따라서 엄격히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예외가 점차 증가 일로에 있지만...)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그 권위를 지탱해 가는 결혼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으며, 거기서 오는 문제점은 없는가.

창세기에 의하면 결혼은 인류 시조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일부다처제도도 있기는 했으나 하여튼 가정을 단위로 만든 결혼제도는 분명히 원시사회 때부터 내려온 전습인 것만은 틀림없다. 추측건대 이런 제도는 난륜(亂倫)에서 오는 병의 만연을 막고, 종족 번식을 피하기 위한 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때의 여성은 그 신분에서 있어서 소나 나귀와 같아 남자의 소유권 안에 든 존재였던 것이다. 그것은 유목시대 뿐 아니라 농경시대에서도 또 최근 공업사회에 이르러서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소유관념적 유품은 계속 내려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가정을 단위로 한 질서는 필요한 것이고 또한 가정을 이루는 계기로의 결혼도 또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녀 간에 결혼하는 것은 인종의 계승을 위해 관계하는 생리적 기능만으로 아니고, 질서를 위한 제약제도만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만 하는 절차도 아닌 것이다. 결혼은 인간과 인간이 주체적 인격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점착(粘着)시키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과는 뜻이 다르다. 장난감이나 비인격적 사물에 대해서는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내나 남편을 좋아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벌써 인격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끼리는 미워하던지 무관심하던지, 사랑하던지 그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성에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이런 인간관계에 뛰어들어서 그 관계성을 정상화하도록 교정하고 화해시키는 것이다. 기독교는 성과 생리를 따지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니다.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신 사이의 위치와 관계를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고 화목케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인 것이다. 이럴 때의 사랑은 비타산적, 자기 증여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은 단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중(多重)이어야 하며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혈연이나 지연에 따라서 사랑을 한정 짓는 것은 그리스도 본정신이 아니며, 질투란 심리적 현실성 때문에 사랑의 한계가 제약된다면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애정관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윤리는 인간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질투를 합리화시켜서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죄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결혼한 남자는 아내의 질투 때문에 과부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제약받고 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 된 사람은 전에 사귀어 오던 다른 남자를 문병조차 못하고 있다. 이래서 결혼



한 남녀는 그토록 짜여진 기성 도덕을 때문에 사랑의 폭을 가정 안에 묶어 버리고 만다. 우리가 어린애였을 때는 사랑을 누구에게도, 또 누구한테서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오직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한정돼 있는 것이 현하의 제도가 아닌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이런 이명 아래에서 사랑의 주체적 확대가 제약되고 대중적 사랑의 폭이 축소 부정된다면 그런 기초 위에서 이뤄지는 결혼의 가치를 기독교는 과연 긍정해야 할 것인가? 가정에 부실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게 될 때 그래도 나눠줄 수 없느니라란 성구를 제시하고 기독교는 다만 사랑하라란 주문만 외우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성의 행동권 측정으로써의 결혼관이나 사랑이 따르지 않는 제도로써의 결혼관은 마땅히 재고의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과 결혼을 평면적 관점에서 보아 왔지만 이제야 성과 사랑과 결혼이 입체적 견지에서 인간관계가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을 무시한 이성간의 사랑은 진실이 아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무의미하다. 동시에 결혼 없는 사랑은 질서를 해친다. 이렇게 그 어느 하나도 구김살 없이 존중되고 이해되고 운용되어야만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는 복음을 외쳐야 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정죄나 심판이 아니다. 결혼 전 청년에게나 다중적 사랑의 체험에 헌신하려는 기혼 남녀나, 혹은 애정 없이 지친 부부에 게나 할 것 없이 복음은 용서와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그 정황에 따라서 요기와 격려를 주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전쟁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혼자된 남녀들에게 대해서 기독교는 과감하게 그들을 붙들고 생의 원초적 권리를 찾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성의 비신화화

이상에서 말한 인간의 내면적 갈등은 우연한데서 온 결과 아니다.



거기에는 벌써 세계 문화의 영향이 이미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Comte는 현대를 실증주의적 단계라고 말하고 우리의 시대 경륜을 산업사회로 과학시대라고 일컫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유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성숙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C·Van Penrsen은 현대를 기능적 시대라고 일컫고 기능적 시대에 있어서의 실재는 관계나 기능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Harvey Cox도 현대 문화를 기술문화라고 표현하고 이 기술문화의 특성은 무명성(無名性)과 유동성(流動性)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앞으로 기계화된 서구문명은 통솔 공업화란 새로운 산업 체제를 이루어 실직자라 하더라도 연간 최저 생활비를 국가가 그냥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겨지는 여가(餘暇)의 문제 소비의 문제가 성과 관련하여 당연히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가정만 보더라도 과거의 주부는 집에서 매우 바빴다. 그러나 문화의 발달이 연료, 수도, 세탁, 미용, 육아, 교육, 의상 심지어는 신발 닦기까지 거의 전부가 기능화되고 그것은 모두 전문가에 의해서 해 나가도록 돼 있다. 주부는 다만 그런 것을 맡기는 일과 돈을 주고 찾아오게 하는 일 외엔 할 일이 없게 됐다. 그러기 때문에 남아 돌아가는 시간을 주부들이 집안에서 파묻혀 있 기란 실로 고통스러운 만큼 권태롭고 불만스러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래서 여가에 대한 대책은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변천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인간들의 개성형성도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오다가 한동안은 식모나 가정교사에게서 영향을 받아 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동년배들에게서와 텔레비전, 라디오, 그림책 등 매스미디어의 영향에서 성격을 굳혀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소년 소녀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사상과 제도가 변혁되고 인간 개성이 또한 여기 적용하면서 변형되어 가는데 과연 윤리는 어떠한 야 할 것인가?



앞서 나는 성을 원초적인 위치로 회복할 것을 주장 하였다. 성의 질서를 긍정하면서도 사랑을 더 하길 요청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밀어닥치는 기술문명에 처할 때 성질서는 어떠해야 할 것이냐를 말한 바 없다. 나는 여기서 그 대답을 완곡한 표현으로 자신의 신념을 호도(糊塗)하려 하지 않겠다. 그것은 곧 성을 현실화해야 하며 그 행위는 비신화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이 주장을 부족문화나 성유문화에 사는 분들에게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기성윤리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새 기술 시대에 있어서의 성에 대한 옛 윤리는 부질 자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격은 주체의 자유가 따라야 하는 법이다. 사랑도 없는데 성에 끌린다는 것은 인격의 가치 절하다. 반면 서로 사랑하는데도 타율 때문에 성적 교제가 제약된다면 어딘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기능화된 사회가 유독 성 기능에서만 신화기에 매어들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본다. 초자연의 베일을 벗겨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신화의 베일을 벗겨서 카리스마를 그리고 종교란 간판을 떼어서 세속화를 주장하는 현대 신학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성의 베일도 마땅히 벗겨져야 하며 그것이 적절한 장소에서 또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상호 회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우리나라의 정황에 얼마나 적응되고 또 언제 가서야 보편화 될지는 모르나 이미 한국의 어느 구석에서는 벌써 이것을 합리화 하고 개척자 정신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의 보편화도 다만 시간문제로 남아 있을 따름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할 일은 성의 비 악마화를 계몽해야 하며, 성과 사랑과의 불가분리성을 재인식케 한 후에는 기능사회에 적절한 다중적, 비타산적, 자기 증여적 사랑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질서형태가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안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진리는 일변도가 아니다. 신의 죽음의 신학과 세속화론이 한창이던 때도 이미 지난 오늘 성의 새로운 윤리설정도 당연히 있음직한 시대적 요청이며 이점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침묵에서 예언자적 자세로 정직한 주장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성(性)의 신화화와
새 윤리

군
목
·
김
선
도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포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잡지의 토픽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층의 독자들에게 게 흥미를 끌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성적인 포화상태는 한편 현대인의 성적인 기근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같이 성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실상은 지극히 피상적이며 선정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잔물을 마시게 하는 것 같이 성적인 기갈을 시원하게 해갈시켜 주지를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근대사회에서 성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 젊은이들은 이 성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의 개념과 현대의 개방된 성 개념과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성의 이중표준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새 윤리(New Morality)요, 상황윤리(Contextual Ethics)라는 이론들로서 이중 표준의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들이 보다 근본적이며, 핵심이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복구의 성교육을 비판하는 그곳 학자들 사이에는 전혀 윤리적인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성을 전혀 배제해 버릴 때 이성인(理性人)으로써의 차원을 성에 있어서만은 외면해 버리자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인 적응을 요청받게 되는 인간은 언제나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생을 충족시키게 되어있으며, 선악의 구별, 가치의 추구, 그리고 의미의 탐구 등의 질문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임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대의 심리학과 문의학 (Counseling)에 있어서 더욱 정신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곧 이 Sex의 문제인 것이다. 때로는 심리적이며 정신장애에서 오는 징후만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바람직한 인간의 도덕성과 현실적인 성의 동물적 충족 사이에 Gap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인간으로서의 성의 문제를 논하려 할 때는 윤리적 결단을 위한 자아의식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성의 신비

인간은 언제나 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인간연구라 할지라도 성적인 피조물로서의 인간실존을 넘어 설 수는 없는 것이다. 마치 인간은 이성인(HomoSapience)으로써,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이 성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되어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통적으로 성은 외경, 공포, 황홀 그리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여기에는 또한 성에 대한 무한한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같이 성의 신비를 말할 때는 아마도 원시시대로부터 인식되어 내려온 바와 같이 성에는 어떤 힘이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의 힘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서의 힘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이 관계로서의 힘의 요구와 충동과 바람 때문에 위대한 행위와 추악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이 같은 인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역사의 방향도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랑과 미움 파괴와 건설 등의 보다 깊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같은 신비한 힘을 제거해 버린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을 것이다.

시그문드 후로이드 이 같은 신비한 힘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을 가져왔으며 수도원 제도나 독신주의가 이 힘을 잘못 이해하여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했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이 신비한 힘을 비신화하여 비인격화하려는 경향 때문에 성에 대한

자각과 책임마저 도외시하게 되며, 새롭게 변장된 성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성의 신비한 힘을 도외시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성을 한 삶의 속성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며, 이로 인해서 인간존재로서의 건전을 이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성적 구별은 선천적으로 지니게 되어있다. 성서적 인간 이해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있거니와 이같이 성의 차이를 지니고 살게 되어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다.

최근에 와서 David Bakan이나 Carl Jung 같은 이들은 인간의 성격 속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격이 동시에 혼합이 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 성서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지닌 인간의 창조 과정에 의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양성인 Image를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설화는 곧 인간은 이 양성을 동시에 지니고 하나의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의 성격 구별은 하나님의 형상 이어받고 또한 이것이 인간실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때 이 성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히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는 곧 사랑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서 알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성서에 하나 남은 사랑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창조의 내용과 일치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해 있으므로 그대로의 신비성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Sex의 시장화와 새 윤리

현대에 이르러서 성에 관한 탐구의 현저한 현상은 곧 성의 시장화라고 하는 것이다. 성을 마치 다른 생활의 액세서리와 마찬가지로 현대문화의 한 아이템으로 시장에 쉽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의 모든 매스컴의 수단들은 한결같이 이 성을 시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정적인 성의 표현들은 매스컴을 타고 안방구석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으며, 가장 성에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양식과 표준 없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신성한 선물인 이 성이 지극히 비인격화

<성의 시장화와 새 윤리>

된 상품처럼 취급을 받게 될 때 참된 인격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성의 기본적인 차원이 완전히 도외시 된 속에서 현대인은 고민하게 된다.

이 같은 성의 객체화와 시장화는 인격의 한 속성인 이 성을 비인격화해서 인간 스스로가 비인간적 취급을 하고 있는 현상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성을 하나의 느낌의 객체로 삼고 쾌락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 인격 상관관계의 기본적인 차원인 윤리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성은 그대로 객체화할 수 없고 인격 전체에 대해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닌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성적 관계는 그러기 때문에 인격의 주체성이 사랑과 신뢰로서 이루어지는 인격 상관관계의 표현이며,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성의 비인격화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사랑과 신뢰로서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게 하며, 형이하학적 차원의 세계로 격화시키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아이오니칼하게도 인격을 중심하는 종교 사회에서도 성의 윤리적인 규범과 원칙에 있어서 때로는 육에 속해 있는 객체로써 인간타락의 위험의 대상으로 보고 그릇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써 감사와 찬미 대신 범죄의 매개로써만 강점을 두며 비인격적인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로 사랑에 근거한 표현양식을 무시하고 부정적이며 지극히 물리적으로 취급되는 성의 객체화를 우리는 또한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인은 성의 이중적 표준 때문에 성이 시장화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성적 표준이 다르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즉 정치적, 경제적, 육체적 낚임으로 이루어지는 이중표준으로 성이 비도덕화되고 비인격화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써 여성들의 성적 표현의 부자유나 동성연애 관계나 자위행위의 경향이 결혼 후에도 이루어지는 것도 이 같은 이중성의 표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종교적인 윤리적 규범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하는 유혹 때문에 그 윤리의 근원정신을 망각하는 기계적인 준수로서 도리어 성을 비인격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순결과 동정을 찬양하는 종교의 교훈도 지극히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나머지 그 배후의 신성한 인격적인 의미를 무시하여 육체의 비인격적인 기계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또한 현대의 성의 비윤리성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같은 상황 속에서

<성의 시장화와 새 윤리>

성의 새 윤리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완전히 전복해 버리고 전적인 성의 자유나 해방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옛 윤리, 전통적 윤리가 지나치게 문자적이며 기계적인 준수에 역점을 두어 왔던 것을 새 윤리는 그 개인의 인격적이며 책임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그 윤리의 외적 양식보다는 내면적이며 정신적인데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옛 윤리관은 인간 중심이기보다는 율법적인 문자가 중심이 되어 기계적인 준칙만을 강조하는데 비해서 새 윤리는 그 규범의 근본적인 의도와 정신을 이해하며 인간중심(Person center)의 준칙이어야 하며, (Content)보다는 Context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윤리의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윤리는 외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새 윤리는 적극적이며 도덕적인 결단을 그 인격적 책임에 두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 윤리는 여기에 왜? 를 알려고 하고 이에 보다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의 문자의 내용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아니다.

보다 심각하게 그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이 윤리의 기본적인 정신을 찾아 이에 궁극적인 윤리적 결단을 그가 인격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다 높은 가치표준에 의해서 책임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성적인 외향성은 때로 이중적인 위선에 희생이 되는 비도덕성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새 윤리는 양식이나 Content보다는 근원적인 윤리의 정신과 인간의 상황과 인격적이며 책임적인 결단에 악센트를 두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성적인 자유만을 주장하여 방종에 빠지고 보면 또 하나의 방종의 범에 노예가 되어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성의 범람과 시장화의 경향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격적인 자유와 책임과의 긴장관계에서 궁극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새 윤리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 ×

- 현대인과 성경
- 자기완성의 길
- 영혼의 고속도로



현대인과 성경

군
목
·
김

두

식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대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여 우리는 이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무한하신 지혜와 영광과 전능하심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를 특별 계시라고 하여 인류구원의 진리, 즉 기독교적 신앙의 영적 양식을 이 성경에서 얻는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서적이 많고 수많은 간행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성경만큼 많이 출간되고 많이 팔리는 서적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군종코너>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 논문, 시편, 잠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냐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는 각양방식을 통하여 나타난다.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며 시편이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낸다.

겻세마네 동산의 예수를 그린 성화를 보면 한 획 한 획이 다 예수 그대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전체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고대 서적이라고 말한다.

나날이 과학이 진보되는 세상에 원자시대가 되었고, 인공위성이 나는 세상에서 새로운 책을 읽을 것이지 수천 년 전의 옛 책을 읽을 필요가 어디 있는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옛것이라고 해서 다 버릴 것은 아니나 수백 년 내려오는 가보로서의 족보를 낡은 책이라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도 논어나 맹자를 읽어야 되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사상을 연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알키메데스의 원리는 지금도 역시 물리학상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역시 기하학상의 진리로서 세상 끝까지 변치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고대인의 인정과 풍속과, 사회제도와 관습의 의복을 입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간들은 학문을 통해서 수양과 도덕을 가지고 완전해지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문과 수양과 도덕만으로는 인간을 완전케 할 수 없다.

인간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성경의 힘이 크다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변화시켰고 인간을 새롭게 하였다. 성경은 야만인을 문화인으로 만들고 성경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변화시켰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하였다. 적과 싸워 이기려는 군사는 굳건한 무장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겹이 되신다.

강 재구소령은 산화했다.

멀어져 가고 있는 영혼과 영혼의 대화를 위해서 인간의 장벽을 희생이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서로 외면하던 먼 거리를 직통하는 영혼의 고속도로를 준공해야겠다.

성직자와 선도 간에, 지휘관과 부하 간에, 장교와 사병 간에 이용과 사기와 불신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랑과 인정미를 실어 나르는 고가도로를 착공해야만 하겠다.

돌 던질만한 거리에 있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건설해야겠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종교가는 종교가대로, 자파의 권익만을 위해 투쟁한다면 국민 된 우리는 어느 세월의 바다에 돛을 내려야 할지 모를 이 무서운 거리에다 우리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야 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기 위해서 77명의 생명이 바쳐졌다면, 우리네 영혼과 영혼의 고속도로를 개통하기까지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제물로 바쳐져야만 할까.

<위인일화>

경흥국사는 신라 신문왕 때의 명승이다.

하루는 말을 타고 왕궁으로 향하는 길에 건어를 담은 광주리를 지고 가는 중을 만났다. “너는 불제자인 몸으로서 비린내 나는 것을 지고 있던 말이나?”라고 한마디 꾸짖었다.

“흥, 두 다리 사이에 산고기를 끼고 다니는 주제에 마른 고기를 진 사람을 책해?” 중의 이 한마디에 무색해진 경흥국사는 사람을 시켜 중의 뒤를 밟게 하였더니 문주사 앞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고 종적을 감추었는데 광주리의 것은 건어가 아니라 소나무껍질이더라는 것이다. “대성께서 나의 말 탔음을 경계하심이로구나” 하고 그는 그 후 평생 말 등에 오르지 않았다.

조국의 하늘

필 필 휘날리는

깃발 아래서

조국의 이름으로

하늘로 외쳐보는

자유와 평화

깃발이 찢기우고

목이 터지도록

조상이 지켜 온

유구한 역사

보라 조국의 하늘

저 푸른 창공을

쌌어 하계

숫구치는

폭음의 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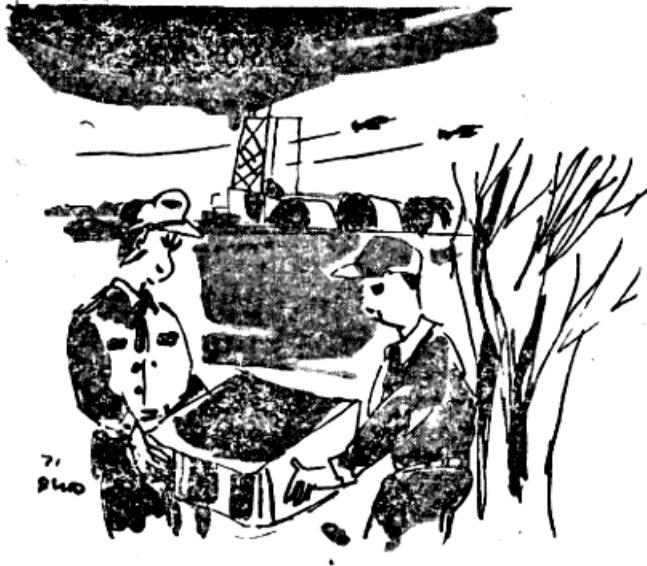
아아

혼(魂)들이 터지는 단심(丹心)

그 모습

피 끓는 난무를 보라.





후 일 담

최 인 호

나는 1966년 11월 1일부터 1970년 2월 28일까지 공군에서 복무하였다. 병과로는 157기였다.

그 추억을 공군본부정훈감실에서 써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3년 반. 정확히 3년 4개월을 복무하였다. 들어올 때는 3년을 선서하고 들어 왔는데 김신조씨 덕분(?)에 4개월을 더하였다.

3년 반.

절대 짧은 시기는 아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던 세월이었다. 나는 입대와 동시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었다. 대전 기교단 눈 내리는 연병장에서 거의 수료식을 앞두고 나는 내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된 소식을 알았다. 별로 기쁜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따듯한 밥을 두어 쉼이 더 먹었으면 하는 느낌뿐이었다. 문단에 발을 들여놓아서도 나는 제대할 때까지 작품 하나도 쓰지 못했고, 발표하지도 못했었다. 그것은 차라리 치욕이었다. 사병처럼 나는 술을 먹고, 음담패설을 하며 사병처럼 외출 나가고 싶어서 이미 돌아가신 외할아버님을 두어 번 더 돌아가시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었다. 사병의 생활. 그것은 역설적인 천국이었다. 내무반 그 담요에 물려 자는 것이 얼마나 편하였던가. 급양대에서 풍겨오는 보리밥 냄새. 화랑담배를 아껴 피우던 옛 전우야. 지금쯤은 머리 기르고 재고 있겠지.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엔 나하고 같이 군대생활한 사람도 있을 줄 안다. 장교는 모르겠지만 사병들은 모두 내 부하일 것이다. 군대말마따나 집합시키면 부산까지 갈꺼구, 내가 먹은 콩나물을 일렬로 세우면 백두산까지, 황대로 정열 할 것이다.

나는 군대생활을 김포에서 하였다. 비행장 타워에선 정확히 5초마다 불이 회전된다. 내 특기는 67, 관리특기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세는 특기였었다. 덕분에 나는 팔자에도 없이 주판을 배워야 했고, 약간의 부기는 배워야 했다.

두서없는 얘기 그만하고 아주 재미있던 추억들을 적어 볼까 한다.

원래 나는 1966년 10월 1일 1일로 입대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도 내 입대 날짜가 11월 1일로 된 것은 사무상 착오였기 때문이었다.



<후 일담>

때문에 나는 일단 10월 4일자로 가입교했고 연사홀간이나 신체검사도 받고, 렌트겐도 찍고 하였다. 그때 나는 도저히 우리를 인솔하였던 소위 내무반장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민간인으로서 첫 번 본 군인들의 태도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은 도무지 웃을 줄 모르는 사내들처럼 얼굴에 웃음이 없었다. 결국 나는 10일 7일쯤 불합격으로 한 달 후에 다시 대전으로 오라는 통지를 받고 대전을 쫓겨나왔다.

그것은 참 한심한 일이었다. 친구 녀석들에게 회식이다, 송별회다, 잔뜩 술을 얻어 마신 것은 물론이고, 애인에겐 자못 이수일과 심순애 같은 표정으로 잘 있거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울며불며 사랑의 이별을 한 판인데 비록 한 달 후에 다시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있다는 치더라도 쭉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그때 나는 서울에 올라와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였다. 그리고 그때 얻은 경험 즉 웃지 않는 사내들인 내무반장 얼굴에서 작품소재를 얻어 작품을 하나 썼다. 바로 그 작품으로 나는 소설에 당선되었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무렵 원구녀석이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불일이 있어 들린 적이 있었다. 나는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학교 구내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웬 공군 하사 하나가 구석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다. 술도 취했겠다. 가입 기간 중 4일간의 경험으로 그 하사 계급장을 달았던 소위 내무반장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보았겠다. 나는 그 사내에게 다가가서 말하자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사병들을 못살게 굴 것까지야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강경하게 따졌고, 그때 나는 민간인이었으므로 제법 그 사내가 듣기에 언짢은 얘기까지 해 버렸던 것이다.



<후 일담>

그때 그 사내는 웃으면서 아주 혼이 나서 하사 계급장을 보면 좀 기분이 나쁘신 모양이군요 하고 대답했었는데 말마שו 말마שו 어쩌나 무섭던지 거 내 여동생 있다면 절대 공군하사에겐 시집 안 보내겠다고 나는 호언장담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 내가 공군에 입대하고 훈련을 마친 후 ○ ○전투비행단(지금은 바뀐 모양이지만) 본부대로 배속받고 소위 신병신고를 하는 판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병신고라는 것은 의례 뺏다로 받고, 노래도 부르고, 원산 폭격도 하는 일종의 숨겨진 사병끼리의 일대 향연인데 바로 그 엄숙한 제전에서 바로 문제의 공군하사를 맞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물론 그 사내를 기억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내는 내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번조장에게 이끌려 3내무반 반장에게 인사를 하는 판이었다. 그때 그 사내는 침대에 걸터앉아서 발을 씻고 있었다. 나는 이미 몇 차례의 뺏따와, 몇 차례의 푸싱(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 푸싱이야말로 공군의 전통인 것으로 안다.)에 정신이 얼덜했던 판인데 바로 그 사내가 일어서며 불쑥, “어이 최 이병, 날 기억하겠는가?”

하고 물어왔다. 나는 반가운 나머지 혹시 친구나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사회에서 알던 친구가 아닌가 하고 소위 미소작전을 쓰다 올려다보았는데 웬걸 통 기억나질 않았다. “모르겠는데요.”

“뭐야, 이 자식.”
순간 사내, 아니 S 하사님의 푸싱이 안면을 향해 비상하였다. 그것은 김일이가 일본 레슬링선수에게나 강타한 그런 박력이 있는 일격이었다.

“뭐 어쨌다구. 서울대학교 구내식당 기억나나. 입마. 거기서 뭐 어쨌다구. 공군 하사들은 모두 뭐 어쨌다구.”



<후 일담>

오우 담소사. 신이여. 왜 이렇게 가혹 하시나이까. 나는 이미 체념하고 있었다.

그 후부터 나는 줄곧 그 S하사님의 훌륭한 지도편달, 일테면 구두를 닦는다든지,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역을 줄곧 받아야 했음은 물론이다.

또 한 가지.

나는 관리특기였던 관계로 한때 BX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다들 이상하게도 BX요원이라면 침을 흘리는 자리인 줄로 나는 알고 있다. 말하자면 집호도 취하지 않고, 좀 행동이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이점으로 즐병들이야 누구든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리였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도대체 돈에 험픈 나로서는 돈 계산에 눈이 어두웠던 탓으로 일일계산이면 늘 현금이 비었다. 한 달, 두 달 쌓아가고 보니 늘 빚만 늘고 집에서 갖다 메꾸어야 할 판이었다. 거기에 다른 사병들은 손 BX에서 근무하면 용돈 풀거나 생기는 줄 알고 색안경을 쓰고 보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 나는 S대위와(지금 이분은 대구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또 한 명의 고참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빵 한 개엔 8원. 우유비누 40원, 껌 한 통에 8원……가격의 부기도 서툴러서 어떤 것은 5원 더 붙여 팔 때도 있었고 어떤 것은 5원 덜 붙여 팔 때도 있었다. 이를테면 나는 물건 장사엔 영 썩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활은 재미있었다. 우리는 S대위와 저녁때면 노을 지는 공항 잔디밭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가끔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까닭 모를 우수 속에 잠기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나는 생활이 재미있긴 하지만 이 생활이 내겐 맞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후 일담>

나는 BX 생활을 못 하겠다고 처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BX 생활을 제 발로 청산한 것은 나 이외엔 별로 없으리라고 믿고 싶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다.

우리 비행단 단장님은 김준장님으로 아주 굉장한 미남자였던 분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개 사병인 우리로서는 단장님과 얼굴을 맞대기란 그야말로 연합사열 때나 먼발치에서 볼뿐이었다. 간혹 사무실 순시 때나 내무검열 때에도 단장님이 드나드시기 했지만 그땐 너무도 경외스러워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병 고참이었을 때 외출 나와 사복을 입고 명동 어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정종을 파는 집이었다. 워낙 나는 술이 약한 탓으로 조금 마시자 금방 취기가 올라왔는데도 무리해서 마셨기 때문에 구역을 느끼고 있었다. 해서 나는 술좌석 중간쯤에 변소에 가서 좀 토하는게 좋겠다고 일어서서 변소에 간 적이 있었다. 변소에 웅크리고 한바탕 토해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였다. 옆을 보니 웬 사내가 서 있었는데 틀림없이 단장님이셨다. 사복은 하시긴 했지만 틀림없었다. 나는 부지중에 나도 사복을 한판이었지만 순간 부동자세를 취하고 거수경례를 올려 불렀다. 그러자 단장님도 놀라신 모습으로 거수경례로서 답하여 주셨다.

“저는 ○○전투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최인호 병장입니다.”

“오, 어디 근무하고 있나?”

“옛, 관리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술 많이 마시게.”

“옛. 많이 많이 마시겠습니다.”



<후 일담>

내 목소리는 원래 좀 큰 편이다. 아버지가 변호사였던 탓인지 몰라도 때문에 나는 신병대에서도 중대근무도 목소리 하나 크다는 탓으로 한 경험이 있다. 나는 그날 단장님 좌석에 술 한 병을 들고 가서 단장님에게 한잔 권해 드리고, 나도 감히 떨리는 손으로 받아먹었다. 그다음날 월요일 부대에 들어가니 온 관리처가 축제분위기였다. 처장님이 참모회의에 들어가셨다가 단장님에게 직접 관리처에 아주 용감한 사병이 있더라는 칭찬을 해주신 모양이었다. 나는 정말 용감한 사병이 된 기분으로 우쭐거렸다.

나는 군 복무 중에 몇 개의 단편을 공군지와, 공군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다. 그중에 내가 아주 졸병이었을 때 부대 고참을 비방하고 풍자해서 쓴 단편을 읽어보고, 부대 고참들에게 나는 갖은 수모를 당했었다. 그때 내 생각은 그러하였다. 구태여 부하를 다스리는데 폭력으로서 다를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주제로 풍자해서 썼던 것이다. 이 소식은 부대 고참들에게 아주 건방진 인상을 주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약간의 기합과 약간의 매를 선물 받았다. 그때 내 생각은 내가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내 부하에겐 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맘에 간직했었다. 이 스스로의 약속은 그래도 지켜졌었다고 나는 자부한다. 설사 몇 번의 매질을 한 적은 있었다. 그런 때엔 나는 아주 몹시 때리고 다음에는 같이 술을 마시곤 하였다. 나는 절대 아직도 군기는 꼭 구타로서 뿐만 아니고 사랑으로서 더 확립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

다음에 인상에 남는 일은 신병대에서 갓 배속되어 비행단에 왔을 때 처음 2개월간 헌병대에서 보초근무를 하던 기간이었다. 보초를 서던 기간은 1월과 2월달로 살을 예이는 추위에 두 시간 서 있고 나면 사지가 얼어붙은 아주 매서운 날씨였었다.



<후 일담>

더구나 신병이야 제일 한심한 활주로에 나가 비행기를 지키는 날 보초를 맡는 것이 보통으로 라인에 나가 서 있으면 처음 한 시간은 그래도 공상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나 후에는 무아지경 온통 머릿속이 얼어붙어 길고 긴 회색의 터널 속으로 용해져 버린 것처럼 나는 선채로 꿈을 꾸고 있는 셈이었었다.

아아 나는 그 강추위와 길고 긴 겨울밤의 여덟 시간 동안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잠도 못 잔채 밤 12시에 당직대에 어슬렁어슬렁 집합한 후 근무할당을 받고, 파카를 뒤집어쓰고 라인으로 향할 때 차가운 밤 겨울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번득이는 비행기의 번득이는 예리한 야광, 죽은 곤충처럼 무의미하게 누워 있는 비행기의 날개, 유난히도 밝은 달빛과, 온 하늘 가득히 흐르는 별들, 저편 크라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코허리가 시큰한 매운바람, 아아 나는 그 겨울, 그 녹녹하고도 은밀한 겨울의 꿈을 잊을 수 없다.

이런 난본초에도 이력이 붙자, 나는 제법 디젤난로가 있는 P.O.L 근처의 훈훈한 초소로 나가게 되었으나 나는 오히려 그것이 라인보다 못하게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앉아서 새 울음소리를 내가며 타오르는 디젤난로에 후끈후끈 달아오르면 공연히 마음이 산란해지기 일쑤였던 것이다.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 줄 모르지만 그때 전에 연극 영화과 다니는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내달이면 열 달 보초를 끝내고 특기전환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날 보초엔 도통해 버린 사내가 하나 있었다.

이 사내는 좀 입이 헤픈 편으로 나하고 짝이 맞아 연이은 초소에 같이 나가게 되면 밤새도록 자기 구역은 별로 신경 안 쓰고(그러면서도 그의 귀는 날카로우 확실히 날 보초 열 달에 넘 오는 예리성짙은 금새 알아낸다는 말이 맞을 지경이었다.) 자기의 보초 실패담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다.



<후 일담>

그중에 하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유명한 토끼고기 사건이다. 의례 야간 근무시간엔 제아무리 공자라도 상상이 부풀어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게 보통으로 이 친구 밤 3시쯤 갑자기 M대대장이 애지중지 키우는 새끼 뱀 토끼 암놈의 포동포동한 먹음직스러운 모습이 생각난 모양으로 좀 후에는 예라 모르겠다. 그 토끼를 훔쳐서 그만 디젤난로에 탄약고 직감실에서 얻어 온 버터를 바르고 즉석 토끼구이를 했었다. 토끼는 맛있게 구워졌고 작은 초소는 온통 훈훈한 고기냄새로 충만을 해서 이 친구는 주책없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밤새도록 그 토끼고기를 포식했다는 얘기가. 결과는 이 사내 영창에서 PSP판을 탔다는 얘기고 이 토끼사건은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나는 이 사내가 토끼고기를 구워 먹은 초소에 자주 나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초소에 나갈 때마다 나는 선풍선풍한 느낌을 받곤 했다. 유명이란 말은 들었어도 토끼 도깨비란 말을 들은 적이 없던 나인지라 그 선풍선풍한 느낌은 그저 추위 탓이려니 했었는데 결국 새벽녘 나는 토끼의 유명을 보았던 것이다. 보아라. 철조망 너머로 하얀 토끼가 희뜩희뜩 움직이며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아-. 나는 진땀을 흘리면서 총에 장진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은 인근 초가집에서 보이는 빨래로 판명되었지만 밤새도록 토끼유령에 시달린 나는 다음날부터 아예 라인으로 내 보내주십쇼 라고 애원을 해서 결국 중대장으로부터 영예로운 라인의 왕자라는 닉네임을 선사 받았던 것이다.

어느 날 내가 특기부대인 관리처로 넘어오기 하루 전 그 날 야간은 유난히 따스했고 파커를 뒤집어쓰고 라인으로 나가는 나의 가슴은 강인한 투지로 뛰고 있었다.



<후 일담>

그날은 오후부터 잔뜩 흐리기 시작했는데, 밤에 공항에서 번득이는 불빛을 이천 번쯤 세고 있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폭설이었다. 눈이 내리는 라인이란 참으로 멋진 광경이었다. 불쭉 일어난 느낌으로 라인에서 있는 내 눈앞으로 온통 하늘이 실렁거리며 흰 눈이 내리는 것이었다. 보아라. 눈이 내린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희고도 부드러운 눈발이 온통 지구를 덮어버린다. 이 거대한 하늘 속에 홀로 서 있는 나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덮고 있는 겨울의 보초인 것이다.

그때 먼 곳에서 헤드라이트가 소리를 죽이고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순찰차임을 알고 총을 세우고 차를 잡았다. 차는 물방개 처럼 달려왔고 조장이 유난히 흰 얼굴을 들고 수고한다 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따스한 손을 잡으며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것. 조국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메었던 것이다.

언젠가 나는 우리 비행단의 모범사병으로 뽑힌 일이 있다. 원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모범사병은 아니었다. 모범사병과 최인호는 턱에도 맞지 않은 격이었다. 그런데도 정훈관실에서 나를 추천하였다. 나는 전우신문기와 인터뷰까지 하였다. 우스운 일이었다. 단장실 앞 잔디밭에서 사진도 찍었다. 사진 기사가 내게 좀 멋진 포즈를 취하라고 하였다. 나는 내가 영화배우도 아닌 주제에 연기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인 것처럼 생각 들었다. 어쨌든 만상의 나의 사진은 모범용사라는 명성과 함께 전우신문에 게재되었다. 나는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진짜 모범사병 노릇을 해야 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턱을 내야 했다.



<후 일담>

또 한 가지.
 지금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기상나팔과 취침나팔은 정
 훈관실 담당이었다.
 나는 졸병 때부터 기상시간이면 정말 괴롭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 기분을 늘 맛보고 있었다. 푸근하고 달
 콧한 새벽잠 소리에서 탄따다 탄따다 탄따다가 울리면 순
 간 뚜렷한 대상도 없이 화를 내곤 했었다. 때문에 만일 저
 기상나팔 틀어대는 정훈관실 사병이 좀 늦잠을 자서 한 삼
 십 분 더 있다가 취침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훈관실 요원 두 명이 모두 부재중이었
 을 때 내게 하룻밤만 직감노릇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
 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정훈관실 직감실에서 잠을
 잤을 때였다. 원래 정훈관실 직감을 깨우는 사람은 말번립
 불침번으로 6시 10분 전에 깨우게 되어 있었다.
 역시 정확히 6시 10분 전에 창문을 두드려서 나를 깨웠다.
 “알겠어.”
 나는 큰 소리를 지르고 기상나팔에 스위치를 누르려고 손
 을 뻗치는 순간 에라 까짓것 한 30분 더 늦게 기상나팔 불
 면 어쩌냐, 우리 불쌍한 전 비행단 졸병들이나 더 재우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를 악물고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이 빨리 30분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속으로는
 겁이 잔뜩 나기 시작했지만 나는 참을 수 있는데 까지는
 참아 보기로 했다. 겨우 15분이 지났을 때였다. 순간 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나는 불길한 예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정훈관실 최상병입니다. 통신보안”
 “충사령인데. 자네가 정훈관실 직감인가?”
 “아 예. 그렇습니다.”



<후 일담>

나는 이미 턱이 달달거리며 떨고 있었다.
 “주변 사관 오라구 그래.”
 “예, 무슨 일입니까?”
 “임마 시계를 봐. 지금이 몇 시야. 도대체 정신 있는 거
 야 없는 거야.”
 “고장입니다.”
 나는 순식간에 거짓말을 했다.
 “뭐라구.”
 “갑자기 나팔소리가 고장 났습니다. 때문에 기상나팔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작 그래야 할게 아닌가.”
 나는 이리하여 위기는 모면하였다. 또 한 가지 물론 누구
 던 부하는 사랑하겠지만 특히 맹목적으로 내가 좋아하던
 녀석이 있었는데 녀석은 180기로서 아주 새카만 졸병이었
 지만 아마 지금은 굉장히 고참으로 되어 있을 것이었다.
 이 녀석은 무지무지하게 사고뭉치였다. 앞이마가 폭 들어
 가서 내가 짱구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녀
 석으로 하루에도 세수는 열 번도 더 하고 아모레 남성용
 크림만 늘 바르는 녀석이었다.
 나는 이 자식을 아주 귀여워하였다. 원래 좀 늦게 군대 들
 어간 탓도 있지만 녀석은 나보다 나이도 동생뻘만큼이나
 어렸으므로 아주 내게 좋아했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무지
 무지한 사고뭉치였던 것이다. 외출만 나가면 미귀에다가,
 휴가만 나가면 하루 이틀 탈영은 밥 먹듯이 했었다. 그 이
 유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아가씨는 나도
 본 아가씨지만 조그맣고 귀여운 여자애였다.
 녀석은 사고를 치고 들어온 날이면 내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사고였다. 나는 녀석을 한 번도 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무반의 다른 고참 애들이 가만두지 않았다. 가뜩 색안경 쓰고 보는 판인데, 녀석이 너무 자유분방했으므로 늘 기합이었다. 나는 나중엔 내무반까지 바뀌가면서 내 옆에 침대를 놓게 하고 저녁마다 같이 얘기도 나누었다. 녀석은 나를 참 잘 따라주었다. 내가 제대할 때 녀석은 내게 담배를 한 갑 사주었다. 그리고 그 후 내가 제대한 후 결혼했을 때 녀석은 어떻게 알았는지 직장에 와서 내게 유리컵 세트 한 상자를 사다 주었다. 나는 그 유리컵에다 냉수와 주스와 콜라를 마시면서 그 머리 짱구인 녀석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젖곤 한다.

나는 군대에서 참으로 좋은 친구와 선배를 만난 것으로 자부한다. 그런 친구들과 선배들은 사회에서 만났으면 얼핏 지나칠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대 안에서 맺은 우정은 아주 값진 것으로 알고 싶다.

사병들도 인상에 남는 친구들이 많지만 장교분들 중에도 몇 사람이 있다. 그분들과 나는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었다. 나는 가끔 군대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다. 즉 군대생활은 어물어물 보내고 제대나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단언한다.

군대라는 그 사회는 묘하게도 사회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잘 어울리고, 적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이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

그중에서도 잊지 못할 분이 또 있다. 지금은 대위일 테지만



대위님이었다. 키가 작고 뚱뚱해서 내가 늘 비락장교님 비락대위님 하고 부르곤 했다. 나는 그 장교님을 수재 형님으로 알고 있었다.

아주 착하고 아량이 넓은 분이였다. 나는 언젠가 그 형에게 돈을 1,500원 뿐 일이 있다. 봉급날 내가 오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별수 없이 가서 돈을 꾸었다. 사실 장교봉급이라야 몇 푼 되는가. 그때 계급 중위였던 이분은 자신도 몇 푼 없는 돈으로 내게 그것을 꾸어주었다. 그런데 원래 신용 없는 나는 그것은 깜박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야 나는 불쌍 그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것을 갚으려 했었다. 그분 대위 진급 때 나는 무교동 술집에서 한 잔 술을 하자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속칭 한 잔 꺾었는데 나와 계산하려 보니 이분 또 자기가 지불한 것이 아닌가. 별수 없이 그 1,500원 아직 지불 못하고 말았는데 그 형님이 글 읽으시면 전화 걸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다.

너무 황설수설하였다.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그 3년 반 동안 기뻐던 일과 추억에 남는 일이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시절의 얘기가 아니었다. 기합받던 일도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 지루했던 원산폭격이며, 선착순 집합이며, 연병장을 맨 배로 쓸던 눈 오던 밤의 기억이며. 전화교환 아가씨들의 로맨스여. 그 모두가 추억이 아니겠는가.

다들 지금은 어디 있는가. 그때 그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그 군복 입었던 모습들. 그 사내가 요즈음 길거리에서 자주 만나는 머리 히피처럼 기른 그 친구였던가.

하지만 역시 군대생활 최대의 수확이라면 내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겠다.



<후 일 담>

이건 글썄 아내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할 비밀이었지만 내가 원래는 우리 아내를 내 아내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천하의 미남자 최 병장에게 추파를 보내던 여자가 어디 한 둘이었어야 말이지.

그런데 이 친구가 거의 매주같이 나를 면회와 주었다. 과히 못생기지 않은 여인이 거의 매 주일 나를 면회 왔다는 것은 내게 야심을 품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라. 결국엔 예라 여자 하나 구원해 준 셈 치자 라고 아예 낙착을 저버렸다.

그 여인이 지금의 아내이다. 나 혼자만 군대생활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여인도 같이 군대생활 해주었다. 내게 삼년 반, 그 여인에게 삼년 반 도합 칠년이라는 세월을 그녀는 나를 참고 기다렸었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아내 애기라면 찢찢매는 공처가가 되어버린 것도 일리는 있는 이유인 것이다.

나는 지금도 버스 속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우리 젠틀한 공군들을 보며 다시 한번 쳐다보곤 한다. 모두 신사들이고 모두 미남자들이다.

나는 그들이 거리에서 혹은 실내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씩씩하지만 그러면서도 묵묵한 행동들을 바라보면 아주 즐거워진다.

공군가족. 나도 하나의 공군가족인 것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비행기의 날선 비행을 볼 때에도 나는 내가 파일럿인 양 으쓱으쓱 해지는데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학교에 복교했을 때였다.

내가 급우들에게 인사를 하고 공군 제대를 했다고 인사를 하니까, 군대에 가지 못한 후배들이 불쑥,

“최 형은 그럼 비행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후 일 담>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한 2백 시간은 될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그럼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물길래,

“오키나와에 서너 번 갔었습니다.”

라고 역시 거짓말을 덧붙였더니 일약 나는 유명해지고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공군비행사로서 추앙받게 되었다. 결국 나중엔 거짓말로 판명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나의 별명은 빨간 마후라이며, 이 영예로운 별명은 아주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다.

3273209.

그것은 자랑스러운 나의 군번이다. 또한 이 군번은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다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져 버려도 좋다는 사명감 위에 주어진 영예로운 군번이다.

이 자랑스러운 군번을 가진 공군가족인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주시하겠으며 영원히 여러분의 일원인 것이다.

두서없는 후일담 여기서 끝마치겠다. 부디 신의 은총이 내내 하길 빈다.



편집 후기

◇……6·25, 21주년을 맞는다.

만 3년 1개월 2일에 걸친 파비란내나는 전쟁, 민족 최대의 참사였다. 이승녕, 류홍열, 한갑수, 안병욱, 김유혁, 조성직, 김태서 님으로부터 6·25에 겪은 생생한 사실과 우리의 마음 가짐을 들어본다. 공산북괴들의 폭악무도한 만행, 그날의 분노를 되새겨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방위태세를 보다 강력히 굳혀야겠다.

◇……새 시대의 군인상, 군인의 충성심과 사생관을 보다 깊히 추구한, 윤영춘님과 김은우님의 육고, 일독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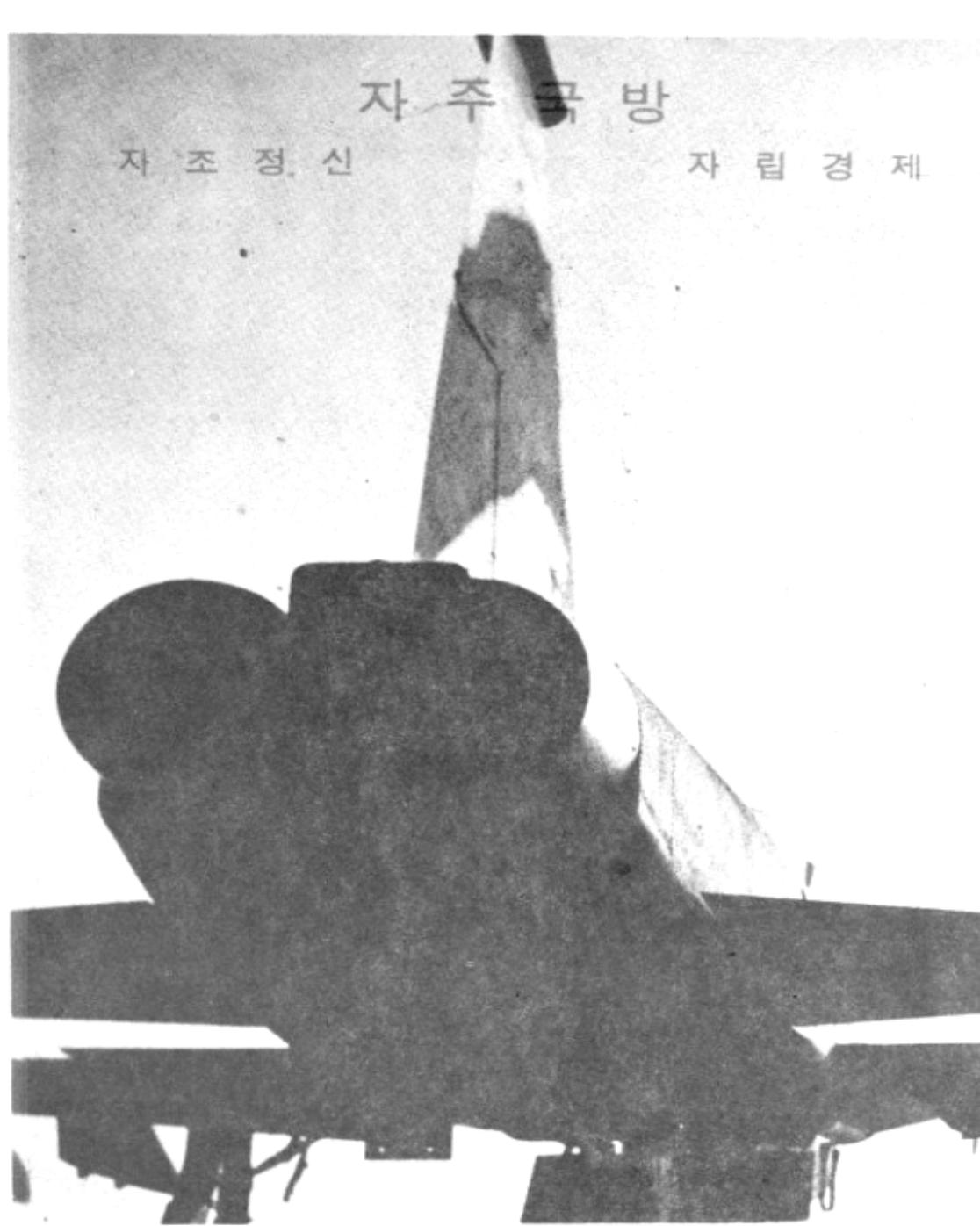
◇……4년반에 걸쳐 공군 정훈간행물 편집을 위해 고락을 같이하던 전 양경 중위가 6월말일부로 명예의 전역을 한다. 지성과 패기에 찬 그의 가는 길에 무한한 발전이 있길 빌며, 석별을 아쉬워 한다.

<준>



영화감상
<성녀 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이탈리아.1452-1519>
●루브르미술관 소장



정병강군

임전태세확립



명사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